

# 인권

## <정의>

UN에서는 1948년 UDHR(세계인권선언: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이 채택된 것을 기념하는 날로, 매년 12월10일을 ‘세계인권선언일’ 또는 ‘국제인권기념일’로 지정하여 인권과 관련된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그 중심에는 OHCHR(the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인권고등판무관실)이 있다. OHCHR은 UN에 속한 조직의 하나로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세계각국의 인권 보호와 계몽을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유엔 인권이사회와 협력하여 UN의 인권문제에 대한 활동을 지휘하고 있다.

인권에 대한 정의는 UDHR에 잘 표현되어 있다. 특히 제 1조 “모든 인간은 존엄과 권리 속에서 자유롭고 평등하게 태어난다.”라는 표현은 그것의 전문에 나와 있듯이, 인권은 모든 인류의 천부적 존엄성과 평등하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이며 이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세계의 자유, 정의, 그리고 평화의 기초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그리고 인권에 대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OHCHR에서는 “인권이란 국적, 거주지, 성, 국적이나 종족, 피부색깔, 종교, 언어, 또는 그 밖의 자격(status)가 무엇이든 상관없이 모든 인간에게 주어진 천부적인 권리이며, 우리 모두는 차별없이 우리의 인권을 모두 평등하게 누릴 자격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모두가 서로 연관되어 있고, 서로 의존적이며, 결코 분리될 수 없는 권리”라 정의하였다. 특히, OHCHR에서는 인권에 대한 4가지 원칙을 기술하고 있는데, 이 원칙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가) 보편성과 절대성의 원칙

인권의 보편성 원칙은 국제인권법의 초석이며, 1948년에 세계인권선언에서 가장 먼저 강조된 이 원칙은 정치적, 경제적, 그리고 문화적 시스템과 상관없이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보호하고 촉진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라는 것이다. 그리고 비록 인권이 절대적이라 하더라도 법원의 유죄 판결과 같은 특별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제한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 나) 상호의존성과 불가분성의 원칙

이 원칙은 생존할 권리, 법 앞의 평등할 권리,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가 비록 r공민적 권리 또는 정치적 권리라 하더라도 모든 인권은 불가분성을 갖는다는 것이다. 일할 수 있는 권리, 사회적으로 안전할 권리, 그리고 교육을 받을 권리와 경제적, 사회적, 그리고 문화적 권리, 또는 자아개발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와 같은 집단권리 역시 불가분적 권리이며 이러한 권리들은 모두 서로서로 연관되어 있으며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어떤 한 가지의 권리의 개선은 다른 권리의 발전을 원활하게 하지만, 마찬가지로 한 가지 권리의 박탈은 다른 권리에도 악영향을 끼친다는 원칙이다.

#### 다) 평등과 비차별의 원칙

이 원칙은 모든 중요한 인권조약에 포함되어 있으며, 국제인권회의(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 그리고 the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의 핵심 테마로 빈번하게 등장하는 예민한(cross-cutting) 원칙이다. 특히 이 원칙은 모든 인권과 자유에 관한 조약에서 적용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성, 인종, 색깔 등과 같은 non-exhaustive categories(마르지 않는 범주)의 리스트를 근거로 차별을 금지한다는 것이다.

#### 라) 권리와 의무의 원칙

인권은 권리와 의무를 수반한다. 국가는 인권을 존경하고 보호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국제법에 따라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한다. 존경에 대한 책임이란 국가는 인권의 향유를 삭감하고 간섭하는 것을 억제하여야 한다는 것이고, 보호해야 할 책임이란 국가가 인권악용에 맞서 싸우는 개인과 집단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며, 이행하여야 한다는 책임은 국가가 기본적 인권의 향유를 원활하게 하는 긍정적 행동을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또한 개인적 차원에서, 우리가 우리의 인권을 누릴 자격이 있는 반면에 우리는 다른 사람의 인권 역시 존중해야만 한다는 원칙이다.

<United Nations Human Rights: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 <http://www.ohchr.org/en/issues/Pages/WhatareHumanRights.aspx>>

UDHR의 정의 이외에도 인권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인권이란 간단하게 말해서 사람으로 태어나면서부터 갖게 되는 절대적 기본 권리이며, 이 권리는 지역적, 지리적, 국가적, 그리고 국제적 법률 속에 자연적 권리(natural rights) 또는 법률적 권리로 존재할 수 있고, 이것의 독트린(doctrine)은 전 세계의 공공정책에서 하나의 초석으로 인식되어 왔다.<Wikipedia> 이외에도 인권에 대한 많은 정의가 있지만, 그것들의 기본적인 개념은 모두 다 UDHR의 개념과 대동소이하다.

끝으로 위의 살펴본 인권의 개념을 간략하게 요약해 정의해 보면, 인권이란 결국 인간으로 태어나면서부터 인공적 간섭 없이 갖게 되는 존엄하고 평등한 권리이며, 국가는 이것을 보호할 책임과 의무가 있고, 이것은 사회정의의 확립과 공공정책의 수립에 뿌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 IFLA 인권관련 선언서 요약

### 1) IFLA Statement on Access to Personally Identifiable Information in Historical Records - 2008

The International Federation of Library Associations affirms that free access to information and freedom of expression are principles which apply not only to present matters but to the personal and private raw materials of the historical record, which may be guarded in the short term against disclosure or debate, but must be preserved and made available in the long result of time as part of our common heritage. Accordingly be it resolved by IFLA that:

IFLA는 정보로의 자유로운 접근과 표현의 자유는 폭로나 논쟁에 대항하여 단기간 보호될 수도 있지만 우리 공동의 유산의 일부분으로 장기적으로 보존되고 이용 가능해야만 하는 present matters(현대사) 뿐만 아니라 역사적인 기록물의 개인적 그리고 사적인 원자료에도 적용되는 원칙이라는 것을 확인한다.

Librarians should give their full support for access to information for researchers who require personally identifiable information for biographical, genealogical and other research and publications, and they should lobby their legislators when information is likely to be disposed of by destruction, or is closed for an unreasonable period of time.

사서는 전기에 관한, 족보에 관한 그리고 기타 연구에 관한 자료 및 출판물용으로 인적식별 정보(pii: personally identifiable information)를 정보를 필요로 하는 연구자를 위해 정보 접근을 충분한 이루어지도록 지원 하여야 하며, 사서는 정보가 파괴될 위험에 처하거나 부당한 기간동안 폐쇄될 때 자신들의 입법자들에게 로비하여야 한다.

Librarians should oppose the destruction of records that would make it possible for the government to obscure historical data, and should work with their national archives and associations of archives professionals on criteria for transparent and rationally constructed systems of regulations for retention of and access to records.

사서는 정부가 역사적 데이터를 덮어버리려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기록물의 파괴에 반대 하여야 하며, 기록물로의 접근과 보유를 위한 투명하고 합리적인 건설적 시스템인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기준과 관련해서 자신들의 국립문서관 그리고 고문서전문협회와 공동 작업을 하여야 한다.

Librarians should lobby for the swift opening of previously closed categories of records once their content is not capable of being used to the detriment of living persons.

사서는 일단 그 기록물의 내용이 현존하는 사람의 희생에 사용되어질 가능성이 없다면 그러

한 기록물에 대하여 이미 예전에 폐쇄한 범주의 신속한 재개를 위해 로비하여야 한다.

Librarians should recognize an obligation to monitor their governments' legislation in regard to confidentiality of data records. In particular, librarians should support the need for privacy laws to protect library users from such abuses as government agencies monitoring their reading and research habits.

사서는 데이터 기록물의 비밀과 관련된 정부의 입법을 모니터할 의무를 인식하여야 한다. 특히, 사서는 이용자의 독서와 연구 습관을 모니터링 하는 정부기관과 같은 그러한 오남용으로부터 도서관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사생활보호법의 필요성을 지지하여야 한다.

### Rationale

The importance of personally identifiable information in archives is difficult to exaggerate. Records and data commonly collected by governments for a variety of the most pressing and positive reasons include but are not limited to: census (population) data; birth, death, and marriage certificates; military service records; pension records; wills and testaments; and school records. Archives, and many libraries, hold these kinds of records, or can provide access to such records for their patrons.

아카이브즈에 있는 개인정보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다양하면서도 가장 긴급하고도 확실한 이유로 일반적으로 정부에 의해 수집된 레코드와 데이터는 다음과 같은 것을 포함하지만 제한받지는 않는다: 인구통계 데이터; 출생, 사망 그리고 결혼 증명서; 군복무 기록; 연금 기록; 유언과 유언장; 그리고 학교기록. 아카이브즈와 많은 도서관은 이러한 종류의 레코드를 보유하거나 자신들의 고객에게 그러한 레코드의 접근을 제공할 수 있다.

Such data links a particular individual's name to his or her details. Such a link creates what is called "personally identifiable information" (PII). It is possible to separate personally identifiable information from the collected data and use it for non-personal, statistical purposes, especially in today's electronic environment. However, this same environment makes it possible to compile and reorder data from a variety of sources and create new data that may cause an official, corporate, or criminal invasion of individual privacy.

그러한 데이터는 특별한 개인별 이름을 통해 그들의 상세내역에 링크된다. 그러한 링크는 소위 "personally identifiable information(PII)"를 만든다. PII는 수집된 데이터로부터 분리가능하며, 특히 오늘날 전자환경에서 비-인적, 통계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At the same time, this is precisely this type of data that researchers may need for genealogical research, as well as other historical and sociological analysis, and for researching governmental accountability for past, current, and future actions. Genealogy and family history respond to a deeply felt human need for identity that can be clarified and affirmed through family and community connection.

Furthermore, the study of family history has introduced countless searchers to the techniques, as well as the joys and frustrations, of the scholarly process.

동시에, 이것은 연구자가 족보연구 뿐만 아니라 기타 역사적 그리고 사회학적 분석을 위해, 그리고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의 행동을 위한 정부의 책임을 연구하기 위해 필요할 수도 있는 정확하게 이런 유형의 데이터이다. 족보와 가족사는 가족과 커뮤니티 관계를 통해 명확하게 하고 확인할 수 있는 정체성을 위한 절실한 인간적 요구에 대한 응답이다. 더욱이, 가족사 연구는 수많은 연구자에 의해 그 기법뿐만 아니라 학문적 과정에서의 환희와 좌절이 소개되었다.

Concerns about identity theft and terrorism, and the developing law and jurisprudence of privacy are tending to encourage governments and archive repositories to impose restrictions on access to files containing personally identifiable information, and even to destroy records of this kind. IFLA accepts the necessity for protection of the privacy of living persons, for business confidentiality and for government information security insofar as these valid goals do not conflict with a higher public good. However, perpetual closure or destruction of records containing personally identifiable information, even in the name of privacy, commercial confidentiality or security concerns, is in the last analysis a pernicious form of censorship.

아이덴티티 절도와 테러리즘에 대한 관심과 사생활 보호에 대한 법과 법체계의 발전은 정부와 아카이브즈 레포토리로 하여금 PII를 포함하고 있는 파일로의 접근을 제한하도록 하고, 심지어 이런 종류의 레코드를 파괴시키도록 격려하는 경향이 있다.

## 2) IFLA Council resolution on National Security Legislation - 2003

During the World Library and Information Congress in Berlin, there was much debate about the US PATRIOT Act and similar legislation being enacted elsewhere around the world. The sessions organised by the IFLA Free Access to Information and Freedom of Expression (FAIFE) committee in particular dealt with the dangers posed by trends towards restricting access in the name of the war against terror.

베를린에서 the World Library and Information Congress가 개최되는 동안, 미국의 애국자법과 세계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비슷한 법률에 대한 많은 논쟁이 있었다. IFLA의 FAIFE에 의해 마련된 세션에서 특히 테러에 대한 전쟁이란 이름으로 접근을 제한하려는 추세에 수반되는 위험을 다루었다.

#### <결의문의 5. National Security Legislation의 내용>

Whereas IFLA understands the need for appropriate national legislation consistent with international conventions to fight terrorism,

IFLA가 테러리즘과 싸우기 위한 국제회의와 일치하는 올바른 국가법률의 필요성을 이해함에 따라,

And whereas almost all countries have ratified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specifically including Article 19,

그리고 거의 모든 국가가 특히 제 19조를 포함하는 UDHR을 조인함에 따라,

And whereas IFLA has drawn attention to the consequences for libraries, librarians, and library users of the USA PATRIOT Act,

IFLA가 미국 애국자 법의 도서관, 사서, 그리고 도서관 이용자에 대한 영향력에 관심을 가짐에 따라,

And whereas national security legislation should not infringe existing civil and privacy rights,

국가안보입법이 기존의 시민과 사생활보호 권리를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까닭으로,

Therefore be it resolved that IFLA deplores the introduction by a number of countries of legislation which violates fundamental human rights to privacy and unhampered access to information in the name of national security, and calls for the repeal or amendment of all such legislation in order to protect these rights,

그러므로, IFLA는 국가안보란 이름으로 정보로의 제약없는 접근과 사생활보호를 위한 기본적인 인권을 위반하는 수많은 국가를 소개하는 것이 유감이며, 그러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모든 그 같은 법률의 폐지 또는 수정을 요구한다는 것을 결의한다.

### 3) IFLA Position on Internet Governance

1. As the peak international professional association concerned with information and library services, IFLA represents institutions worldwide that endeavour to provide access to all publicly available information, whether factual or fictional, and regardless of media or format.

Networked digital resources have become a critically important basis for the information services delivered by libraries, and in many countries public and educational libraries are the major or only agencies that provide the general population with free or affordable access to these resources. In doing so, they make a huge contribution to cultural, social and economic development.

최고의 국제전문가협회가 정보와 도서관 서비스에 관심을 가짐으로써, IFLA는 사실이든 허구든 그리고 미디어나 포맷에 상관없이 모든 공적으로 이용 가능한 정보로의 접근을 제공하려고 노력하는 전 세계의 기관들을 대표한다.

네트워크화된 디지털 자원들은 도서관에 의해 전달되는 정보 서비스를 위한 매우 중요한 토대가 되었으며, 많은 국가에서 공공 및 교육 도서관들은 대중이 이러한 자원에 자유롭게 또는 알맞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주요 또는 유일한 기관들이다. 그렇게 하는데 있어서, 도서관들은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발전에 커다란 기여를 하게 된다.

IFLA therefore has a direct interest in the future governance of the Internet.  
IFLA는 그러므로 인터넷의 미래의 관리에 직접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다.

2. IFLA opposes any measures which would lead to control of information access and free expression by commercial, governmental or sectoral interests. Measures which may be necessary to ensure the reliable operation of the Internet, control spam, support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and enable individuals to protect their privacy must not be used to limit the rights expressed in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especially those in Article 19.

IFLA는 상업적, 정부적 또는 분파적 이익에 의해 정보접근과 자유로운 표현을 통제하려는 어떠한 조치에 대하여서도 반대한다. 인터넷의 믿을 수 있는 운영을 보증하기 위하여, 스팸을 통제하기 위하여, 지적자유보호를 지지하기 위하여 그리고 개인이 자신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들은 UDHR, 특히 제 19조에서 표현된 권리들을 제한하기 위해 사용되지 않아야 한다.

3. IFLA supports the development of the Internet as a reliable multilingual system which will be available to all and will facilitate unrestricted access to information by all peoples in their languages of choice.

IFLA는 모두가 이용할 수 있고 자신들의 언어를 선택하여 모두가 정보에 제한없이 접근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하나의 신뢰할 수 있는 다중언어 시스템으로서 인터넷이 발전하는 것을 지지한다.

4. In regard to the proposed approaches to the governance of the Internet, IFLA supports a multistakeholder approach which involves governments, civil society and business and which offers a path for increasing participation by those

interests in all countries as the capacity to participate develops. IFLA consequently endorses both the forum and the principles for global public policy and oversight proposed in the Working Group on Internet Governance (WGIG) report but emphasises the need for effective representation of the stakeholder interests.

인터넷의 관리를 위해 제안된 해결방법과 관련해서, IFLA는 참석할 수 있는 용량을 개발함으로써 모든 나라에서 정부, 시민사회와 기업이 참여하여 자신들의 관심에 따라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제공하는 다수관계자 해결방법을 지지한다. 결론적으로 IFLA는 the Working Group on Internet Governance (WGIG) report에서 제안된 global public policy and oversight(감독)를 위한 포럼과 원칙 둘 다를 찬성한다.

5. As a voice for the 2.5 billion registered library users across the world and an United Nations Economic and Social Council (ECOSOC) accredited international professional organisation, IFLA is available to assist with the development of effective models for Internet governance.

전 세계의 25억명이 되는 도서관 등록 이용자를 위한 하나의 목소리로 그리고 United Nations Economic and Social Council (ECOSOC)에서 인증한 국제전문조직으로서, IFLA는 인터넷 관리를 위한 효과적인 모델의 개발을 지원할 수 있다.

#### **4) IFLA Statement on Libraries and Intellectual Freedom -1999**

IFLA (The International Federation of Library Associations and Institutions) supports, defends and promotes intellectual freedom as defined in the United Nations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IFLA는 UN의 UDHR에서 정의한 지적 자유를 지지하고, 옹호하며 발전시킨다.

IFLA declares that human beings have a fundamental right to access to expressions of knowledge, creative thought and intellectual activity, and to express their views publicly.

IFLA는 인간은 지식, 창조적 사고 그리고 지적 활동의 표현에 접근할 수 있는, 그리고 공적으로 자신들의 견해를 표현할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를 갖는다고 선언한다.

IFLA believes that the right to know and freedom of expression are two aspects of the same principle. The right to know is a requirement for freedom of thought and



conscience; freedom of thought and freedom of expression are necessary conditions for freedom of access to information.

IFLA는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는 동일한 원칙의 두 가지 모습이라고 믿는다. 알 권리는 사고와 양심의 자유를 위한 필요조건이다; 사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는 정보로의 접근 자유를 위한 필요조건이다.

IFLA asserts that a commitment to intellectual freedom is a core responsibility for the library and information profession.

IFLA는 지적 자유에 대한 책임이 도서관과 정보 전문직을 위한 핵심적 책임이라고 주장한다.

IFLA therefore calls upon libraries and library staff to adhere to the principles of intellectual freedom, uninhibited access to information and freedom of expression and to recognize the privacy of library user.

IFLA는 그러므로 도서관과 도서관 스텝에게 지적 자유, 정보로의 제약받지 않는 접근 그리고 표현의 자유에 대한 원칙을 고수하고 도서관 이용자의 프라이버시를 인정할 것을 요구한다.

IFLA urges its members actively to promote the acceptance and realization of these principles. In doing so, IFLA affirms that:

IFLA는 이러한 원칙의 접수와 실현을 활발하게 추진하도록 회원들에게 촉구한다. 그렇게 하는데 있어서, IFLA는 다음과 같은 것을 단언한다:

Libraries provide access to information, ideas and works of imagination. They serve as gateways to knowledge, thought and culture.

도서관은 정보, 아이디어 그리고 상상의 작품에 대한 접근을 제공한다. 도서관은 지식, 사고 그리고 문화를 위한 통로로서 도움을 제공한다.

Libraries provide essential support for lifelong learning, independent decision-making and cultural development for both individuals and groups.

도서관은 개인과 집단 모두를 위해 평생학습, 독립적 의사결정 그리고 문화 발전을 위한 필수적 지원을 제공한다.

Libraries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and maintenance of intellectual freedom and help to safeguard basic democratic values and universal civil rights.

도서관은 지적 자유의 발전과 유지에 기여하며 기본적인 민주적 가치와 보편적 시민적 권리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을 돕는다.

Libraries have a responsibility both to guarantee and to facilitate access to expressions of knowledge and intellectual activity. To this end, libraries shall acquire, preserve and make available the widest variety of materials, reflecting the plurality and diversity of society.

도서관은 지식과 지적 활동의 표현으로의 접근을 보장하고 용이하게 하는 두가지 모두에 책임을 갖는다. 이런 목적을 위해, 도서관은 사회의 복수성과 다양성을 반영하는 최대한으로 다양한 자료를 수집, 보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Libraries shall ensure that the selection and availability of library materials and services is governed by professional considerations and not by political, moral and religious views.

도서관은 도서관 자료와 서비스의 선택과 이용이 정치적, 도덕적 그리고 종교적 견해가 아니라 전문적인 숙려에 의해 의존한다는 것을 보증해야 할 것이다.

Libraries shall acquire, organize and disseminate information freely and oppose any form of censorship.

도서관은 자유롭게 정보를 수집, 조직 그리고 배급해야 할 것이며 어떠한 형태의 검열에 대해서도 반대해야 할 것이다.

Libraries shall make materials, facilities and services equally accessible to all users. There shall be no discrimination due to race, creed, gender, age or for any other reason.

도서관은 모든 이용자가 자료, 시설 그리고 서비스에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민족, 신념, 성, 나이 또는 기타 다른 이유로 인하여 어떠한 차별도 존재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Library users shall have the right to personal privacy and anonymity. Librarians and other library staff shall not disclose the identity of users or the materials they use to a third party.

도서관 이용자는 자기만의 프라이버시와 익명성에 대한 권리를 가져야 할 것이다. 사서와 기타 도서관 스태프는 이용자의 아이덴티티나 그들이 이용한 자료에 대하여 제 3자에게 보여주지 않아야 할 것이다.

Libraries funded from public sources and to which the public have access shall uphold the principles of intellectual freedom.

공공의 소스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서 그리고 대중이 접근하는 도서관은 지적 자유의 원칙을 지지하여야 할 것이다.

Librarians and other employees in such libraries have a duty to uphold those principles.

도서관과 그 도서관에 근무하는 기타 직원은 이러한 원칙을 지지해야 할 의무를 갖는다.

Librarians and other professional libraries staff shall fulfil their responsibilities both to their employer and to their users. In cases of conflict between those responsibilities, the duty towards the user shall take precedence.

사서와 기타 전문직 도서관 스텝은 자신들의 고용자와 자신들의 이용자를 위해 자신들의 책임을 충실히 실행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책임 사이에 논란이 있는 경우에 이용자를 위한 의무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5) the Resolution on Behalf of Librarians Who Are Victims of Violation of Human Right - 49th General Conference, Munich, Germany, 1983.**

이미 IFLA에서는 1980년대에 도서관 근무자와 인권에 대한 결의안을 발표하였다.

“In the name of human rights, librarians must, as a profession, express their solidarity with those of their colleagues who are persecuted for their opinions, wherever they may be. The Council mandates the President of IFLA, when informed of specific cases, after due considerations to intervene when appropriate with competent authorities on behalf of these colleagues.”

“인권의 이름으로, 사서는 하나의 전문직으로서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자신의 의견으로 인해 박해받는 동료와 더불어 자신들의 연대책임을 표현하여야만 한다. 회의에서는 IFLA 의장에게 특별한 사건을 인지하였을 때 합당한 숙려 이후에 이러한 동료를 대신하여 유능한 당국과 함께 적절할 때 개입할 것을 위임한다.”

이 솔루션에서 인정하고 있는 것은 도서관 근무자(library worker)가 지적 자유와 같은 핵심적인 도서관 가치를 uphold(지지)하는데 따르는 위험을 recognise(인지)하고 있다.

**6) Resolution on Freedom of Expression, Censorship and Libraries - 1989**

IFLA는 이러한 Munich Resolution의 text를 1989년에 전세계를 포함시킨 Resolution on Freedom of Expression, Censorship and Libraries로 확대적용시켰다.

이 리솔루션(결의안)에서는 전세계적으로 사서와 그들의 협회를 고무시켜서 UDHR의 제 19조의 강제를 지지하였고, 사서와 협회에서 관심을 갖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abuse(남용)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도록 하였고, 필요하다면 IFLA 의장이나 기타 유능한 국제조직 등에게 그 일에 대해 회부(refer)하도록 하였다.

Recalling its resolution adopted in Munich in 1983 on behalf of librarians who are victims of violation of human rights and,

인권위반의 희생자인 사서들을 대신하는 1983년 뮌헨 결의문을 회상하며,

Whereas Article 19 of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1948) proclaims that: "Everyone has the right to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 includes freedom to hold opinions without interference and to seek, receive and impart information and ideas through any media and regardless of frontiers", and is recognized as an uncontested principle of international customary law, that all States, particularly members of the United Nations, must respect, and

UDHR(1948)의 19조에서는 "Everyone has the right to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 includes freedom to hold opinions without interference and to seek, receive and impart information and ideas through any media and regardless of frontiers"라고 선언하고 있으며, 이것은 국제적 관습법의 명백한 원칙으로 인정되고 있고, 모든 국가, 특히 UN의 회원국은 존경해야만 하는 까닭에,

Whereas respect of these freedoms is guaranteed, especially by the relevant concepts, which are enforceable, of the International Covenant of Civil and Political Rights (1966) of the United Nations (article 19) of universal applicability, and also by regional treaties: the European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1950), article 10; The Americ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1969), article 13; the African Charter on Human and Peoples' Rights (1981), article 9; and reaffirmed by the Final Act of the Helsinki Conference (1975), chapter 1 a VII; text signed or ratified by a large majority of the States of the world; and

이러한 자유에 대한 존경은 특히 보편적 적용성을 가진 UN의 the International Covenant of Civil and Political Rights (1966)에서 강제하고 있는 적절한 개념에 의해, 그리고 지역조약 - the European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1950), article 10; The Americ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1969), article 13; the African Charter on Human and Peoples' Rights (1981), article 9; 에 의해 보장되고 있으며,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 의해 싸인되고 조인된 텍스트인 the Final Act of the Helsinki Conference (1975), chapter 1 a VII에 의해 재확인 된 까닭에,

Whereas librarians are particularly well informed about attempts to censor ideas and information which may effect them directly, and as information on censorship must be represented at the international level when national recourse is impossible, illusory or failing to provide positive results, in a reasonable time;

사서는 아이디어와 정보에 직접 영향을 끼칠 수도 있는 검열의 시도에 대하여 특별히 잘 알고 있어야 하며, 국가 의지가 적당한 시간에 긍정적인 결과를 제공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환상적이거나 실패할 것 같을 때 검열에 관한 정보는 국제적 수준에서 표현되어야만 하는 까닭에.

Encourages librarians and their associations globally to support the enforcement of

Article 19 of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to exchange information on the abuse of restrictions of freedom of expression which concern them and, when necessary, to refer the matter to the President of IFLA and if applicable to other competent international organizations, non-governmental or intergovernmental;

UDHR의 19조의 강제를 지원하고, 표현의 자유의 제한의 남용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면 IFLA 의장에게 그 사건을 알리고, 만일 가능하다면 다른 유능한 국제조직, 비 정보 또는 국제정부 조직에게 알리도록 사서와 그들의 협회를 세계적으로 격려한다.

Instructs the President of IFLA, when such problem is legitimately and correctly submitted to him, and after having studied and certified the data, when possible, to intervene in the most appropriate way with relevant authorities about freedom of expression and to cooperate, if necessary and to this end, with other international organizations.

그러한 문제가 법률적으로 정확하게 제시될 때 IFLA 의장은 지시를 내린다. 가능할 때 그 데이터를 연구하고 확인한 후, 표현의 자유에 대하여 적절한 당국자들과 함께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개입하고 필요하다면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다른 국제조직과 협동한다.

IFLA의 이러한 결의안들은 세계인권선언의 제 19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렇지만 이 19조가 가지고 있는 선한 의미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정치적 그리고 사상적 억압이 존재함은 도서관 근무자에게 영향을 끼쳐서 도서관 근무자가 내부적으로나 스스로 검열을 하는 비상식적인 업무가 아닌 것처럼 인식하도록 하였다.

IFLA의 이러한 결의안들은 IFLA 의장이 적절한 기관과 협력하여 가장 올바른 방법으로 표현의 자유에 대하여 개입할 것을 지시하고 있다.

## **7) Glasgow Declaration on Libraries, Information Services and Intellectual Freedom - 2002**

IFLA proclaims the fundamental right of human beings both to access and to express information without restriction.

IFLA는 제한없는 정보의 접근과 표현 이 두 가지는 인간의 기본적 권리라고 선언한다.

IFLA and its worldwide membership support, defend and promote intellectual

freedom as expressed in the United Nations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This intellectual freedom encompasses the wealth of human knowledge, opinion, creative thought and intellectual activity.

IFLA와 전 세계의 회원들은 UN UDHR에서 표현된 지적 자유를 지지하고 옹호하며 발전시킨다. 이런 지적 자유에는 풍부한 인간의 지식, 의견, 창조적 사고 그리고 지적 활동이 포함된다.

IFLA asserts that a commitment to intellectual freedom is a core responsibility of the library and information profession worldwide, expressed through codes of ethics and demonstrated through practice.

IFLA는 지적 자유에 대한 책임이 윤리선언에서 표현된 그리고 실무를 통해 증명된 전세계 도서관 전문직의 핵심 책임이라 단언한다.

IFLA affirms that:

IFLA에서는 다음의 것을 지지한다:

Libraries and information services provide access to information, ideas and works of imagination in any medium and regardless of frontiers. They serve as gateways to knowledge, thought and culture, offering essential support for independent decision-making, cultural development, research and lifelong learning by both individuals and groups.

도서관과 정보서비스기관은 국경과 상관없이 어떠한 매체로든 정보, 아이디어 그리고 상상의 작품에 대한 접근을 제공한다. 개인과 집단 둘 다에 의한 독립적인 의사결정, 문화적 발전, 연구와 평생학습을 위한 필수적인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그것들은 지식, 사고와 문화의 통로로서 도움을 준다.

Libraries and information services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and maintenance of intellectual freedom and help to safeguard democratic values and universal civil rights. Consequently, they are committed to offering their clients access to relevant resources and services without restriction and to opposing any form of censorship.

도서관과 정보서비스기관은 지적 자유의 발전과 유지에 공헌하며 민주적 가치와 보편적 시민권을 안전하게 보호하는데 도움을 준다. 결론적으로, 그것들은 자신들의 고객들이 제한없이 적절한 자원과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어떠한 검열도 반대해야할 책임이 있다.

Libraries and information services shall acquire, preserve and make available the widest variety of materials, reflecting the plurality and diversity of society. The selection and availability of library materials and services shall be governed by professional considerations and not by political, moral and religious views.

도서관과 정보서비스기관은 사회의 복수성과 다양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다양한 자료를 수

집, 보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도서관 자료와 서비스의 선택과 이용은 정치적, 도덕적, 그리고 종교적 견해에 의해서가 아니라 직업적 숙려에 의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Libraries and information services shall make materials, facilities and services equally accessible to all users. There shall be no discrimination for any reason including race, national or ethnic origin, gender or sexual preference, age, disability, religion, or political beliefs.

도서관과 정보서비스기관은 모든 이용자가 자료, 시설, 서비스에 평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인종, 국적, 민족, 성(feminine, masculine, neuter), 성적 취향성, 장애, 종교, 또는 종교적 믿음을 포함하여 어떠한 이유로든 차별이 없어야 할 것이다.

Libraries and information services shall protect each user's right to privacy and confidentiality with respect to information sought or received and resources consulted, borrowed, acquired or transmitted.

도서관과 정보서비스기관은 찾거나 받은 정보와 상담하고, 대출하고, 구입하거나 전달한 자료와 관련해서 프라이버시와 비밀보장에 대한 각각의 이용자 권리를 보호해야 할 것이다.

IFLA therefore calls upon libraries and information services and their staff to uphold and promote the principles of intellectual freedom and to provide uninhibited access to information.

그러므로 IFLA는 도서관과 정보서비스기관과 그것들의 스태프에게 지적 자유의 원칙을 지지하고 발전시키며 정보로의 제한없는 접근을 제공할 것을 요구한다.

## **8) Internet Manifesto**

Unhindered access to information is essential to freedom, equality, global understanding and peace. Therefore, the International Federation of Library Associations (IFLA) asserts that:

정보로의 방해없는 접근은 자유, 평등, 포괄적 이해와 평화에 필수적이다. 그러므로 IFLA에서는 다음의 것을 주장한다.

- Intellectual freedom is the right of every individual both to hold and express opinions and to seek and receive information; it is the basis of democracy; and it is at the core of library service.

지적 자유는 의견을 유지하고 표현하는어 그리고 정보를 구하고 받는 이 둘 다 모든 개인의 권리이다.

- Freedom of access to information, regardless of medium and frontiers, is a central responsibility of the library and information profession.

정보로의 접근 자유는 매체나 국경과 상관없이 도서관 전문직의 중요한 책임이다.

- The provision of unhindered access to the Internet by libraries and information services supports communities and individuals to attain freedom, prosperity and development.

도서관과 정보서비스기관에 의해 인터넷에 방해없이 접근하도록 하는 것은 커뮤니티와 개인 이 자유, 번영 그리고 발전을 달성하는데 도움을 준다.

Barriers to the flow of information should be removed, especially those that promote inequality, poverty, and despair.

정보흐름의 방해물 특히 차별, 빈곤, 그리고 절망을 조장하는 것들은 제거되어야 한다.

Freedom of Access to Information, the Internet and Libraries and Information Services : 정보접근의 자유, 인터넷 그리고 도서관 및 정보서비스기관

Libraries and information services are vibrant institutions that connect people with global information resources and the ideas and creative works they seek. Libraries and information services make available the richness of human expression and cultural diversity in all media.

도서관 및 정보서비스기관은 사람들이 찾고 있는 세계적 정보자원과 아이디어와 창조적 작품을 연결시키는 활기넘치는 기관들이다. 도서관 및 정보서비스기관은 모든 매체에서 풍부한 인간의 표현과 문화적 다양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The global Internet enables individuals and communities throughout the world, whether in the smallest and most remote villages or the largest cities, to have equality of access to information for personal development, education, stimulation, cultural enrichment, economic activity and informed participation in democracy. All can present their interests, knowledge and culture for the world to visit.

세계적 인터넷은 비록 가장 작고 가장 멀리 있는 마을 또는 가장 커다란 도시라 할지라도 세상 어디든지 개인과 커뮤니티가 개인별 발전, 교육, 자극, 문화적 풍요, 경제활동 그리고 민주주의에 informed 참여할 수 있는 정보로의 접근에 평등하여야 한다.

Libraries and information services provide essential gateways to the Inter-net. For some they offer convenience, guidance, and assistance, while for others they are the only available access points. They provide a mechanism to overcome the



barriers created by differences in resources, technology, and training.

도서관 및 정보서비스기관은

### **Principles of Freedom of Access to Information via the Internet**

Access to the Internet and all of its resources should be consistent with the United Nations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and especially Article 19:

인터넷과 그것의 자원 모두로의 접근은 UN의 UDHR 특히 제 19조에 따라야만 한다.

Everyone has the right to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 this right includes freedom to hold opinions without interference and to seek, receive and impart information and ideas through any media and regardless of frontiers.

The global interconnectedness of the Internet provides a medium through which this right may be enjoyed by all. Consequently, access should neither be subject to any form of ideological, political or religious censorship, nor to economic barriers.

Libraries and information services also have a responsibility to serve all of the members of their communities, regardless of age, race, nationality, religion, culture, political affiliation, physical or other disabilities, gender or sexual orientation, or any other status.

도서관 및 정보서비스기관은

Libraries and information services should support the right of users to seek information of their choice.

도서관 및 정보서비스기관은

Libraries and information services should respect the privacy of their users and recognize that the resources they use should remain confidential.

도서관 및 정보서비스기관은

Libraries and information services have a responsibility to facilitate and promote public access to quality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Users should be assisted with the necessary skills and a suitable environment in which to use their chosen information sources and services freely and confidently.

도서관 및 정보서비스기관은 양질의 정보와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공공의 접근을 원활하게

하고 촉진시킬 책임이 있다. 이용자는 그들이 선택한 정보원과 서비스를 자유롭게 비밀스럽게 이용할 수 있는 필요한 기술과 적절한 환경에 대한 도움을 받아야 한다.

In addition to the many valuable resources available on the Internet, some are incorrect, misleading and may be offensive. Librarians should provide the information and resources for library users to learn to use the Internet and electronic information efficiently and effectively. They should proactively promote and facilitate responsible access to quality networked information for all their users, including children and young people.

인터넷에서 이용 가능한 많은 가치있는 자원과 더불어, 어떤 것은 부정확하며 오류를 범하게 하고 공격적일 수도 있다. 사서는 도서관 이용자에게 인터넷과 전자정보를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배울 수 있는 정보와 자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그들은 주도적으로 책임감을 갖고 양질의 네트워크 정보에 어린이와 젊은이를 포함하여 모든 자신들의 이용자가 양질의 네트워크 정보에 원활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촉진하여야 한다.

In common with other core services, access to the Internet in libraries and information services should be without charge.

다른 핵심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도서관 및 정보서비스기관에서 인터넷의 접근은 무료여야 한다.

### **implementing the Manifesto**

IFLA encourages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support the development of Internet accessibility worldwide, and especially in developing countries, to thus obtain the global benefits of information for all offered by the Internet.

IFLA는 국제적 커뮤니티가 전세계의 인터넷 이용 가능성의 발전을 지지할 것을 촉진하며, 그로인하여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모두를 위해 인터넷에서 제공된 정보의 포괄적 이익을 얻도록 하는 것을 지지한다.

IFLA encourages national governments to develop a national information infrastructure which will deliver Internet access to all the nation's population.

IFLA는 국가정부가 모든 국민에게 인터넷 접근을 전달할 수 있는 국가정보인프라를 개발할 것을 지지한다.

IFLA encourages all governments to support the unhindered flow of Internet accessible information via libraries and information services and to oppose any attempts to censor or inhibit access.

IFLA는 모든 정부가 도서관 및 정보서비스기관을 통해 인터넷의 이용가능한 정보가 방해받지 않고 흐르도록 하고 검열이나 접근을 금지시키려는 어떠한 시도도 반대할 것을 지지한다.

IFLA urges the library community and decision makers at national and local levels to develop strategies, policies, and plans that implement the principles expressed in this Manifesto.

IFLA는 국가적 그리고 지역적 수준에서 도서관 커뮤니티와 의사결정자가 이 선언서에서 표현한 원칙을 실행할 전략, 정책, 그리고 계획을 개발할 것을 촉구한다.

#### 9) IFLA/UNESCO public Library Manifesto -1994

"사회와 개인의 자유, 번영, 발전은 기본적인 인간의 가치이다. 그것들은 자신들의 민주적 권리를 행사하고 사회 속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well-informed citizens의 능력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건설적인 참여와 민주주의의 발전은 만족스러운 교육뿐만 아니라 지식, 사고, 문화, 그리고 정보에 대한 자유롭고 무제한적인 접근에 의존하고 있다."

공공도서관과 인권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

#### <공공 도서관 선언문, 1994>

인간은 기본적으로 개인과 사회의 자유와 번영을 중시한다. 이것들은 시민 각자가 사회의 주인이라는 의식을 갖고, 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자발적으로 하는 능력을 통하여 달성될 수 있다. 건설적인 참여와 민주주의의 발전은 시민이 지식, 생각, 문화, 정보에 무료로, 아무 제한 없이 접근할 수 있는가, 특히 시민 사이에 만족스러운 교육이 이루어지는가에 달려 있다.

지식의 관문 중의 하나로서 공공 도서관은 평생에 걸쳐 무엇을 배울 수 있게 하며, 어떤 사물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하며, 개인과 사회가 문화적으로 발전할 수 있게 한다.

이 선언은 교육, 문화, 정보를 위한 실질적인 영향력으로서의 공공 도서관, 인간의 이성을 통해 정신적인 건강과 평화를 유지하도록 하는 필수적인 주체로서의 공공 도서관에 관한 유네스코의 믿음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유네스코는 중앙 정부 또는 지방 정부가 공공 도서관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을 권장한다.

## 공공 도서관

공공 도서관은 정보의 지역 중심지이다. 이곳에서 수많은 종류의 지식과 정보가 즉석에서 사용자에게 제공된다.

공공 도서관의 서비스는 나이, 인종, 성, 종교, 국적, 언어, 신분 등에 관계 없이 기본적으로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제공된다. 일반적인 서비스와 자료를 이용할 수 없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맞춤 서비스와 자료가 제공되어야 한다. 이러한 사람 중에는 소수 언어 사용자, 신체가 불편한 사람, 또는 병원이나 감옥에 있는 사람 등이 포함된다.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이 자신들의 필요한 자료를 찾는데 불편함이 없어야 한다. 소장물과 서비스는 전통적 방식의 자료는 물론이고, 적당한 모든 매체와 현대적인 기술 적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지역 사회의 요구, 현황과의 밀접한 관련성은 기본이다. 소장 자료는 과거 인류의 온갖 노력과 상상의 기억뿐만 아니라, 현재의 시대적인 경향을 반영하여야 한다.

도서관의 소장품과 서비스는 이데올로기, 정치적 또는 종교적 검열, 상업적 압력에 종속되어서는 안 된다.

## 공공 도서관의 임무

다음은 정보, 읽기와 쓰기, 교육, 문화와 관련한 공공 도서관의 중요 임무이다:

1. 어린이가 독서 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한다.
2. 모든 단계의 정규 교육뿐만 아니라 자기 주도적 학습을 지원한다.
3. 창의적이고 건설적인 발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개인에 제공한다.
4. 어린이와 청소년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자극한다.
5. 문화 유산에 대한 자각, 예술과 과학적 발견, 혁신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6. 모든 행위 예술의 문화적 표현에 대해 접근할 수 있게 한다.
7. 다양한 문화 교류를 장려하고 문화적 다양성을 지지한다.
8. 구전되는 문화를 지원한다.
9. 모든 종류의 지역 정보에 시민이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10. 지역 회사, 단체, 동호회에 대한 적절한 정보 제공 서비스를 제공한다.
11. 컴퓨터와 정보 활용 능력의 계발을 촉진시킨다.
12. 모든 연령대를 대상으로 한 읽기와 쓰기 교육 활동에 참여하고 지원한다. 만약 그러한 활동이 없다면 새로 시작한다.

## 재원, 법제, 연계

공공 도서관 원칙적으로 무료여야 한다. 공공 도서관은 지역 정부, 중앙 정부의 책무이다. 이것은 반드시 구체적 법령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하며, 지역 정부, 중앙 정부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아야 한다. 이것은 문화, 정보 축적, 읽고 쓰는 능력, 교육을 위한 장기적 계획의 필

수 요소가 되어야 한다.

전국의 도서관의 협력과 조화를 공고히 하기 위해, 법령과 정책은 공공 도서관의 서비스 표준을 마련하고 촉진시켜야 한다.

공공 도서관의 연계는 각종 학교의 도서관뿐만 아니라 국립 도서관, 지역 도서관, 연구 중심 도서관, 특수 목적 도서관 사이의 관계도 고려하여 설계되어야 한다.

### 운영, 관리

지역 사회의 요구에 관련하여 목표, 중요 사항, 서비스를 정의하는 분명한 정책이 세워져야 한다. 공공 도서관은 효율적으로 조직되어야 하고 운영의 전문성은 항상 유지되어야 한다.

적당한 동반자(이용자, 지역 단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등)와의 협력이 확보되어야 한다.

사회 모든 구성원이 물리적으로 서비스에 접근이 가능하여야 한다. 도서관 건물은 교통이 좋은 곳에 위치하여야 하며, 시설은 현대적인 기술이 적용된 좋은 것이어야 하며, 이용자가 불편하지 않도록 개관 시간이 충분하여야 한다.

도서관 서비스는 시골과 도시 지역의 각각 다른 요구에 적합하게 변형되어야 한다.

도서관 사서는 이용자와 자료 사이의 적극적인 중계자이다. 사서의 전문적, 지속적인 교육은 적절한 서비스를 보장하기 위해 없어서는 안 된다.

봉사 활동과 이용자 교육 과정은 이용자가 모든 자료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한다.

### 선언의 이행

세계 곳곳의 국가적, 지역적 단계의 정책 결정자와 도서관 사회는 이 선언에 나타난 원리를 이행하여야 한다.

## **World Report Series 2004.**

The IFLA/FAIFE World Report 2005 is an extensive 406-page document that updates and expands upon previous World Reports in 2001 and 2005. The 2005 report focuses on National Security, Freedom of Information Laws and Social Responsibilities, and is based on completed questionnaires from 84 countries representing all regions of the world.

The main findings of the 2005 World Report are that the state of intellectual freedom in many parts of the world remains fragile, and that libraries are striving to do their best to provide access to information to their users, even if this is extremely problematic in some countries.

2005년 World Report의 주요 발견사실은 세계 많은 국가에서 지적 자유의 상태가 취약하다는 것과 도서관은 자신들이 이용자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비록 이것이 몇몇 국가에서는 극히 문제가 되고 있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이다.

### **Libraries, Liberty and the USA PATRIOT ACT By Marc Lampson**

Note from the editors:

Marc Lampson's paper for this year's World Report is a comprehensive look at the USA PATRIOT ACT and its affects on libraries in the US since September 11th 2001.

미 애국자법과 그것이 도서관에 끼친 연향에 대한 포괄적 조사이다.

The effects of anti-terrorism legislation on freedom of expression are one of the 2005 World Report's areas of special focus, and Marc Lampson's description of the situation facing libraries in the US is one that will make familiar reading to some of the contributors to this year's report.

표현의 자유에 대한 반테러리즘 입법의 효과는 2005 World Report에서 특별히 초점을 맞추고 있는 분야이다. ...

As further detailed in the country reports and the Analysis section, nearly four years after the terrorist attacks in New York it is not only US librarians who are worried about the future of freedom of expression and freedom of access to information in libraries.

Contributors from Uganda and Germany show that post-September 11th legislation in their countries has put worries into the minds of the library community, while librarians in Canada, Japan and the Philippines are worried about what effects future legislation might have on libraries. Most disturbingly, the country report

from the Netherlands shows us that the PATRIOT Act model is ripe for export, and Dutch librarians are having to get organized to fight newly proposed legislation that would open up library users' records to law enforcement agencies in much the same way as in the US.

미 애국자법을 모델로 법제화하려는 도서관 이용자의 레코드를 법률집행기관에 제공해야하거나 개방하여야 한다는 새로운 법에 대하여 네덜란드 사서들이 싸우기 위하여 조직활동을 하고 있다.

Marc Lampson's paper shows us how this situation started, and should be read carefully by anyone with an interest in this disturbing subject.

Libraries and liberty have had a long-standing affinity - one going back to the Latin roots of each word and extending forward into the social movements of our time that have often adopted the slogan that "the truth shall set us free." But while libraries lead some to the truth, others have been led to believe that in the name of liberty, it is not the patron but the patron's record that should be freed - for government inspection.

도서관과 자유는 오랫동안 동질적인 것이다 - 각 단어의 라틴어 어근에 근거하여 그리고 종종 스로건 "the truth shall set us free."를 적용하고 있는 우리 시대의 사회적 운동 분야로 확대시켜보면. 그러나 도서관은 어떤 사람을 진리로 이끈 반면에 다른 사람은 자유란 이름으로 정부의 수사에서 자유롭도록 해야하는 것은 자신들의 고객이 아니라 그 고객의 레코드라고 믿도록 해 왔다.

Section 215 of the USA PATRIOT Act("the Act"), enacted by the United States Congress in October 2001, permits U.S. government agents to get library patron records from the library and prohibits library personnel from saying anything about it to anyone. But the Act's provisions are only the latest signs of Big Brother's abiding interest in your reading list.

미 애국자법 215조에서는 미국정부기관이 도서관으로부터 도서관 고객의 레코드를 얻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도서관 직원이 누구에게든지 그것을 말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그 법의 조문들은 단지 여러분의 독서목록에 대한 빅 브라더의 변치않는 관심이라는 최신의 싸인인 것이다.

#### 결론:Conclusion

The USA PATRIOT Act has strained the relationship between libraries and liberty. It is not the first time that the government has sought to invade the library, and liberty, in the name of liberty, and it will not be the last time.

미 애국자법은 도서관과 자유 간의 관계를 긴장케 한다. 정부가 도서관과 자유란 이름으로 자유를 침해하려 했던 것이 처음이 아니며, 그것이 마지막이 아닐 것이다.

The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community has responded vigorously and publicly, in unison with many other groups, communities, and organizations. Petitions, public discussions, bookmarks, websites, resolutions, speeches, empirical research, and more have been used to oppose the Act.

문헌정보학 커뮤니티는 많은 다른 집단, 커뮤니티 그리고 조직들과 일제히 강력하고도 공개적으로 대응해 오고 있다. 탄원서, 공개토론, 북마크, 웹사이트, 결의문, 연설, 경험적 조사 등이 그 법에 반대하는데 이용되고 있다.

Whether such work will succeed in defeating renewal of the Act's excesses is not yet clear, but silence would only ensure that libraries and liberty would no longer be allies.

그러한 노력이 그 법의 월권에 관한 갱신을 막는데 성공할 수 있을지 분명치 않지만, 침묵은 단지 도서관과 자유가 더 이상 동맹일 수 없다는 것을 확신시켜 주게 될 것이다.

## **Freedom of Information Legislation, Libraries, and the Global Flow of Information**

**By Barbara Jones**

What is Freedom of Information Legislation?

정보자유법률이란 무엇인가?

Freedom of information legislation, as defined and analyzed in this essay, gives citizens access to information created and held by government and public officials.

이 논문에서 정의하고 분석한 것처럼, 정보자유법률은 시민들에게 정부와 공공 관리에 의해 만들어 보관하고 있는 정보로의 접근을 제공하는 것이다.

Freedom of information legislation is a key component in the global flow of information and the provision of excellent library service.

정보자유법률은 정보의 세계적 흐름과 우수한 도서관 서비스가 제공에 있어서 하나의 중요한 구성요소이다.

It serves as a crucial counterbalance to national security legislation and related attempts to restrict the flow of information.

그것은 정보의 흐름을 억제하려는 국가안보법률과 관련된 시도에 맞서는 중요한 대항세력으로 도움을 준다.

National security legislation is in keeping with that Government transparency is impossible without freedom of expression legislation.

국가안보법률은 정부의 투명성이란 표현자유법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Transparency International, “the only major NGO engaged in combating corruption,” hopes that financial incentives for transparency will be brought to bear on government officials, corporations, and banks seeking new business investment opportunities. TI states unequivocally that “A principal tool in the fight against corruption is access to information.”<sup>1</sup>

국제투명성, “부패와 싸우는 유일하고도 중요한 NGO”에서는 투명성을 위한 재정적 인센티브가 공무원, 기업, 그리고 새로운 사업투자기회를 찾고 있는 은행, 기업, 그리고 공무원에게 영향을 끼치길 희망하고 있다. TI에서는 “부패와 맞서 싸우는 중요한 도구는 정보로의 접근이다”라고 명료하게 주장하고 있다.

This increasingly global flow of information, enabled by communications technology, is a key factor because of its speed and ability to cross national borders. As David Banisar states: A new era of government transparency has arrived. It is now widely recognized that the culture of secrecy that has been the *modus operandi* of governments for centuries is no longer feasible in a global age of information. Governments in the information age must provide information to succeed.<sup>2</sup>

통신기술에 의해 가능하게 된 이러한 정보의 세계적 흐름이 점증하는 것은 중요한 요소인데 왜냐하면 그것의 속도와 가능성이 국경을 넘을 수 있기 때문이다. David Banisar이 주장한 것처럼: 정부투명성의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다. 지금 널리 인정되고 있는 것은 수세기동안 정부의 *modus operandi*(운용법)이었던 비밀문화는 더 이상 정보의 세계화 시대에 가능하지 않다. 정보시대의 정부는 성공을 위해 정보를 제공해야만 한다.

More than 50 countries now have freedom of information laws - most passed within the past ten years. Why now, especially in the midst of what some call a “global war on terrorism?” One is pressure from international business organizations, especially banks, to facilitate flow of financial information and to prevent corruption. Civil society activists and on-line group cultural theorists envision societies dependent on unfettered access to information. And while it is hard to obtain meaningful data, it is clear that nations with effective flow of information are richer and more powerful than those without it. What do these freedom of information laws have in common?

지금 50개이상의 나라가 정보자유법을 가지고 있으며 대부분이 지난 10년내에 통과되었다. 특히 소위 “테러리즘에 대한 세계적 전쟁”이 한창인 지금 왜? 하나는 국제사업조직으로부터의 압력이다. 재정정보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부패를 예방하기 위한 특히 은행으로부터의 압력이다. 시민사회행동가와 온라인 문화이론가는 정보로의 자유로운 접근에 의지하는 사회를 구상하고 있다. 그리고 의미있는 데이터를 얻기가 어렵지만, 분명한 것은 효과적인 정보의 흐름을 가지고 있는 국가는 그렇지 않은 국가보다 더 부유하고 더 강력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보자유법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Banisar lists their major components:

Banisar가 그것들의 주요한 구성요소를 열거하고 있다:

- People are given the right and means for requesting government information. Countries differ on whether citizenship is required for obtaining information, and the timeline for filling the request.

사람들에게 정부의 정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와 수단이 제공되고 있다. 시민이 정보를 얻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그 요청을 들어주는데 필요한 시간설정이 나라마다 다르다.

- Most laws cover a wide variety of government bodies at all levels, and there is pressure for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NGO's) and even private corporations to provide information in some cases.

대부분의 법은 모든 수준에서 다양한 정보구성체에 적용되며, 어떤 경우에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비정부조직과 심지어 사기업에 대한 압력도 존재한다.

- Access to intelligence and military records is almost always exempt, or closed for a prescribed time. Exempt information is sometimes subject to a "public interest value" balancing test, in order to ensure maximum access.

첩보와 군사 기록으로의 접근은 대부분이 항상 제외되어 있거나 지정된 시간동안 폐쇄되어 있다. 제외된 정보는 때때로 최대한도의 접근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공의 이익가치"을 위한 균형잡힌 테스트에 따라야 한다.

- Privacy of personally identifiable information is usually guaranteed, and either cited or included in the content of most freedom of information policies.

인적 식별 정보에 대한 프라이버시는 보통 보장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정보자유정책의 콘텐츠 안에 포함되어있거나 인용되어지고 있다.

- Appeals, oversight, and declassification processes are included in the most effective freedom of information legislation, so that the law can be monitored and legal contests resolved. Also, there should be a mechanism for declassification of those documents which, after a period of time, can be released with impunity.<sup>3</sup>

상소, 감독, 그리고 등급해제 과정은 대부분의 효과적인 정보자유법에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그 법은 모니터될 수 있으며 법률적 다툼도 해결될 수 있다. 또한, 일정 기간이 지난 후제재 없이 공개될 수 있는 문서들의 등급해제를 위한 메카니즘이 있어야만 한다.

### **How Does Freedom of Information Legislation Affect Libraries?**

정보자유법이 어떻게 도서관에 영향을 끼치는가?

Most librarian professional codes of ethics or policies include the duty to provide information to those requesting it. For example, the Australian Library and Information Association passed Principles of access to government information in

1999, which states, in part:

대부분의 사서전문직용 윤리코드나 정책들에는 그것을 요청하는 사람에게 정보를 제공해야할 의무가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어, 호주도서관협회는 1999년에 정부정보로의 접근 원칙을 통과시켰다.

The Australian Library and Information Association (ALIA) believes government information should be recognized as a national resource to be developed and preserved in the public interest . . .

호주도서관협회는 정부정보는 공공의 관심속에 보존되고 발전되어야 하는 하나의 국가자원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ALIA asserts that government information should be publicly available except where restricted by law . . . The public has the right of access to government information . . . Governments should ensure access through libraries . . . Governments should ensure that information about government information is easily available and in a single comprehensive catalogue (for publications) and a directory (for information).

ALIA는 정부정보는 법에 의한 제한된 장소를 제외하곤 공개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대중은 정부정보로의 접근권을 가진다. 정부는 도서관을 통한 접근을 조장해야 한다. 정부는 정부정보에 대한 정보가 단일 종합 캐탈로그(출판물용)와 디렉토리(정보용)에서 쉽게 이용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These catalogues and directories should be accessible in a variety of formats.<sup>4</sup>

이러한 캐탈로그와 디렉토리는 다양한 포맷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Government information is just one of many types of content to be provided by libraries. It is especially important for those libraries designated as official repositories, that they provide access to, and even promote the use of, government information.

정부정보는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많은 종류의 콘텐츠 중의 하나이다. 그것은 특히 공식 레포지터리로 디자인된 도서관에서는 중요하며, 이러한 도서관들은 정부정보로의 접근과 심지어 그것의 이용을 촉진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Librarian activists in the civil society movement will argue passionately that without freedom of information, civil discourse is impossible. Farmers use government information for the latest information on proper irrigation techniques. Younger students read government documents about satellites, or how to care for a pet. Scholars often lobby for documents to be declassified so that they can finish their dissertations. Courts need government information to write legislative history.

시민사회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사서행동가들은 열정을 갖고 정보의 자유 없이, 시민의 의견교

환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할 것이다. 농부는 올바른 관계기술에 대한 최신의 정보를 얻기 위해 정부정보를 이용한다. 어린 학생은 위성 또는 애완동물을 돌보는 방법에 관한 정부문서를 읽는다. 학자들은 종종 분류해제용 문서를 위해 로비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자신들의 논문을 끝낼 수 있다. 법원에서도 입법사를 작성하기 위하여 정부정보를 필요로 한다.

In the United States, Daniel Ellsberg risked imprisonment and professional ruin when he released the Pentagon Papers, so that the public would better understand the government's strategy regarding the U.S.-Vietnam War. Government information is powerful, influential, and entrusted to librarians for stewardship and promotion of access.

미국에서, Daniel Ellsberg는 그가 펜타곤의 서류를 공개했을 때 투옥과 직업적 파멸의 위험을 맞았었다. 그렇지만 대중은 미국과 베트남 전쟁에 관한 정부의 전략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었다. 정부정보는 강력하고 영향력이 있으며 접근의 개발과 관리를 사서에게 위임하고 있다.

When government information policy is trumped by national security policy, librarians can find themselves in very murky waters when faced with a subpoena to remove documents from the shelf. This is currently true in the United States under the USA Patriot Act and other national security legislation.

정부정보정책이 국가안보정책에 의해 힘을 받을 때, 서가로부터 문서를 제거하도록 하는 소환장을 받을 때 사서들은 매우 더러운 물속에 자기 자신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이것은 현재 애국법과 기타 국가안전법 하에 있는 미국에서는 진실이다.

Librarians must play a prominent professional role in understanding, developing, and monitoring freedom of information legislation as it applies to library information content and services. That is why the International Federation of Library Federations and Institutions (IFLA) created, and designated as a Core Activity, the Committee on Access to Information and Freedom of Expression. For librarians in difficult political situations, IFLA can provide the support, trends, strategies, and documentation of what the world library community is advocating in regard to freedom of information in their libraries.

사서들은 그것이 도서관정보 콘텐츠와 서비스에 적용되기 때문에 정보자유법을 이해하고, 개발하고, 모니터링하는데 있어 분명한 직업적 역할을 해야만 한다. 그것이 바로 IFLA가 the Committee on Access to Information and Freedom of Expression 의 a Core Activity로 만들고 설계한 이유이다. 어려운 정치적 상황에 있는 사서를 위하여, IFLA는 전세계 도서관 커뮤니티가 자신들의 도서관에서 정보의 자유와 관련되어 무엇을 주장하고 있는지에 대한 지지, 방향, 전략 그리고 문서화를 제공할 수 있다.

**Counterbalances to Freedom of Information Legislation: 정보자유법에 대한 대항**

Freedom of information legislation can be compromised in a number of ways—first, by exemptions contained within the document itself. Some challenges to FOIA come from non-governmental sources. And sometimes freedom of information legislation is more than we bargained for, when it conflicts with the right to privacy and the duty to protect citizens during war.

정보자유법은 그 문서에 포함된 예외조항에 의해 먼저 다양한 방법으로 타협될 수 있다. FOIA에 대한 몇가지 도전은 비정보 소스로부터 나온다. 그리고 때때로 정보자유법은 그것이 전쟁동안 시민을 보호해야하는 의무와 사생활보호권과 충돌할 때 우리가 기대했던 것 이상이다.

And, as we have seen, freedom of information laws can be passed without enacting legislation, so that improper funding guarantees an unsuccessful implementation of the law.

우리가 알듯이, 비정상적인 기금이 그 법의 비성공적 실행을 보장하기 때문에 정보자유법은 입법활동없이 통과되어질 수 있다.

#### • National Security Legislation

##### 국가안보법

The rise of terrorism as a particular form of global warfare—often called “non-state transnational security threats”—prompted national governments to respond with this particular type of legislation, particularly after the attacks o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on September 11, 2001. National security legislation is sometimes the catalyst for the reduction of budgets for government printing and for other restrictions on the creation and dissemination of government information.

In addition, some government web sites have been cleansed of potentially sensitive information, and, in the USA, some government documents librarians have been ordered to destroy or return certain documents to the government.

종종 “non-state transnational security threats”라고 부르는 세계적 전장의 특별한 형태로서의 테러리즘의 등장은 특히 2001년 9월 11일 미국에 대한 공격 이후에 국가정부로 하여금 이런 종류의 입법으로 신속하게 반응하였다. 국가보안법은 때때로 정부인쇄물을 위한 예산삭감과 정부정보의 작성과 분배에 관한 다른 제한조치를 위한 촉매제이다.

추가로, 몇몇 정부 웹사이트들은 잠재적으로 민감할 수 있는 정보에 대하여 깨끗이 청소되어 있으며, 미국에서 몇몇 정보문서 사서들은 정보로 어떤 문서를 되돌려 보내거나 파쇄 하도록 명령을 받았다.

The 2001 USA Patriot Act granted then Attorney General John Ashcroft additional powers to fight terrorism. Important for libraries is Section 215, which allows the 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 (FBI) to gain access to library records, including electronic data, without probable cause to believe that a crime has been committed. Further, librarians served with a search warrant may not disclose that

they have been served, except to their supervisor and attorney.

The 2001 USA Patriot Act은 테러리즘과 싸울 수 있는 추가적인 힘을 Attorney General John Ashcroft에게 주었다. FBI로 하여금 범죄에 책임이 있다고 믿을 만한 유력한 이유 없이 전자 데이터를 포함하여 도서관의 기록물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Section 215는 도서관에게 있어 중요하다. 더욱이, 탐색 허가증을 갖고 봉사하는 사서들은 자신들의 상사와 변호사를 제외하곤 그들이 서비스한 것에 대하여 폭로하지 않는 것이 좋다.

A patron cannot be told that his/her library records are part of an FBI investigation. In May 2005, the U.S. Senate Select Committee on Intelligence began considering -in closed session- possible reauthorization and expansion of the scope of the USA Patriot Act.

자신의 도서관 레코드가 FBI 수사의 일부분이라는 것을 고객에게 말할 수 없다. 2005년 5월에, the U.S. Senate Select Committee on Intelligence에서는 미 애국법의 범위의 확장과 가능한 권한의 재인정을 폐회기간중에 고려하기 시작하였다.

The 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 and the Electronic Frontier Foundation have already expressed their concerns publicly, and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will certainly weigh in at the upcoming annual meeting in Chicago in June, 2005. At the time of this publication, the outcome is uncertain.

The 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 and the Electronic Frontier Foundation 은 벌써 공개적으로 자신들의 관심을 표현하였으며, 미도서관협회도 확실하게 2005년 6월 시카고 연례회의에서 중요하게 다룰 것이다. 이 논문이 출판될 때에, 그 결과는 불확실하다.

#### • Privacy Legislation

Because identity theft has become a national epidemic in some parts of the world, while some citizens are being issued national identity cards, many nations have included privacy clauses in their freedom of information legislation. Personally identifiable information is usually exempted. In some legislation, citizens have the right to obtain such information about themselves from government and private bodies. In the USA, civil privacy legislation such as the Family Educational Rights and Privacy Act (FERPA) of 1974, preserves the confidentiality of medical and financial records.

아이데티티의 절도는 어떤 나라에서 국가적 전염병이기 때문에, 어떤 시민들이 국적신분카드를 발급 받는 반면에, 많은 나라들이 자신들의 정보자유법에 사생활보호 구절을 포함하고 있다. 개인신분정보는 보통 제외된다. 어떤 법률에서, 시민은 정부나 사설기관으로부터 스스로에 대한 그러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미국에서, the Family Educational Rights and Privacy Act (FERPA) of 1974과 같은 시민 사생활보호법은 의료 및 재정 기록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고 있다.

#### •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NGO's, trans-national corporations, international institutions, foundations, funding

agencies, and professional organizations are not always covered by freedom of information laws, despite their ever-growing and integral role in socioeconomic development and government policy making. Some freedom of information legislation does provide for citizen access to information from non-governmental bodies-something to consider when amending existing legislation or writing it for the first time.

#### 비정부조직

NGO, 다국적 기업, 국제기관, 재단, 자금지원기관 그리고 전문조직들은 사회경제적 개발과 정부정책수립에서 그들의 지속적이고 필수적인 역할에도 불구하고 정보자유법에 의해 항상 보호되지 않는다. 어떤 정보자유법은 시민에게 비정부조직에서 나온 정보 - 기존의 법을 수정하거나 처음 그것을 작성할 때 고려해야할 어떤 것 - 로의 접근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

#### • Economic Barriers

Much government information resides on the World Wide Web. Economic forces make Internet access expensive and substandard for those countries with lower densities of communication and thin bandwidth routes. Librarians must ensure that the “social good” is incorporated into freedom of information policies. We must work with the telecommunications industry and other library vendors so that they incorporate the developing world into their marketing and financial strategies. In Latin America, for example: ...phone, much less Internet, penetration remains stubbornly low. What we do see is perhaps the creation of a dual system of global citizenship. The dominant class travels legally in comfort and manages the global system of flows of information . . . the lower class also travels the world if only to escape the poverty of their countries, but they travel in search of the lowest form of employment that will allow it to send remittances home.<sup>9</sup>

#### 경제적 장애

많은 정부정보가 WWW에 들어 있다. 경제 권력은 보다 낮은 농도의 커뮤니케이션과 알뜰한 대역너비 길을 갖고 있는 국가들에게 인터넷 접근을 비싸고 비표준으로 게 만든다. 사서는 “사회적 선”이 정보자유 정책에 포함되도록 보장해야만 한다. 우리는 그것들은 자신들의 마케팅 및 재정 정책에 발전하는 세상을 포함시킬 수 있도록 통신회사 및 기타 도서관 상인들과 협력해야만 한다. 예를 들어, 남미에서 전화, 다소의 인터넷의 보급률은 매우 더디다. 우리가 아는 것은 아마도 세계 시민의 이중 시스템을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지배계급은 합법적으로 편안하게 여행하며 정보흐름의 세계 시스템을 관리한다. 저급계층 역시 만일 단지 자신들 국가의 빈곤으로부터 탈출하고자 한다면 세상을 여행해야 하지만, 그들은 집으로의 송금을 허용하고 있는 취업과 관련된 최하수준의 형태의 탐색을 통하여 여행한다.

#### •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s

Lawrence Lessig's Free Culture: How Big Media Uses Technology and the Law to Lock Down Culture and Control Creativity is a must-read account of the harmful effects of an overly protective copyright system. Strict copyright laws do not foster the unfettered global flow of information. Lessig tells the story of a meeting

cancelled by the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WIPO) because the topics seemed to threaten the existing IP order. The meeting agenda included analysis of open and collaborative projects to create public goods. These are projects that have been successful in producing public goods without relying exclusively upon a proprietary use of intellectual property. Examples include the Internet and the World Wide Web, both of which were developed on the basis of protocols in the public domain. It included an emerging trend to support open academic journals, including the Public Library of Science project . . . The aim of the meeting was to consider this wide range of projects from one common perspective: that none of these projects relied upon intellectual property extremism.<sup>10</sup>

#### 지적재산보호

Lawrence Lessig의 [Free Culture: How Big Media Uses Technology and the Law to Lock Down Culture and Control Creativity]는 지나치게 보호받는 저작권 시스템의 해로운 효과에 대하여 반드시 읽어야 할 이유이다. 엄격한 저작권법은 정보의 세계적 자유로운 흐름을 도모하지 않는다. Lessig는 주제들이 기존의 IP 질서를 위협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이유로 the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WIPO)에 의해 취소된 회의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 그 회의의 아젠다에는 공공의 재화를 만들기 위한 개방적이고 협동적인 프로젝트의 분석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러한 것들이 지적 재산의 독점적 사용에 배타적으로 의존하지 않고 공공의 재화를 생산하는데 있어 성공할 수 있었던 프로젝트들이다. 예로 인터넷과 WWW를 들고 있으며, 둘 다 공공의 영역에 있는 프로토콜을 근거로 개발되었다. 그것에는 the Public Library of Science project를 포함하는 개방된 학술지를 지지하는 새로운 추세를 포함하고 있다. 그 회의의 목적은 한 가지의 공통적 전망에서 나온 다양한 프로젝트에 대하여 생각해 보는 것이었다: 이러한 프로젝트 어느 것도 지적 재산의 극단주의에 의존하지 않고 있다.

#### IFLA and Social Responsibility: A Core Value of Librarianship By Al Kagan

“...And our species, when one day it is completely formed, will not define itself as the sum of the world's inhabitants, but as the infinite unity of their reciprocal relations.”

“ 어느 날 완전한 형태를 갖추게 되었을 때 인류는 그 자신을 세상의 거주자의 절정으로서가 아니라 그것들과 호환적인 관계를 가진 무한한 개체로 정의해야 할 것이다.

#### Introduction

What does it mean to be a socially responsible librarian? As a young librarian attending the 1985 Chicago IFLA meeting, I was awe-struck when E. J. Josey<sup>2</sup> interrupted the first plenary session to demand that IFLA dissociate itself from apartheid South Africa. I later learned of his work in desegregating libraries in the southern states of the United States. His enormous energy and courage shaped my



own understanding of librarianship - a belief that the core values of our profession

demand that we take seriously our own role in furthering justice in our communities.

사서가 사회적으로 책임이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1985년 시카고 IFLA 회의에 참석한 젊은 사서로서 나는 E. J. Josey가 IFLA가 남아프리카 인종차별정책에서 손을 떼야한다고 주장하면서 첫 번째 전체회의를 방해했을 때 두려움에 휩싸였다. 나는 나중에 미국의 남부 주에 있는 도서관들이 인종차별을 폐지하여야 한다는 그의 저작에 대하여 알았다. 그의 커다란 에너지와 용기는 사서직에 대한 내 자시의 이해를 가다듬었다 - 우리 직업의 핵심 가치들은 우리 커뮤니티에서 정의를 발전시키는데 있어 진지하게 우리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요구한다는 믿음.

Writing an article on socially responsible librarianship is rather daunting because the topic is so huge. In these days when war and the threat of terrorism confront many of us everyday, we need to assess new priorities at the local, national, and international levels. How can we think locally and act globally, and how can we think globally and act locally? The 2003 IFLA resolution in Berlin on national security legislation comes to mind.<sup>3</sup> We need to try to preserve privacy rights for our library users against legislation such as the USA Patriot Act and similar legislation in many countries. We can't let these laws intimidate people from checking out the library materials they want to read or see. We must continue to promote free access to government information as a basic component of good government.

사회적으로 책임있는 사서직에 대하여 글을 쓰는 것은 좀 혼란스러운데 그 이유는 그 주제는 너무 넓기 때문이다. 오늘날 매일 전쟁과 테러리즘의 위협을 많은 우리가 직면할 때, 우리는 자체적으로, 국가적으로 그리고 국제적 수준에 따라 새로운 우선순위를 평가해야만 한다. 어떻게 우리는 자체적으로 생각하고 국제적으로 행동할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우리는 국제적으로 생각하고 자체적으로 행동할 수 있을까? 국가보안법과 관련해서 베를린에서 열린 2003 IFLA의 결의문을 생각해 보자. 우리는 미 애국자법과 많은 나라에서의 유사한 법과 같은 법률에 맞서서 우리 도서관 이용자를 위하여 그들의 사생활보호권을 보존하도록 해야 한다. 우리는 이러한 법들이 사람들이 원하는 자료를 대출하는 것에서부터 읽고 보는 것까지 그들을 위협하도록 낚을 수 없다. 우리는 좋은 정부의 한가지 기본적 구성요소로서 정부정보로의 자유로운 접근의 추진을 계속하여야 한다.

It is obvious that people must be able to access information in order to intelligently participate in decision-making. We must defend Freedom of speech, which is of course a prerequisite for democracy. Ralph Nader has taught Americans that we must go back to being "citizens" rather than only "consumers." Public libraries provide community information on local health services, bus routes, job opportunities, and other social services. Libraries can also provide tax forms and condoms to prevent HIV/AIDS. Public libraries can be a place for

literacy classes and voter registration. They can indeed become community centers where people, including poor people, immigrants, and diverse populations of all kinds find materials and participate in local culture and civic affairs to actualize their potentials and develop their communities.

분명한 것은 사람들이 의사결정에 지적으로 참가할 수 있도록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만 한다. 우리는 민주주의의 전제조건인 언론의 자유를 옹호해야만 한다. Ralph Nader는 미국인들에게 다음과 같은 것을 가르쳤다: 우리는 단지 “소비자”보다도 “시민”으로 다시 돌아가야만 한다. 공공도서관은 지역보건서비스, 버스로선, 취업기회, 그리고 기타 사회적 서비스에 관한 커뮤니티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도서관은 또한 납세서류와 HIV/AIDS를 예방하기 위한 콘돔을 제공할 수 있다. 도서관은 계몽교실과 투표자 등록을 위한 장소일 수 있다. 도서관은 정말로 가난한 사람, 이민자, 모든 유형의 다양한 집단이 자료를 찾아서 자신들의 잠재력을 활성화시키고 자신들의 커뮤니티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지방문화와 시민사에 참여하는 커뮤니티 센터가 될 수 있다.

Of course, library associations play an important role in contextualizing library practices at the national and international levels. And it is therefore a pleasure to be invited to write this article on IFLA and socially responsible librarianship for IFLA's World Report. In a sense it is quite personal because of my involvement for so many years in the Social Responsibilities Round Table (SRRT) of the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ALA) and in the IFLA Social Responsibilities Discussion Group (SRDG).

물론, 도서관협회는 국가적 및 국제적 차원에서 도서관 업무를 개념화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IFLA and socially responsible librarianship for IFLA's World Report용으로 이 글을 쓰도록 초대받은 것이 기쁘다. 어떤 의미에서, 매우 개인적인 일인데, 그 이유는 내가 오랫동안 the Social Responsibilities Round Table (SRRT) of the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ALA) 와 the IFLA Social Responsibilities Discussion Group (SRDG)에 참여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Although the terminology may vary by language, I think the English usage of the phrase, “social responsibilities” comes from the establishment of SRRT about thirty-five years ago. It is therefore useful to explore some of this library history. 비록 그 용어가 언어별로 다르다 하더라도, 나는 “사회적 책임”이라는 어구의 영어식 용도는 약 35년전에 SRRT의 설립에서 나왔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도서관사 몇가지를 조사하는 것이 유익할 것이다.

The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has lobbied on social justice issues since at least World War I.<sup>4</sup> However the debate really heated up in the late 1960s and early 1970s when North America and Europe were undergoing a period of great social upheaval. Large social movements in the United States arose demanding an end to racism, opposition to the US war on Southeast Asia, and much more room for individual freedoms and expression.

ALA는 적어도 제1차 세계대전부터 사회적 정의 문제에 대하여 로비해 왔다. 그렇지만, 실제로 그 논쟁은 북미와 유럽에서 커다란 사회적 격변의 시기가 진행되었던 1960년대 말과 1970년대 초에 가열되었다. 미국에서의 동남아에서의 미국의 전쟁을 반대하고 인종차별주의의 마감을 요구하는 그리고 훨씬 더 많은 개인의 자유와 표현을 위한 공간에 대한 대규모의 사회운동이 발생하였다.

Since libraries exist within society, these social movements were naturally reflected in the lives of librarians and within the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One reaction to this tension was the publication of David Berninghausen's article claiming that ALA could not survive if it continued down the social responsibility path.<sup>5</sup> He advocated AGAINST addressing the issues of his time, and he enumerated many of them that presumably were debated in the ALA Council.

도서관이 사회 속에 존재하면서부터, 이러한 사회운동은 자연히 ALA와 사서의 삶에 영향을 끼쳤다. 이러한 운동에 대한 한 가지 반응은 ALA가 만약에 사회책임의 통로를 계속해서 방해하려 한다면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한 David Berninghausen가 쓴 기사의 출판이었다. 그는 자신의 시대의 문제에 초점을 맞춘 AGAINST를 지지하였으며 그는 아마도 ALA 회의에서 논쟁되어졌던 많은 것들을 열거하였다.

These included racial injustice, pollution, a strong United Nations, homosexuality, voting age, the separation of church and state, building universities, supporting political prisoners, and any other so-called non-library issues "regardless of how vital they may be for the future of humanity." He did not list opposition to the Viet Nam War, but that issue also belatedly cleared the ALA Council. Those who felt strongly that ALA must and should take positions on controversial issues have been vindicated.

이것들에는 인종적 불의, 오염, 강한 UN, 동성애, 투표연령, 교회와 국가의 분리, 대학의 설립, 정치적 수감자에 대한 지지, 그리고 "그것들이 인류의 미래를 위해 얼마나 지극히 중요한 것인지도 모르면서" 기타 소위 "비도서관 이슈"가 포함되었다.

ALA continues to grow each year, and its vital role in national discussions has never been more important. The accolades for the organization's strong advocacy against some of the provisions of the USA Patriot Act clearly make that case.

ALA는 매년 성장을 지속하고 있으며, 국가토론회에서 그것의 중요한 역할은 결코 더욱 중요해지지 않고 있다. 미국 애국자법의 조항 몇 가지에 대항하는 그 조직의 강력한 지지에 대한 칭찬이 명확하게 그러한 경우이다.

Berninghausen argued that ALA was established for a common purpose, "...to promote library service and librarianship."<sup>6</sup> He believed that taking stands on social

justice issues would undermine ALA's credibility as a defender of intellectual freedom, and he wrongly assumed that progressives would abandon the principle

of building balanced collections. In response, Pat Schuman stated that libraries were in fact part of society, and that societal “sickness” such as racism, poverty and war interfere with the free flow of information.<sup>7</sup>

Berninghausen이 주장하길 ALA는 “도서관 서비스와 사서직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 라는 공동의 목적을 위해 설립되었다는 것이다. 그는 사회정의문제에 대하여 입장을 취하는 것은 지적 자유의 방어자로서 ALA의 신뢰성을 손상시키게 될 것이라고 믿었으며, 그가 잘못 가정하고 있는 것은 진보주의가 균형 잡힌 장서의 구축을 포기할 것이라는 것이다. 그에 대한 반응으로, Pat Schuman이 주장하길 도서관은 사실상 사회의 한 부분이며 인종주의, 빈곤, 그리고 전쟁과 같은 사회적 “병마”는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Robbins noted that support for Berninghausen’s view resulted in “myopic professionalism ...to support intellectual freedom for those who have power while denying it to those who are powerless.”<sup>8</sup>

Robbins은 Berninghausen의 견해에 대한 지지는 “힘없는 사람들을 위해 그것을 부정하는 동안 힘을 가진 사람들을 위해 지적 자유를 지지하는 근시안적 전문기술”이라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주장하였다.

Sellen, Schuman, and Robbins argued that social issues are library issues because libraries exist within society, the real world with all its problems and possibilities. At a deeper level, this is a debate about the nature and ideology of librarianship. A narrow instrumentalist view leads to a passive profession content to follow the societal trends of the day and adjust accordingly. A wider truly professional view leads to active engagement in the larger world to actualize our values and make our world a better place.

Sellen, Schman, Robbins는 사회적 이슈는 도서관 이슈인데 그 이유는 도서관이 그것의 모든 문제와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실세계인 사회와 더불어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보다 깊은 차원에서, 이것은 사서직의 이데올로기와 본질에 대한 논쟁이다. 협소한 도구주의자의 견해는 그 날의 사회적 추세에 따라가서 그에 맞게 조정하도록 하는 수동적인 직업 직업 콘텐츠로 인도한다.

This article will place the idea of social responsible librarianship in its historical context, beginning with the Social Responsibilities Round Table of the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moving on to several international efforts organized by North and South American, European, and South African groups, and ending with IFLA, and especially the IFLA FAIFE. Building on past achievements and learning from our shortcomings, we can determine a few areas for current and future FAIFE initiatives.

이 기사는 역사적 맥락에서 the Social Responsibilities Round Table of the American Library Association에서 시작하여 North and South American, European, and South African groups에 의해 조직된 여러 국제 노력으로 이동하고 IFLA 특히 IFLA FAIFE에서 끝나는 사회적으로 책임이 있는 사서직의 아이디어에 대해 다룰 것이다.

## Inequality: 불평등

World inequality is growing. The income range between the richest five countries and the poorest countries was a factor of three in 1820, rose to eleven by 1913, surged to thirty-five by 1950, and increased to seventy-two by 1992.<sup>9</sup> The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calls this a “dangerous polarization” between the rich and the poor. Furthermore, the gaps within countries are increasing. The affluent elites, especially in the capital cities, live well and have access to libraries and information, but the poor are lagging behind. This so-called “digital divide” is nothing new. The UNDP shows the same divergence in access to electricity and telephones.<sup>10</sup> We might also cite access to books, journals, videos, community information, and indeed literacy itself.

불평등 세계가 커지고 있다. 가장 부유한 5 나라와 가장 가난한 나라 사이의 소득 범위는 1820에는 3배 였고, 1913년경에는 11배로 늘었으며 1950년경에는 35배로 급등하였으며, 1992년경에는 72배로 늘었다. The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에서는 이것을 부국과 빈국 간의 “위험한 양극화”라고 부르고 있다. 더욱이 그 나라들 내에서의 차이도 커지고 있다. 특히 주요 도시에서 유복한 엘리트들은 잘 살고 있으며 도서관과 정보에 접근할 수 있지만, 가난한 사람은 뒤쳐져 더듬거리고 있다. 이런 소위 “디지털 격차”는 이제 전혀 새롭지 않다. UNDP에서는 전기와 전화로의 접근에 있어서 똑같은 상이를 보여주고 있다.

These gaps are even evident in rich countries like the United States, which has more computers than the entire rest of the world. For example, in the year 2000, computers went from a minority to a majority (51%) acquisition for US homes. 88% of households with an income of \$75,000 or more had computers but for households with incomes less than \$25,000, only 28% owned computers. Only 37% of black adults and 35% of Hispanic adults owned computers.<sup>11</sup>

이러한 차이는 나머지 전 세계의 국가보다도 더 많은 컴퓨터를 가지고 있는 미국과 같은 부국에서조차도 분명하다. 예를 들어, 2000년에 컴퓨터는 미국 가정용으로 소수에서 다수(51%)로 바뀌었다. 75,000불 이상의 소득을 가진 가정의 88%는 컴퓨터를 가지고 있지만 25,000불 이하의 소득을 가지고 있는 가정은 단지 28%만이 컴퓨터를 가지고 있었다. 흑인 성인의 단지 37%와 히스패닉 성인의 35%만이 컴퓨터를 가지고 있었다.

The terminology is important for our understanding. This author has argued elsewhere that the term “digital divide” disguises rather than clarifies the problem of systemic inequality in the world economy based on neo-liberal economics, the World Bank’s Economic Structural Adjustment policies, massive unsupportable debt payments, and unfair trade regimes under the World Trade Organization.<sup>12</sup> Perhaps the term “information crisis” more accurately describes this phenomenon. 그 용어를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저자는 “디지털 격차”라는 용어는 신자유 경

제, 세계은행 경제구조 조정 정책, 대규모로 지원할 수 없는 빚 청산, WTO에서 이루어지는 불공정한 무역 제도를 근거로 하는 세계 경제에서 나타나는 체계적인 불평등의 문제를 분명하게 밝히기 보다는 위장하는 것이라고 다르게 주장한다.

#### The ALA Social Responsibilities Round Table(SRRT)

“...ALA recognizes its broad social responsibilities...” From the Introduction to section one of the “ALA Policy Manual.” Before engaging IFLA and other international efforts, it seems appropriate to provide some information about what SRRT is and what it has accomplished as a model for what FAIFE might consider in the immediate future. It is obvious that advocating controversial issues is never easy and sometimes puts one at risk. It is a tribute to the perseverance and personal courage of so many library activists that so much has been accomplished.

The Social Responsibilities Round Table is one of sixteen round tables within ALA. As one of the largest ones (over 1600 members), it has representation on the ALA Council, which is the governing body.

“ALA Policy Manual”의 제 1조인 서론에서부터 “ALA는 폭넓은 사회적 책임을 인정한다.” IFLA와 기타 국제노력이 관여하기 전에, SRRT가 무엇이고 FAIFE가 가까운 미래에 고려할 수 있는 모델로서 그것이 무엇을 이룩하였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여겨지고 있다. 분명한 것은 논쟁적 이슈를 옹호하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며 때때로 누구든 위험에 빠지게 한다. 그렇게 많은 것을 완수했다는 것은 많은 도서관 행동가의 인내와 개인별 용기에 대한 증거이다. The Social Responsibilities Round Table은 ALA에 있는 16개의 원탁회의 중의 하나이다. 가장 커다란 것(1600명의 회원 이상)들 중의 하나로서, 행정조직인 ALA의 평의회를 대표한다.

It publishes a newsletter, has a website, and gives awards.<sup>13</sup> In addition, several of its task forces also publish their own newsletters. As ALA is governed by a Council, SRRT is governed by an Action Council. It is presently made up of 8 at-large elected members, chairs of all the task forces, representatives of state and other affiliate groups, the SRRT Councilor to the ALA Council, and the Newsletter Editor (ex officio). The Action Council elects a Coordinator, Secretary, Treasurer, and approves a Newsletter Editor.

Current task forces include: Alternatives in Print; Environment; Feminist; Hunger, Homeless and Poverty; Information Policy in the Public Interest; International Responsibilities; and Martin Luther King, Jr. Holiday. As a decentralized organization, task forces initiate much of the work including programs and resolutions.

현재의 task forces에는 인쇄대안물; 환경; 여권주의; 기아, 무주택과 가난; 공공의 관심인 정

보정책; 국제적 책임; 그리고 Martin Luther King, Jr. 기념일을 다루고 있다. 탈중앙식 조직으로, task forces는 프로그램과 결의문을 포함한 많은 일을 하고 있다.

For the period 1991-2005, SRRT has sponsored more than 140 programs during the ALA annual meetings in the following categories:

Alternative Press 23  
Environment 21  
Feminism 19  
Gay/Lesbian/Bisexual/Transgendered 17  
Martin Luther King Jr. Holiday 16  
International Responsibilities 12  
African-American Children's Books 11  
Hunger, Homelessness And Poverty 6  
Peace 4  
Information Policy 2  
Library Unions 1  
Workplace Freedom 1  
Censorship of Museum Exhibits 1  
Forming a Worldwide Network 1  
Preservation of Original Documents 1

Examples of recent SRRT programs include:

- Are You Missing any Information?: Speaking & Publishing Freely on the Environment
- Best Copy Available [Nicholson Baker on preserving original documents]
- Cuba: Sovereignty, Development and Intellectual Freedom
- Cultural Democracy and the Information Commons
- Economic Barriers to Library Access
- Energy Efficiency, Friendly Buildings, and Librarians' Sustainability
- Erotica in Libraries(도서관에서의 춘화)
- Librarians Confront the War in Iraq
- Making Earth Day Every Day
- Pornography, Feminism and the Internet
- The WTO and Libraries: Perspectives on Globalization

SRRT Resolutions have often resulted from programs, and these resolutions were sometimes forwarded to the ALA Council. They have addressed a wide range of issues, which can be seen in the list of twelve topics and examples below. At least 81 resolutions were approved from 1991 to 2005 (excluding internal SRRT

business). Most of these were intended to not only put the Round Table on record, but also to be distributed to relevant bodies in order to help support some cause or position. SRRT has never been bashful(수줍어하는) in addressing government agencies and politicians. Of these 81 resolutions, only fifteen were sent to ALA Council either through passage at an ALA Membership Meeting, through friendly Councilors At Large, or more recently through the new SRRT Councilor (since January 2000). The SRRT Action Council has strategically picked when to engage the ALA Council; most resolutions were considered so far from winnable that they were not sent there for debate. Of the fifteen resolutions that did go to Council, four have passed, two have passed in a watered down form, eight have failed, and one is pending.

After many years of prodding, the ALA Council finally implemented its own affiliation policy and broke its relationship with the Boy Scouts of America over their homophobic policy. ALA's commitment to equity in library services made it possible to pass a good policy on services to poor people, but it took many years of effort to begin some work on implementation.

One battle was originally won and later overturned, the criticism of censorship in Israel and the Occupied Territories. As a practical matter, SRRT's international efforts have usually concentrated on issues and countries that are directly tied to U.S. foreign policy. Since the U.S. gives \$2 to \$3 billion per year to Israel, it seemed appropriate to target intellectual freedom and human rights violations in that country and the territories it illegally occupies. Because of ALA's commitment to intellectual freedom, and though a real democratic process, SRRT was able to pass two resolutions through the Membership Meeting and then the ALA Council in 1992.

One defended the rights of a librarian in a Palestinian university, and the other called for real freedom of expression in Israel, the West Bank and Gaza. This provoked an intense backlash when some American Zionist lobby groups heard what had happened. These groups were able to pack the next Membership Meeting, overturn the broad membership resolution on intellectual freedom, and then overturn the Council resolution. In fact, the ALA Council nearly debated abolishing SRRT! And to try to prevent future Membership Meeting actions, the Council orchestrated the implementation of a nearly impossible Membership Meeting quorum. It is a pleasure to report that after eleven years, a Membership referendum has just passed to reinstate a reasonable quorum. SRRT resolutions that have passed the ALA Council in a much watered-down form concerned the USA PATRIOT Act and the 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GATS). SRRT resolutions that have failed in Council include: two resolutions on socially



responsible investing of ALA's endowment fund, opposition to an ALA partnership with MacDonald's, thorough opposition to outsourcing, restrictions on Gates Foundation practices, putting a union boycott clause in future hotel contracts, and two resolutions on reducing the quorum for ALA Membership Meetings. The pending resolution is on the protection of workplace speech.

The 81 SRRT resolutions can be categorized in the following topics:

International Responsibilities 25  
Intellectual Freedom 18  
ALA Governance/Democracy 10  
Gay/Lesbian/Bisexual/Transgender 6  
Environment 4  
Racism 5  
Library of Congress Issues 3  
Labor Relations 3  
Poverty 3  
Alternative Press 1  
Women's Issues 1  
Library Education 1

Examples of recent SRRT resolutions include:

- Cultural Democracy as a Core Value
- Ending of Restrictions on US Citizens' Travel to Cuba
- Ending the US Occupation of Iraq
- Prohibition of Racist Training Materials by the US Military
- Protection of Workplace Speech
- Repealing the Entire USA Patriot Act
- Torture as a Violation of Our Basic Values as Librarians

#### **International Efforts<sup>14</sup>**

The Progressive Librarians Guild began as an independent regional organization in the New York/Mid-Atlantic area of the United States in 1990. However it quickly became a national body and soon attracted international members. It also quickly affiliated with the Social Responsibilities Round Table of the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SRRT) in order to have one foot inside and one foot outside the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ALA). Besides sponsoring outstanding ALA programs, its greatest accomplishment is its journal, the *Progressive Librarian*. For further information, see the website.<sup>15</sup>

The Progressive Librarians Guild가 1990년에 미국의 New York/Mid-Atlantic 지역에서 독립적인 지역조직으로 시작하였다. 그렇지만, 그것은 빠르게 국가적 조직이 되었으며 금방 국제적 회원들에게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또한 신속하게 그것은 ALA의 내부에 한 발 그리고 외부에 한 발을 걸치기 위하여 the Social Responsibilities Round Table of the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SRRT)에 가입하였다. 명확한 ALA 프로그램을 후원하는 것 말고도 그것의 위대한 업적은 그것이 the Progressive Librarian 저널이라는 것이다

Raimund Dehmlow in Hannover, Germany began an online directory of “Progressive Librarians Around the World” in 1997 or 1998. It included library organizations, individual libraries, individuals, publications, library solidarity projects, and websites.

By the time it folded in early 2001, it included listings from 18 countries. Raimund’s directory sparked the idea of calling a meeting of progressive library organizations at the 1998 ALA Annual Meeting in Washington, DC. The Social Responsibilities Round Table of the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was able to get a grant to invite representatives from all the organizations listed. They came from Information for Social Change in the United Kingdom, Arbeitskreis Kritischer BibliothekarInnen (AKRIBIE) in Germany, Arbeitskreis Kritischer BibliothekarInnen im Renner-Institut (KRIBIBI) in Austria, Bibliotek I Samhælle (BIS) in Sweden and the Library and Information Workers Organization (LIWO) in South Africa.

독일의 Hannover에 있는 Raimund Dehmlow에서 1997년 또는 1998년에 “Progressive Librarians Around the World”라는 온라인 디렉토리를 시작하였다. 여기에는 도서관 조직, 개별 도서관, 개인, 출판사, 도서관 단결 프로젝트, 그리고 웹사이트가 포함되었다. 그것이 2001년 초기에 접을 때까지, 그것에는 18개국에서 온 리스팅즈가 포함되었다. Raimund의 디렉토리는 the 1998 ALA Annual Meeting in Washington, DC에서 열린 진보도서관조직의 회의를 소집하자는 아이디어에 불을 붙였다. The Social Responsibilities Round Table of the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에서는 리스트에 올린 모든 조직의 대표를 초청하기 위한 허가를 받을 수 있었다. 그들은 Information for Social Change in the United Kingdom, Arbeitskreis Kritischer BibliothekarInnen (AKRIBIE) in Germany, Arbeitskreis Kritischer BibliothekarInnen im Renner-Institut (KRIBIBI) in Austria, Bibliotek I Samhælle (BIS) in Sweden and the Library and Information Workers Organization (LIWO) in South Africa에서 왔다.

The idea was to find ways to cooperate and advance our work across the world. As a result, an informal network and a listserv were established. Meanwhile the directory was growing. AKRIBIE and KRIBIBI called a second meeting in Vienna for November 2000, providing hotel accommodations and food. All of the organizations at the Washington meeting were there as well as several others. It was profoundly disheartening that differing positions around Cuba and other personal and organizational disputes disturbed the proceedings. It is unfortunate that the

organizers did not call for discussion around principles of unity well before the meeting. In short, inadequate preparation resulted in a failed meeting. The online directory and website were discontinued in the first part of 2001. Probably all of those present in Vienna came away saddened that more could not have been accomplished.

그 아이디어는 세계적으로 우리의 업무를 발전시키고 협동시키는 방법을 찾는 것이었다. 그 결과, 비공식적인 네트워크와 리스트서브가 설립되었다. 그러는 동안에 그 디렉토리가 성장하였다. AKRIBIE and KRIBIBI는 비엔나에서 2000년 11월 두 번째 회의를 숙식을 제공하면서 요구하였다. 워싱턴 미팅에 있었던 조직 모두가 그곳뿐만 아니라 여러 다른 곳에도 있었다. 매우 마음 아픈 것은 쿠바의 지위와 다른 사람과 조직의 논쟁에 대한 차이가 그 프로시딩을 방해한 것이었다. 불행스러운 것은 조직들은 회의 전에 unity의 원칙에 대한 논의를 요구하지도 않았다. 온라인 디렉토리나 웹사이트는 2001년 일 분기에 중지되었다. 아마도 비엔나에서 제시한 모든 것들이 사라졌으며 더 많은 것을 성취하지 못해 슬프게 되었다.

On a more positive note, the 2004 Buenos Aires IFLA Conference provided a venue for progressive librarians from the Latin American and Caribbean region to discuss and formulate a declaration (recently translated into English).<sup>16</sup> This meeting was titled the First Social Forum of Information, Documentation and Libraries: Alternative Action Programs from Latin America for a Knowledge-Based Society. It was organized by the Grupo de Estudios Sociales en Bibliotecologíay Documentacion (Social Studies Group in Librarianship and Documentation) from Argentina and the Circulo de Estudios sobre Bibliotecolog'a Politica y Social (The Study Circle on Political and Social Librarianship) from Mexico. The declaration is a short broad overview concerning principles that should underlie our work. It is notable that it stresses the need for peace, environmental justice, and the use of national and indigenous languages.

보다 긍정적인 것은, the 2004 Buenos Aires IFLA Conference에서 Latin American and Caribbean region 출신의 진보사서를 위해 선언문을 작성하고 논의하기 위한 장소를 제공하였다. 이 회의의 타이틀은 the First Social Forum of Information, Documentation and Libraries: Alternative Action Programs from Latin America for a Knowledge-Based Society 이었으며, the Grupo de Estudios Sociales en Bibliotecologíay Documentacion (Social Studies Group in Librarianship and Documentation) from Argentina and the Circulo de Estudios sobre Bibliotecolog'a Politica y Social (The Study Circle on Political and Social Librarianship) from Mexico에 의해 조직되었다. 그 선언서는 우리 업무의 기저가 되어야할 원칙에 관한 짧으면서도 폭넓은 견해이다. 주목할 것은 그것은 평화, 환경정의, 국가 및 원주민 언어의 사용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Note that of the nine organizations listed above, only one (SRRT) is an official body of a national library organization. This shows the need for more emphasis on socially responsible work within national library organizations worldwide.

주목할 것은 위에 리스트된 9개의 조직 중에서 단지 하나(SRRT)만이 국가도서관조직의 공식적인 조직이다. 이것은 전세계의 국가도서관조직 내에서 사회적 책임을 지닌 작업에 더 많은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 IFLA History

Although various IFLA bodies may have addressed social justice issues in a limited way for some time, the year 1984 saw a breakthrough with the establishment of a core program called Advancement of Librarianship in the Third World (ALP), since last year now called Action for Development through Libraries Programme. ALP has worked hard and has been successful in getting grants for various projects, but it has not been able to adequately address the social justice nature of the information crisis and other pressing issues.

비록 여러 가지의 IFLA 조직이 어느 정도의 시간동안 제한된 방법으로 사회정의 이슈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하더라도, 1984년 Advancement of Librarianship in the Third World (ALP)라 불리우는 핵심 프로그램의 수립과 더불어 틈새가 나타났으며, 지난 해 이래로 지금은 Action for Development through Libraries Programme이라 부르고 있다. ALP는 열심히 일했으며 다양한 프로젝트를 위한 기금을 마련하는데 성공적이었지만, 정보위기와 기타 급박한 이슈에 대해 사회정의본질을 올바르게 적용할 수가 없었다.

Librarianship exists within the world social context, as well as within the social structure of each individual country. The example of how IFLA failed to deal with apartheid South Africa is perhaps most instructive. In 1972 under pressure from a UNESCO suspension, the IFLA Executive Board requested the South African Library Association to withdraw its membership from IFLA. South African IFLA members lost their voting rights in 1974. However, voting rights were restored in 1977 citing bogus changed conditions. By 1985, the IFLA Council passed a resolution demanding that apartheid members continue to be excluded. But even with continued pressure by an international group of IFLA members, and even a demonstration outside the IFLA Conference in 1990, this resolution was never implemented but rather subverted by various surveys and investigations. The resolution finally became moot after South Africa's first democratic election.

사서직은 전세계의 사회적 맥락 뿐만 아니라 각 개별 국가의 사회적 구조 속에 존재하고 있다. 어떻게 IFLA가 남아프리카의 인종격리정책을 다루는데 실패하였는가에 대한 예가 아마도 가장 교육적일 것이다. 1972년에, UNESCO의 중지라는 압력에 따라, IFLA 수석이사회는 남아프리카 도서관 협회에게 IFLA의 회원자격을 퇴거할 것을 요청하였다. 남아프리카 IFLA 회원들은 1974년에 자신들의 투표권을 잃었다. 그렇지만, 투표권이 믿을 수 없이 변화된 조건을 열거하면서 1977년에 회복되었다. 1985년까지, IFLA 평의회는 인종격리정책 회원들을 계속해서 축출할 것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IFLA 회원의 한 국제 그룹에 의한 지속적인 압력과 더불어 그리고 심지어 1990년에 IFLA 회의장 바깥의 데모에도 불구하고 이 결

의문은 결코 실행되지 않았지만 그 보다는도 여러 가지 조사와 수사에 의해 뒤집어졌다. 최종적으로 그 결의문은 남아프리카 첫 번째의 민주적 선거가 실시된 다음에 미해결상태로 남게 되었다.

IFLA continued without any structures to address similar social justice issues through the late 1990s. Let me provide a few more examples. Although the large majority of US librarians attending the 1994 IFLA Havana conference signed a petition against the US boycott of Cuba, the IFLA Executive Board took no action. The 1995 Istanbul IFLA conference took place just after Pen International issued its annual report showing that Turkey had imprisoned more journalists than any other country. When two resolutions were developed to try to influence this situation during the conference, the then IFLA Executive Board pressured the movers to withdraw their resolutions, and succeeded in getting rid of one of them. Under intense pressure from the IFLA leadership, all mention of Turkey was deleted from the resolution eventually passed by the IFLA Council.

IFLA는 어떠한 조직없이 지난 1990년대동안 유사한 사회정의이슈에 지속적으로 초점을 맞추었다. 몇가지 예를 들어 보겠다. 1994년 IFLA Havana 회의에 참석한 대규모의 미국 사서들이 쿠바에 대한 미국의 보이코드에 반하는 청원서에 비록 싸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the IFLA Executive Board에서는 어떠한 행동도 취하지 않았다. 1995년 Istanbul IFLA 회의는 단지 Pen International이 터키가 어떠한 다른 나라보다도 많은 언론인을 투옥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것의 연례보고서를 발행한 다음에 바로 개최되었다. 두 개의 결의문이 회의기간동안 이러한 상황에 영향을 끼치기 위하여 마련되었을 때, IFLA Executive Board는 그들의 결의문을 철회하도록 운동가들에게 압력을 행사하였으며, 이것들 중의 하나를 제거하는데 성공하였다. IFLA 리더쉽에서 나온 강력한 압력에 따라, 터키에 대한 모든 언급은 결과적으로 IFLA 평의회에서 통과된 결의문으로부터 삭제되었다.

The 2000 IFLA Jerusalem conference was held just before the beginning of the second Intifada. People in Israel/Palestine were very tense wondering if negotiations would develop, if Palestine would declare independence, or if further rebellion would ensue. It soon became clear that the local conference organizers had excluded Palestinian librarians and that all the Arab countries were boycotting the conference and holding their own meeting in Cairo. The government of Israel used the conference to put forward its own political agenda, even welcoming the attendees to "the unified capital of the State of Israel." The keynote speaker turned out to be from Israel's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 number of librarians protested in both public and private ways during the meeting and IFLA was presented with a statement from the National Conference of Palestinian Librarians calling for UNESCO intervention to maintain the cultural identity of the city of Jerusalem. The IFLA Executive Board finally dissociated itself from the politics of the conference, but claimed this was beyond the control of the local organizing committee.

The 2000 IFLA Jerusalem conference가 제 2차 Intifada가 시작되기 바로 전에 열렸다.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지역의 사람들은 협정이 체결될 것인지, 팔레스타인이 독립을 선언할 것인지 또는 추가적인 봉기를 계속할 것인지, 매우 긴장하면서 궁금해 하였다. 곧 분명하게 된 것은 로컬 회의 조직자들이 팔레스타인 사서들을 제외시킴으로써 모든 아랍국가들이 그 회의를 보이코트하였고 카이로에서 자신들만의 회의를 개최하였다는 것이다. 이스라엘 정부는 심지어 참석자들이 “이스라엘 국가의 통합 수도”에 온 것을 환영하면서 자신들의 정치적 아젠다를 발표하기 위하여 그 회의를 이용하였다. 기조연설자는 이스라엘 외무부장관 출신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많은 사서들이 그 회의 동안에 공적 및 사적 방법 모두를 사용하여 반대하였으며, IFLA는 예루살렘이라는 도시의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UNESCO의 개입을 요구하는 the National Conference of Palestinian Librarians에서 나온 성명서를 접수하였다. The IFLA Executive Board는 최종적으로 그 회의의 정치학을 분리시켰지만 이것은 로컬에서 조직한 위원회의 통제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 **IFLA Social Responsibilities Discussion Group**

Something clearly had to be done to make it possible for IFLA to address pressing issues. At the 1996 Beijing conference, a small group got together to discuss forming a Social Responsibilities Discussion Group (SRDG). This effort came to fruition at the 1997 Copenhagen conference where the body was established under the Section on Education and Training.

IFLA가 긴급한 이슈에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어떤 것은 명확히 해야만 한다. the 1996 Beijing conference에서, 소규모 그룹이 함께 모여 a Social Responsibilities Discussion Group (SRDG)을 구성하기 위하여 논의하였다. 이런 노력이 그것을 the Section on Education and Training 하에 수립되도록 한 the 1997 Copenhagen conference에서 결실을 맺었다.

It was decided to focus on “The growing gap between the information rich and the information poor, both between countries and within countries.” (FAIFE was established in 1997. Perhaps an article on its history could be developed for its tenth anniversary, but such a treatment is out of scope here).

그것이 관심을 갖도록 결정한 것은 “정보 풍요와 정보 빈곤 간의 늘어나는 간격, 국가들 간에 그리고 국가 내에서” 였다. FAIFE는 1997년에 설립되었다.

Six discussion papers were delivered by the SRDG at the 1998 Amsterdam meeting under the broad information gap theme (still available on the IFLANET).

6개의 논의 서류가 넓은 정보격차 주제로 열린 the 1998 Amsterdam meeting에서 SRDG에 의해 전달되었다.

The topics were:

Rural Library Development (Kalpana Dasgupta),  
지방도서관개발  
Literacy in Libraries (Josephine Andersen),  
도서관의 계몽  
Fees for Library Service (Kristine Abelsnes),  
도서관 서비스 요금  
Human Resource Development (Dennis Ocholla),  
인적 자원 개발  
The Electronic Information Gap (Al Kagan), and  
전자정보격차  
North-South Library Development (Ismail Abdullahi).  
북-남 도서관 발전

A composite paper including recommendations was delivered at the 1999 Bangkok conference. The paper was published not only on the IFLANET but also in IFLA Journal, and later in an IFLA monograph.<sup>17</sup>

The fourteen recommendations were strengthened and clarified at the 2000 Jerusalem conference and transmitted by the Section on Education and Training to the Division of Education and Research, which in turn sent the recommendations to the Professional Board. The recommendations were approved by the Board at its December 2000 meeting in The Hague.

At the same time the Discussion Group applied for section status to carry on the work. However the IFLA Executive Board rejected that request at the 2001 Boston conference and instead advocated that the issues should be mainstreamed through the appropriate IFLA bodies. The recommendations were then slightly refined at the 2002 Glasgow conference, transmitted to the Governing Board, and approved by the IFLA Council. Just before the 2003 Berlin conference, the IFLA Governing Board forwarded the recommendation to seventeen IFLA bodies for their consideration and for possible action in developing their strategic plans. This author then advocated action in Berlin at the meetings of fifteen sections, the Regional Activities Division, and FAIFE.

Here are the recommendations:

- Rural Library Development

1. IFLA should develop a research program on rural library development in coordination with national library agencies. The focus should be on empowerment of local authorities to process information required by the community in

comprehensible formats for diverse rural populations.

IFLA는 국립도서관기관과 동등하게 농촌도서관발전을 위한 조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 그것의 초점은 다양한 농촌사람을 위해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포맷으로 커뮤니티에서 요구한 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지방 당국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어야 한다.

#### • Literacy in Libraries

2. IFLA should urge library and information schools to promote adult basic education skills as a component of their curriculums.

IFLA는 교과과정의 한 요소로 성인의 기본적 교육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도서관학교에 촉구하여야 한다.

3. IFLA should promote literacy training as a basic library service as advocated in the UNESCO Public Library Manifesto.

IFLA는 UNESCO의 공공도서관선언서에서 주장한 기본적인 도서관 서비스로서 계몽 훈련을 발전시켜야 한다.

#### • Fees for Library Services

4. IFLA should take a strong position against fees for basic services broadly construed as advocated in the UNESCO Public Library Manifesto.

IFLA는 the UNESCO Public Library Manifesto에서 주장한 것으로 폭넓게 해석되는 기본적 서비스의 비용에 대하여 강한 반대의 입장을 취해야 한다.

5. IFLA should work with commercial information providers to establish a standard price structure for publicly supported libraries based on ability to pay.

IFLA는 유료 가능성을 근거로 공적으로 지원을 받는 도서관을 위해 표준 가격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상업정보제공자와 협력해야 한다.

#### • Human Resource Development

6. IFLA should encourage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chools to adopt a socially responsible orientation, including the promotion of a strong service ethic towards all population groups.

IFLA는 모든 이용자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강력한 서비스 윤리의 장려를 포함하고 있는 사회적으로 책임있는 목표를 채택하도록 도서관학교를 격려해야 한다.

7. IFLA should research the education and training needs of Southern countries in conjunction with relevant agencies in order to facilitate the development of appropriate information curricula.

IFLA는 올바른 정보 교과목의 개발을 원활하게하기 위하여 적당한 기관과 연합하여 남부 국가의 교육과 훈련에 대한 필요성을 조사해야 한다.



#### • Electronic Information Gap

8. IFLA should promote the development of and assist in formatting local content for electronic resources.

IFLA는 전자자원의 개발을 장려해야 하고, 전자자원용 로컬 콘텐츠의 포맷 작업을 보조해야 한다.

9. IFLA should work with appropriate national and international bodies to promote policies and develop programs that equalize access to the Internet.

IFLA는 올바른 국가 및 국제기관과 협력하여 인터넷으로의 접근을 평등하게 하는 정책을 장려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

#### • Library Cooperation

10. IFLA should promote greater resource sharing between the information rich and the information poor, including links to the information superhighway for equitable, adequate and reliable communications for all.

IFLA는 만인을 위해 평등하고, 적당하며 신뢰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정보 슈퍼하이웨이에 링크하는 것을 포함하여 정보 풍요와 정보 빈곤 간에 보다 커다란 자원공유를 장려해야 한다.

#### • The Profession, Library Associations, and IFLA Structure

11. IFLA should advocate and develop strategies for the use of library associations to develop policies conducive to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infrastructures for equitable, adequate and reliable communications for all.

IFLA는 만인을 위해 평등하고, 적당하며 신뢰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정보 인프라의 개발에 도움을 주는 정책을 개발하기 위하여 도서관 협회에서 이용할 수 있는 전략을 개발하고 옹호하여야 한다.

12. IFLA should monitor and report on how various library associations are addressing information gap issues with a view to stimulating further work and activities.

IFLA는 도서관 협회가 미래의 업무와 활동을 자극하려는 목적과 더불어 얼마나 다양하게 정보의 격차 이슈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에 대하여 감독하고 보고해야만 한다.

13. IFLA should continue to work toward putting the concerns of Third World librarianship at the center of its program and activities.

IFLA는 자신의 프로그램과 활동의 중심부에 제 3세계 사서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작업을 계속해야 한다.

It is much too soon to be able to evaluate the effects of the IFLA Social Responsibilities Discussion Group, but it is heartening to note that some IFLA bodies have taken this work seriously and have included some of the recommendations in their plans. Work has even begun on some of them. FAIFE is the most obvious example as described below. Furthermore, IFLA as a whole has now adopted a three-pillar approach to address "Society, Members, and Profession."

IFLA의 3가지 기축연구는 "사회, 회원, 그리고 직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This new emphasis on Society appears to be a direct result of the work of the Discussion Group.

사회에 대한 이러한 새로운 초점은 Social Responsibilities Discussion Group의 업무로 인한 직접적인 결과이다.

### **FAIFE and Social Responsibilities**

The FAIFE Committee is discussing its strategic plan for the next three-year period. Social responsibilities will be explicitly mentioned, and will likely include the categories of empowerment for the poor, HIV/AIDS information, gender issues, access to the Internet, lifelong literacy, and government transparency to fight corruption. FAIFE also intends to send a mission to Israel/Palestine to assess freedom of expression issues. And FAIFE will need to address the poor freedom of expression situation in Tunisia, the venue of the next World Summit on the Information Society. The forthcoming FAIFE World Report will present new data on several of these topics.

FAIFA Committee는 다음의 3년동안에 대한 그것의 전략적 계획을 논의 중이다. 사회적 책임은 분명하게 언급될 것이며, 아마도 the poor, HIV/AIDS information, gender issues, access to the Internet, lifelong literacy, and government transparency to fight corruption에 대한 the categories of empowerment를 포함할 것이다. FAIFE는 또한 표현의 자유 이슈에 대하여 평가하기 위하여 이스라엘/팔레스타인에 대한 임무를 수행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FAIFE는 차기 World Summit on the Information Society의 장소인 Tunisia에서의 표현의 자유 상황이 취약하다는 것을 강조할 것이다. 다음의 FAIFE World Report에서는 이러한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하여 새로운 데이터를 제시할 것이다.

In cooperation with the three IFLA regional sections and the Copyright and Other Legal Matters Committee, FAIFE will organize around HIV/AIDS information issues at both the 2006 conference in Seoul and the 2007 conference in Durban. For 2006, we are planning a panel that will include an overview of the disease and the information situation from a librarian at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a paper on the situation in Thailand, a presentation on the gender power imbalance and HIV/AIDS transmission focusing on Africa, and a paper on the situation in Latin

America. For 2007, we plan not only a panel but also a performance and a film. The panel will include an overview of the situation in Africa, a speaker from the main AIDS activist group in South Africa (the Treatment Action Campaign), a speaker on the intellectual property issues related to the pharmaceutical industry, and a speaker on information seeking behavior. We hope to show the award winning HIV/AIDS film, "Yesterday," and to bring the most well-known and loved South African satirist/activist, Pieter-Dirk Uys, who is currently doing a show titled "Foreign AIDS." We are also planning posters sessions at both conferences.

3개의 IFLA 지역분과와 the Copyright and Other Legal Matters Committee가 협력하여, FAIFE는 2006년 서울 회의와 2007년 Durban 회의 모두에서 HIV/AIDS information issues를 다룰 것이다. 2006년용으로, 우리는 World Health Organization에 있는 사서로부터 정보 상황과 질병에 대한 전망, 태국의 상황에 관한 논문, 아프리카에 초점을 맞춘 HIV/AIDS transmission과 gender power imbalance에 관한 프레젠테이션, 그리고 라탄 아메리카의 상황에 관한 논문을 포함할 패널을 계획하고 있다. 2007년용으로, 우리는 또한 패털 뿐만 아니라 a performance and a film을 계획하고 있다. 그 패널에는 아프리카 상황에 대한 전망, 남아프리카의 주요 AIDS 활동가 출신의 연사, 제약회사와 관련된 지적 재산권 이슈에 관한 연사, 그리고 정보찾기행위에 관한 연사가 포함될 것이다. 우리는 HIV/AIDS 수상작 "Yesterday"를 보길 그리고 가장 잘 알려지고 사랑받는 남아프리카의 풍자시인/활동가이며 현재 "Foreign AIDS"라는 제목의 쇼를 진행하고 있는 Pieter-Dirk Uys를 보길 희망한다. 우리는 또한 이 두 회의의 세션에 대한 포스터를 계획 중이다.

### Recommendations for FAIFE

1. The SRRT organizational model suggests that it might be productive to form FAIFE subcommittees or working groups, to get more people involved with appropriate expertise. It also suggests that FAIFE might want to have some more formal representation on the IFLA Governing Board.

SRRT 조직모델에서는 FAIFE 소위원회나 실무그룹을 만드는 것과 더 많은 사람이 적합한 전문기술을 가지고 참여하는 것이 생산적일 수 있다고 제안한다. 또한 FAIFE는 IFLA Governing Board에서 좀더 많은 공식적 대표성을 갖길 원하기도 한다.

2. The limited success of the efforts to coordinate the national progressive library organizations suggests the need for further initiatives. It could be very productive to foster their participation within IFLA, possibly through a special dues category for small organizations in the richer countries.

국가별 진보도서관조직과 협조하려는 노력의 제한된 성공은 추가적인 initiatives에 대한 필요성을 제안한다. 부유한 국가에서 조그만 조직을 위해 제공하는 특별회비를 통해 가능한 한 IFLA 내에 그것들의 참여를 장려하는 것은 매우 생산적일 수 있다.

3. In the current period of increasing conflict and war, civil society organizations

have a special responsibility to do what they can to make our world a better place. FAIFE can fulfill this function for IFLA through bold initiatives.

## Conclusion

We live in volatile times where inequality, violence, and prejudice of all kinds threaten the human community.

우리는 모든 종류의 불평등, 폭력, 그리고 편견이 인간 커뮤니티를 위협하는 변동 시대에 살고 있다.

When we as librarians do our job well, libraries serve as a resource for the entire community, a resource that can provide access to information and cultural materials to all, without distinction to class, gender, ethnic group, country of origin, citizenship status, or sexual orientation. Our materials and services can make a meaningful contribution to the people of our communities by promoting literacy, equalizing access to materials in all formats, advocating for human rights, preserving and promoting cultures, and by promoting intellectual freedom. Libraries can become true community centers.

사서로서 우리가 우리의 일을 잘 할 때, 도서관은 모든 커뮤니티의 자원 - class, gender, ethnic group, country of origin, citizenship status, or sexual orientation에 대한 차별 없이 모두에게 정보와 문화적 자료로의 접근을 제공할 수 있는 자원 - 으로 도움을 제공한다. 우리의 자료와 서비스는 학식을 높이고, 모든 형태의 자료로의 접근을 평등하게 하고, 인권을 옹호하며, 문화를 보존하고 증진시키고, 지적 자유를 촉진함으로써 우리 커뮤니티의 사람들에게 의미 있게 기여할 수 있다. 도서관은 진정한 커뮤니티 센터가 될 수 있다.

Library associations can facilitate this role by educating and organizing librarians to advocate for justice.

도서관협회는 정의를 옹호하도록 사서를 교육하고 조직함으로써 이러한 역할을 원활하게 할 수 있다.

This article has highlighted the role of socially responsible librarianship within the American Library Associations and has noted the efforts of several other library groups. The history of IFLA's involvement in various issues has resulted in the formation of the Social Responsibilities Discussion Group and FAIFE, which is now struggling to meet its potential. It will be up to the IFLA association and institutional members as well as the IFLA Governing Board to nurture FAIFE and provide the necessary resources to expand its activities.

이 기사는 ALA에서 이루어지는 사회적 책임의 사서직에 대한 역할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여러 다른 도서관 그룹의 노력을 기술하였다.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한 IFLA의 개입의 역사는 자신의 잠재력을 충족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 the Social Responsibilities Discussion Group

and FAIFE의 구성이라는 결과를 가져왔다. ...

We can help foster Sartre's call for "infinite unity " by taking brave actions. The ethics of our profession oblige us to do no less.

우리는 용기있는 행동을 취함으로써 " infinite unity"에 대한 사르트르의 요구를 명심하여야 한다. 우리 직업의 윤리는 우리에게 확실히 하도록 강요하고 있다.

#### **11) Declaration from Buenos Aires on Information, Documentation and Libraries -2004**

The attendees at the First Social Forum on Information, Documentation and Libraries: alternative action programs from Latin America for the information society, held in Buenos Aires from August 26-28, 2004, was called by the Social Studies Group on Library Science and Documentation (Argentina) and the Study Circle on Political and Social Librarianship (Mexico).

We recognize that:

우리는 인정한다:

Information, knowledge, documentation, archives, and libraries are communal cultural goods and resources. They are based upon and promoted by democratic values, such as: freedom, equality, and social justice, as well as tolerance, respect, equity, solidarity, communities, society, and the dignity of individuals.

정보, 지식, 도큐멘테이션, 아카이브즈, 그리고 도서관은 공공의 문화적 재화이며 자원이다. 이것들은 다음과 같은 민주적 가치에 근거하며 그것에 의해 발전한다: 자유, 평등, 그리고 사회정의, 뿐만 아니라 관용, 존경, 공정, 단결, 커뮤니티, 사회, 그리고 개인의 존엄.

Every documentation center contributes to democratic practice in the social and political spheres. Conscious of this dimension, the foundation and organization of these cultural goods and resources must be constructed under the principal of knowledge and information access that is free, open, and egalitarian for everybody. 모든 도큐멘테이션 센터는 사회적 및 정치적 분야에서 민주적 실무에 기여한다. 이러한 차원을 인식하여, 이러한 문화적 재화 및 자원의 설립과 조직은 누구에게나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인류평등적인 지식과 정보의 접근이라는 원칙에 따라 이루어져야만 한다.

Social and political elements also are present that librarians, documentalists, and archivists must take into account in order to contribute to the formation of cultural and civic identities sustained by civil and socially responsible values.

현재 사회적 그리고 정치적 요소로는 사서, 도큐멘탈리스트, 그리고 아키비스트는 시민적 그리고 사회적으로 책임이 있는 가치에 의해 계승되는 문화적 그리고 시민적 정체성의 형성에 기여해야 한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We consider that:

우리가 검토해야할 것은 :

Librarians, documentalists, and archivists must participate in the social and political processes related to their cultural tasks, work environment, and professional practice.

Librarians, documentalists, and archivists는 자신들의 문화적 임무, 근무환경, 그리고 직업적 실무와 관련된 사회적 그리고 정치적 과정에 참여해야 한다.

These cultural workers are facilitators of social change, opinion makers, promoters of the democratization of information and knowledge, educational coordinators, and actors engaged with the social and political processes. Therefore, because the work that they carry out is of fundamental importance to society and the state, they must be granted full social recognition, as well as an equitable and just salary regulated by legislation in each country.

이러한 문화근로자들은 사회변화의 촉매자, opinion maker, 지식과 정보의 민주화를 위한 장려자, 교육적 조정자, 그리고 사회적 및 정치적 과정에 참여하는 행동가이다. 그러므로, 그들이 수행하는 작업이 사회와 국가를 위해 기본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그들은 충분히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아야만 할 뿐만 아니라 각 나라별로 법률에 의해 규정된 공정하고 정당한 급여를 지불하여야 한다.

Professional solidarity and cooperation, like networking, are valuable tools that encourage the exchange of successful experiences and broaden the objectives and challenges in our daily work.

네트워킹과 같은 직업적 단결과 협력은 성공적인 경험의 교환을 고무시키고 우리의 일상 업무에서 목적과 도전의 폭을 넓히는 가치 있는 도구이다.

Libraries, archives, and documentation centers must be places that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human rights, the preservation of memory, and the rediscovery of the oral and written traditions that assure the self-determination and sovereignty of all peoples.

Libraries, archives, and documentation centers은 모든 사람의 자결과 주권을 보장하는 인권의 발전, 메모리의 보존, 그리고 구술 및 기록 전통의 재발견을 위한 장소이어야 한다.

Librarian and information services, as well as unrestricted collection development, should be planned, constructed, and offered by librarians, documentalists, and archivists with the full collaboration of individuals, communities, and organizations, particularly the least socially and politically favored.

사서와 정보서비스, 뿐만 아니라 무제한의 장서개발이 특히 적어도 사회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선호하는 개인, 커뮤니티, 그리고 조직의 충분한 협력을 받은 librarians, documentalists, and archivists 에 의해 계획되고, 마련되고, 제공되어야 한다.

Both the theory and practice of library science, documentation, and archival studies are determined by the needs that these fields generate in the social sphere. Therefore, the creation and practice of these disciplines and professions must promote public opinion, critical judgment, free decision making, and actively contribute to the struggle against illiteracy in all its forms with the goal of improving life and the collective or personal environment of everyone.

library science, documentation, and archival studies의 이론과 실무 둘 다 이들 분야가 사회적 영역에서 생산하는 필요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이들 학문과 직업의 제작과 실재는 여론, 중요한 판단,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장려해야 하며, 모든 사람의 삶과 집단적 또는 개인적 환경을 개선하는 목적을 갖고 활발하게 모든 형태의 문맹과의 싸움에 기여하여야 한다.

Taking into account their neutral or non-neutral practice, individual thought, labor action, and citizen participation, librarians, documentalists and archivists must construct public spaces in their communities for the exchange of information, thereby providing an incentive for the discussion of political, social, ideological, and cultural themes -- themes inherent in governmental and societal problems.

자신들의 중립성 또는 비중립적 실무, 개인적 사고, 근로행동, 그리고 시민 참여를 고려하여, librarians, documentalists and archivists는 자신들의 커뮤니티에 정보교환을 위한 공공의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정치적, 사회적, 이데올로기적, 그리고 문화적 주제에 대한 토론을 위한 동기를 제공하게 되며, 그 주제들은 주로 정부에 대한 그리고 사회적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

Information, knowledge, documentation, and libraries are a public good that must not be governed or controlled by market dynamics, but rather orchestrated by public developmental policies, well being, and the defense of society's cultural heritage, in the interest of insuring the public domain, diversity, plurality, and the equality of all sectors of the population.

Information, knowledge, documentation, and libraries는 시장의 역학에 의해 지배되거나 통제되지 않아야 하지만, 공공의 영역, 다양성, 다원성, 그리고 모든 분파의 사람들에 대한 평등성을 보장한다는 관점에서 공공개발정책, 웰빙, 그리고 사회문화유산의 보호와 더 많은 조화를 맞춘 공공의 재화이다.

Grounded in the global professional field of information, documentation centers, libraries, and archives, the construction of discourse, out of the Latin American and Caribbean reality, implies the use of national languages as a means of communication. Additionally, an awareness of indigenous languages as a social and political reality in numerous Latin American countries and the Caribbean requires their recognition as generators of oral and written discourse important to the preservation of these languages.

the global professional field of information, documentation centers, libraries, and archives에 관한 전세계적인 전문분야를 근거로, 남미 및 카리브안 실체를 벗어나 담론을 구축하는 것은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서 국가 언어의 사용을 의미한다. 추가적으로 많은 남미국가와 카리브안 국가에서 사용하는 사회적 및 정치적 실재로서의 원주민 언어에 대한 깨달음은 이러한 언어의 보존에 중요한 구술 및 기술 담론의 생산자로서 그것들을 인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Peace is a necessary guarantor of, and condition for, the preservation and growth of information and knowledge repositories. In accord with this idea, we firmly condemn wars and all forms of violence that devastate the human species and their cultural heritage. The ongoing promotion of peace and the processes required must become a social commitment of librarians, documentalists, and archivists in their places of work and in the cultural, social, and political spheres that concern them as citizens.

평화는 정보와 지식의 저장고의 보존과 성장의 조건이며 필요한 보증인이다. 이러한 아이디어에 따라, 우리는 확고하게 인류와 그 문화유산을 유린하는 모든 형태의 폭력과 전쟁을 비난한다. 평화와 필요한 절차에 대한 지속적인 촉진은 자신들의 작업장소 그리고 시민으로서 그들이 관심을 갖는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분야에서 librarians, documentalists, and archivists의 사회적 책임이 되어야 한다.

In order to offer services to minority and socially vulnerable groups, it is necessary to eliminate all forms of discrimination in information, documents, and library systems: by sex, race, ethnicity, ideology, economic status, social class, disabilities, migration, sexual orientation, religion, and language.

소수자와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정보, 문서, 그리고 도서관 시스템에서 sex, race, ethnicity, ideology, economic status, social class, disabilities, migration, sexual orientation, religion, and language에 따라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차별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

The serious ecological deterioration of our planet affects life in general and, as a consequence, the well being and quality of life of the human species. We consider it essential that library and information professionals connect environmental problems to the development, organization, and diffusion of information concerning



the environment.

우리 지구의 심각한 생태적 파괴는 일상의 삶에, 결론적으로 인류의 월빙과 삶의 질에 영향을 끼친다. 우리는 도서관 및 정보 전문가가 환경문제가 환경과 관련된 정보의 개발, 조직, 그리고 배포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We declare that the fair and just distribution of public documents, goods, and resources is essential to the achievement of freedom of access to information.

우리는 공공의 문서, 재화, 그리고 자원의 공평하고 정당한 배포는 정보접근의 자유를 달성하는데 필수적이라고 선언한다.

We invite everyone to contribute to the realization of the statements and propositions in this declaration.

우리는 이 선언서와 이 선언서에 있는 제안을 실현하는데 도움을 주는 모든 사람을 환영한다.

From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to the information society.

Buenos Aires, August 28, 2004

Translated by Dana Lubow, M.L.S.  
with help from Larry Oberg, M.L.S.  
November 24, 2004

이 manifesto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인정하고 있다: “정보, 지식, 도큐멘테이션, 아카이브즈, 그리고 도서관은 자유, 평등, 사회정의뿐만 아니라 관용, 존경, 균등, 단결, 커뮤니티, 사회, 그리고 개인의 위엄과 같은 민주적 가치에 의해 토대가 되고 증진되어지는 공공의 문화 재화이며 자산이다.”

## **12) Access to Libraries and information: Towards a fairer world - IFLA/FAIFE World Report 2007, World Report Series vol. VII.**

### **Introduction**

This publication of the IFLA/FAIFE World Report is the fourth in the series

published since 2001, with the aim to “offer timely and detailed summaries of the state of intellectual freedom and libraries worldwide” (<http://www.ifla.org/faife/report/intro.htm>). The previous reports can also be accessed at this URL.

In 2001, with the launch of the first IFLA/FAIFE World Report, the President of IFLA at the time, Mrs Christine Deschamps stated: “The IFLA/FAIFE World Report is a living document and more countries will join the project in the future. The World Report is a living proof of the global aspects of IFLA/FAIFE and of IFLA’s support to democracy and development.”

This fourth World Report confirms her statement by representing 116 countries of the world, the most in one report since the first publication. As there are many countries that are still not represented, the potential for expansion is still vast and a large amount of work needs to be done in order for this series to reach the ideal of becoming “the authoritative source on libraries and information services with regard to intellectual freedom in a global perspective” (<http://www.ifla.org/faife/report/intro.htm>). Most of the 116 countries that participated have IFLA members. It is, however, exciting that a number of participating countries are not listed as having IFLA members at the time of publication. This FAIFE initiative may also play an important role in increasing awareness of IFLA’s activities worldwide and may encourage institutions to join in a body uniting the library and information profession.

This report followed up and expanded on issues explored in previous reports. Detailed discussions on the methodology and analysis of findings are covered in later sections of the report. In addition to providing library statistics and details about Internet access in libraries, the report also deals with the same issues covered in the 2005 report, namely antiterror legislation, freedom of information laws, violations of freedom of access to information and freedom of expression, the social responsibility of libraries, and ethical issues. These topics are reported on in the individual country reports, followed by an analysis of the data and conclusions that can be drawn. The six commissioned articles provide further information on pertinent issues and explore matters ranging from censorship and legislation, to transparency and the anticorruption role of libraries.

The report highlights a number of successes that have been achieved worldwide in terms of freedom of access to information and freedom of expression. It is nevertheless evident that IFLA, FAIFE and the broader library and information community should be very concerned about many of the issues addressed in the report – in each of the sections issues have been identified that need the urgent

attention of library authorities and individual library patrons. In this sense we trust that the report will be useful – and a wake-up call – not only to the library and information community, but also to everyone who has an interest in freedom of access to information and freedom of expression. This research is an overview that identifies tendencies (especially when data was compared with that of previous reports); yet, more in-depth research is needed in many cases. We trust that the report would help identify such issues and inspire researchers to address them.

The 2007 IFLA/FAIFE World Report was a concerted team effort and we would like to thank all parties that were involved in the research and pre-press work for their role in making this publication possible.

Theo Bothma and Retha Claasen-Veldsman  
*March 2008*

**1)From censorship to freedom of access to information and freedom of expression in South Africa / Archie L. Dick**

Department of Information Science, University of Pretoria, Pretoria  
archie.dick@up.ac.za

**2)Corruption and transparency in Russia: The anticorruption role of libraries / Irina Trushina**

Assistant Deputy Director-General, National Library of Russia, St Petersburg  
ref.science@nlr.ru

**3)The USA PATRIOT Act: An example of the impact of national security legislation on libraries / Barbara M. Jones**

Wesleyan University, Middletown, CT 06107  
Bjones01@wesleyan.edu

**4)Censorship in Arab countries / Kamel Labidi**

Tunisian freelance journalist currently based in Arlington, Virginia, USA; and consultant for the International Freedom of Expression Exchange (IFEX) and the Committee to Protect Journalists (CPJ)  
KELabidi@aol.com

**5)On libraries and intellectual self-defence / Jane Duncan(남아프리카)**

Freedom of Expression Institute, Johannesburg  
fxi@fxi.org.za

**6)The interrelated roles of archival and right of access to information legislation to promote democratic government in South Africa / Ethel Kriger**

Freedom Park Trust, Pretoria

krigerr@iafrica.com

The 2007 World Report shows that the digital divide is still a serious reality that needs to be tackled by library communities worldwide in the years to come. Significant inequalities in Internet access exist across the international library community which are often exacerbated by the increasing use of filtering software to protect children and safeguard public morality and religious values. The 2007 World Report shows that in many of IFLA's member countries, intellectual freedom is still very much under pressure, leaving library users unable to fully express their rights to freedom of access to information.

**13) Libraries and the Fight against HIV/AIDS, Poverty, and Corruption -2006:  
IFLA/FAIFE Theme Report, World Report Series vol. VI**

**Preface**

**Poverty, HIV/AIDS, corruption and libraries**

**Alex Byrne**

**President of IFLA**

"Libraries change lives!" is one of our heartfelt and often proclaimed slogans. And, indeed, we regularly see the lives of our libraries' clients transformed through our work. We observe the young child who begins to read, gradually extending her or his horizons with growing confidence, the student who masters the skills of accessing digital and printed information, elderly citizens who find new worlds to experience in their retirement, and many others who benefit from our collections and services.

But do we engage with the big issues which change peoples' lives or compromise them from the outset? Do our libraries do anything to alleviate the crushing burden of poverty from which it is so difficult to extricate oneself? Do we

contribute to the campaign to stop the spread of HIV/AIDS? Do we have any role in preventing corruption?

I have heard colleagues say that 'this is not librarianship, it is social work'. They have objected strongly to any suggestion that libraries should engage with these enormous societal challenges and the others facing our world. Their view is that libraries and information services should just provide information without bias and leave it to the public and the political process to handle societal issues. As they state, our skills lie in information organisation, management and access and that, by

applying those skills as best we can, we satisfy our professional responsibilities while enabling others to pursue their campaigns, well informed because of our work.

There is some merit in this argument. Our professional skills do lie in information organisation, management and access and we do have a duty to apply them without bias, without 'fear or favour', so that our clients - whether they be within organisations or spread across communities - will be enabled to pursue their interests and responsibilities. We would fail in our professional duty if we did not make available all relevant information to the extent that our resources allow. We would fail if we provided access only to the information that the client 'wanted to hear' when planning a development which might entail environmental damage, for example. Thus in providing full and unbiased access to information, we take a stand, a stand in favour of truth and justice and the human right to know.

- 1) Information accessibility by the marginalized communities in South Africa and the role of libraries / **Dennis N. Ocholla**
- 2) Information vaccine: HIV/AIDS and libraries in Sub-Saharan Africa / **Kendra Albright**
- 3) India's public libraries: poised to meet the needs of the poor? / **Anjali Gulati & John M. Riley**
- 4) Health information services in public libraries in Japan / **Yasuyo Inoue**
- 5) The role of libraries in the dissemination of HIV/AIDS information in Trinidad and Tobago / **Ernesta E. Greenidge, Marilyn Drayton-Andrews and Marilyn Lewis**
- 6) The experience of Cuban libraries in preventing STI/HIV/AIDS / **Margarita**

**Pobea Reyes**

- 7) Information access for the poor and the role of libraries in the reduction of poverty / **Celso M. Musino (멕시코)**
- 8) Information and transparency in Mexico: A mechanism to control corruption? / **Oscar Maya Corzo**
- 9) Information and HIV/AIDS in Mexico: Towards building an appropriate system for public documentation? / **Celso M. Musino & Oscar Maya Corzo**
- 10) Access to books, libraries and information literacy Adoption of IFLA/UNESCO Manifestos and Guidelines by public and school libraries in South America / **Marcia Rosetto**
- 11) Georgian libraries and the fight against HIV/AIDS, poverty and corruption / **Irakli Garibashvili(동유럽)**

**Conclusion / Susanne Seidelin & Thomas Skov Jensen**

## **Introduction**

It is encouraging to note that, although the authors of this report see many difficulties lying ahead of libraries and information services, they have no doubts that libraries should engage in the problems and challenges their respective countries and regions are facing.

주목해야 하는 것은 이 보고서의 저자들이 비록 도서관 서비스 앞에 놓여있는 많은 어려움을 알고 있다하더라도, 그들은 도서관이 자신들의 나라나 지역에서 직면하고 있는 문제와 도전에 개입해야 한다는 것에 대하여 전혀 의심하지 않고 있다.

The starting point is to provide services and disseminate information at a high professional level, however, the authors concur that libraries would have to leave the “ivory tower” and engage themselves in their local communities, their country as well as internationally if they should be able to effectively respond to their users’ needs. Cooperation, partnerships and redefinition of objectives and tasks of libraries are some of the key focus points of the authors. It is also evident that they regard library services on HIV/AIDS, poverty and corruption as commitments that go beyond borders of communities, countries and regions - thus all three subjects of this report are also seen as a commitment of the international library community.

출발점은 우수한 전문적 수준에서 정보를 배급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지만, 저자들은

도서관이 상아탑을 벗어나서 만일 자신들의 이용자의 요구에 효과적으로 반응해야 한다면 국제적으로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로컬 커뮤니티 그리고 자신들의 나라에 스스로 개입하는 것에 동의하고 있다. 도서관의 목적과 임무에 대한 협력, 동반관계 그리고 재정되는 이들 저자들의 주요한 논점들이다. 또한 분명한 것은 저자들은 HIV/AIDS, 빈곤과 부패에 관한 도서관 서비스는 커뮤니티, 국가 그리고 지역을 넘어 책임으로 간주하고 있다 - 그러므로 이 리포트의 3가지 주제 모두가 국제도서관 커뮤니티의 책임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More concretely the authors advocate the engagement of libraries in strong education efforts, implementation of information laws, awareness of the consequences of poverty and corruption, advocating transparency; and enhancing libraries' position in society; and thus increasing the abilities of libraries' successful participation in the fight for equal opportunities, transparency and better public health.

보다 확고하게 저자들은 강력한 교육노력, 정보법의 실행, 빈곤과 부패의 귀결에 대한 깨달음, 투명성 옹호에 도서관이 개입하여야 하며, 사회에서 도서관의 지위를 높이는 것, 그로 인하여 동등한 기회, 투명성, 그리고 보다 나은 공공보건을 위한 싸움에 도서관이 성공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의 제고시키는 것을 지지하고 있다.

### **Libraries and the HIV/AIDS pandemic**

“library and information services cannot sit on the fence when their nations young people are being decimated by the enemy from within who strikes silently and in darkness” (Kingo J. Mchombu 2002)

“도서관과 정보서비스기관은 젊은이가 살고 있는 자신들의 나라가 조용히 그리고 어둠 속에서 공격해 오는 내부로부터의 적에 의하여 decimation(10명에 1명꼴로 제비뽑아 죽음) 당할 때 담장에 걸터앉아 있을 수는 없다.

The IFLA/FAIFE World Report 2005 showed that libraries - particularly in the regions most affected by HIV/AIDS - were engaged in programmes that raise awareness about the disease and, to some degree, they also disseminated information to members of the community unable to read. The report concluded, however, that countries were more likely to have undertaken general HIV/AIDS awareness programmes than specific programmes targeting illiterate groups.

The IFLA/FAIFE World Report 2005에서는 도서관 - 특히 HIV/AIDS에 대부분이 감염되어 있는 지역에 있는 도서관은 그 질병에 대하여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으며, 어느 정도까지 도서관 또한 글을 읽지 못하는 커뮤니티의 회원들에 정보를 전달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 보고서에서 결론내린 것은, 그렇지만, 국가들이 문맹 집단을 목표로 하는 특별한 프로그램보다는 일반적인 HIV/AIDS 경각 프로그램을 착수하는 경향이 많다는 것이다.

Just over half of the respondents (43 out of 82) had been involved in HIV/AIDS awareness programmes. From a regional point of view, awareness programmes were more likely to be found in African and Latin American libraries although the USA and Canadian libraries run programmes and half of the Oceanic respondents had been involved in similar activities.

반이상이 조금 더 되는 응답자가 HIV/AIDS awareness programmes에 참가하고 있다. 지역 입장에서, 경각심 프로그램은 비록 미국과 캐나다 도서관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대양주 응답자의 반이 유사한 행동에 참가하고 있다하더라도 남미와 아프리카 도서관에 더 쉽게 찾을 수 있다.

As can be imagined, a wide variety of programmes were operating throughout the library community (exhibitions, poster displays but also book displays and leaflet dispensers - as the most popular activity). Libraries in some countries arranged more in-depth activities to publicise the subject (discussion sessions and workshops, hosted lectures and set up of websites).

상상할 수 있듯이, 다양한 프로그램이 도서관 커뮤니티 전체에서 운영되었다(exhibitions, poster displays but also book displays and leaflet dispensers). 어떤 나라의 도서관에서는 심층적인 활동을 마련하여 그 주제를 공론화시켰다(discussion sessions and workshops, hosted lectures and set up of websites).

Partnerships with health authorities and local organizations were also a common way to raise awareness of HIV/AIDS, and in some cases also with international bodies such as the World Health Organisation and the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or with health libraries in developing countries for educational and supportive purposes.

보건당국과 지방조직, 어떤 경우에는 국제기구인 the World Health Organisation과 the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또는 교육과 지원 목적으로 개발도상국에 건강 도서관과의 동반관계 또한 HIV/AIDS의 경각심을 일깨우는 공동의 방법이었다.

About 33% of the responding countries reported they supplied information to members of their community unable to read but results showed that there were fewer efforts on behalf of illiterate people. African libraries were the leaders in this area, and 9 out of the 17 respondents to the questionnaire had created, or partnered with, broad-based efforts to ensure that no member of the community is deprived of information on HIV/AIDS. The World Report 2005 concluded that there was plenty of room for increased action on behalf of libraries in this area.

응답국가의 약 33%가 자신들이 자신들의 커뮤니티에서 읽을 수 없는 회원에게 정보를 공급했다고 보고하였으나, 결과에서 나타난 것은 문맹자를 위한 노력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아프리카 도서관은 이 분야의 리더이다. 설문지에 응답한 17개의 도서관 중에서 9 곳이 커뮤니티의 어떠한 회원은 HIV/AIDS에 대한 정보에 소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폭넓은 노력을 시작했거나 동반하였다. World Report 2005에서는 이러한 지역에 있는 도서관을 위하여 할 수 있는



많은 행동의 여지가 있다고 결론지었다.

### Canon of society

The introduction to this year's Theme Report, mention some of the problems libraries and information services can also help overcome such as the religious and cultural barriers that may hinder free access to HIV/AIDS information in some communities.

금년의 Theme Report의 서론에서 몇 가지 문제를 언급하였으며, 도서관과 정보서비스기관 역시 어떤 커뮤니티에서 HIV/AIDS 정보로의 자유로운 접근이 방해받을 수도 있는 종교적 그리고 문화적 장애물과 같은 것을 극복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These problems are discussed by Yasuyo Inoue who identifies religious beliefs and “the canon idea of the Asian community” as some of the reasons why parts of society ignore the demand for provision and dissemination of information about various aspects of the disease. Community groups, e.g. elderly members of the local communities and parents oppose safe-sex education in schools and availability of information material at school and public libraries.

이러한 문제는 사회의 여러 부분들이 질병에 대한 여러 가지 견해에 대한 정보의 제공 및 보급에 대한 요구를 무시하는 이유로서 “아시아 커뮤니티의 종교법적 아이디어”와 종교적 믿음을 규명한 Yasuyo Inoue에 의해 논의되었다. 커뮤니티 집단, 예를 들어 로컬 커뮤니티의 중년 회원과 부모들은 재학 중 안전한 섹스 교육과 수업 중 정보자료와 도서관의 이용을 반대하고 있다.

Other, and equally important, barriers are the lack of information in local languages and to people unable to read. Kendra Albright refers to Sturges and Neill when indicating that most of the international publishers are reluctant to invest in African publishing thus creating a situation where

“...many informational materials on HIV/AIDS that are distributed in Sub-Saharan Africa do not originate there and may not be as culturally appropriate or effective as those that could be developed by Africans.” (Albright:34)

똑같이 중요한 또다른 장애물은 로컬 언어로 된 정보의 부족과 문맹자이다. Kendra Albright는 대부분의 국제적 출판사가 마지못해 다음과 같은 상황을 만들기 위하여 아프리카 출판업에 투자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할 때 Sturges와 Neill에게 말했다.

“남부사하라 아프리카 지역에 보급된 HIV/AIDS에 관한 많은 정보자료는 그곳을 목표로 한 것이 아니며 아프리카 사람에 의해 개발될 수 있는 정보만큼 문화적으로 적합하거나 효과적이지 못할 수 있다.”

## Opportunities of libraries

Authors discuss the possible reasons why libraries and library professionals may not engage in the provision and dissemination of information about the various aspects of HIV/AIDS. Some of the reasons mentioned are little, or no recognition, and perception by the relevant agents with regard to the potentially crucial role of libraries and librarians

저자들은 왜 도서관과 도서관전문가가 HIV/AIDS에 대한 여러 가지 견해에 대한 정보의 제공과 배급에 참여하지 않으려는 잠재적 이유에 대하여 논의하고 있다. 그 이유 중 어떤 것은 도서관과 사서의 잠재적 중요한 역할과 관련해서 관계기관에 의해 거의 또는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Libraries and information professionals stand to be key participants in this fight against HIV/AIDS, yet libraries are not perceived to be important components in the prevention of HIV/AIDS transmission.” (Albright:29)

“도서관과 사서는 HIV/AIDS의 싸움에 중요한 참여자이며, 아직 도서관은 HIV/AIDS의 확산을 막는데 중요한 구성요소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Funding is also scarce because of the poor perception of libraries in these countries. Libraries are not seen as vital to the solution of critical problems such as the prevention of HIV/AIDS. Therefore, libraries cannot compete for government funding with something that appears more critical such as agriculture or health care.” (Albright:34)

“기금 역시 부족한데 그 이유는 이들 국가에서 도서관에 대한 인식이 빈약하기 때문이다. 도서관은 HIV/AIDS의 예방과 같은 중요한 문제의 해결에 중요한 것으로 여겨지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도서관은 농업이나 건강관리와 같은 보다 중요한 분야로 여겨지지 것들과 정부 기금을 놓고 경쟁할 수 없다.”

In this context Garibashvili regrets the opportunities Georgian libraries missed for their further involvement in the national strategic planning process on the fight against HIV/AIDS. With reference to the report “Low awareness on HIV/AIDS transmission increases the risk of AIDS patients’ discrimination” he states

이런 맥락에서, Garibashvili는 그루지아 도서관이 HIV/AIDS와의 싸움에 관하여 국가의 전략적 계획수립과정에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것을 안타깝게 여기고 있다. 보고서 “Low awareness on HIV/AIDS transmission increases the risk of AIDS patients’ discrimination. : HIV/AIDS의 확산에 대한 낮은 경각심이 AIDS 환자의 차별이란 위험을 증가시키고 있다.”를 참고하여, 그가 주장하길,

“libraries should cease this opportunity to draw not only attention to the fact that they can play a much more important role in this specific matter; but also to create a better understanding among relevant decision makers of the professional

competences and qualities of libraries and of the librarians working there.” (Garibashvili: 140)

“도서관은 이러한 특별한 일에 더많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사실만으로 단지 관심을 끌려고 하는,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일하는 도서관과 사서의 질과 전문적 유능성에 대해 관련된 의사결정자 사이에서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이런 기회는 그만 두어야 한다.

Another barrier for involvement is lack of knowledge; the disease is said to cause fear amongst librarians, and also anxiety regarding user privacy issues

개입에 대한 또다른 장애는 지식의 부족이다; 이 질병은 사서들간에는 공포를, 그리고 이용자의 사생활 이슈와 관련해서는 걱정을 유발한다고 한다.

“In the dissemination of health information, privacy becomes an important issue since it is likely that persons may wish to access this information without exposing their interest in the subject. The patron may fear that it would be perceived that they might have the disease or condition.” […]

“보건정보의 보급에 있어서, 프라이버시는 중요한 이슈가 되었는데, 그 이유는 사람들이 어떤 주제에 대하여 자신들의 관심을 노출시키지 않고 이러한 정보에 접근하기를 바라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이다. 이용자는 그들이 질병이나 조건을 가질 수도 있다는 것이 알려질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하여 두려워할 수도 있다.”

“The library therefore has a particular challenge and responsibility in providing such information in a discreet manner if this is what is needed. There is a challenge to library staff as well, since they are likely to be working in a context in which sexual behaviour is still discussed with relative unease.” (Lewis et al.:76)

“도서관은 그러므로 만일 이것이 필요로 하는 그 것이라면, 확고한 방법으로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책임이 있으며 특별한 도전을 받고 있다. 성적 행위가 현실적으로 비교적 쉽지 않게 논의되는 상황에서 일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것은 도서관 스텝에게도 도전이다.”

Therefore libraries and their staffs should recognize the opportunities they have, and identify the barriers and challenges connected with their engagement in HIV/AIDS activities and dissemination of information.

그러므로 도서관과 스텝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회를 인식해야만 하며 HIV/AIDS 활동과 정보의 보급에 자신들이 참여하는데 따르는 장애와 도전을 규명해야 한다.

“Their role, however, is constrained by a number of factors which impede their involvement in IEC activities. These constraints must be examined and understood within the context of the societies they serve in order to fully exploit their contribution to the prevention of HIV/AIDS.” (Albright:30) Albright, however, concludes “By taking a lead in HIV/AIDS information efforts, LIS professionals

have a unique opportunity to establish and build their visibility, contribution, and establishment as a recognised, respected profession.” (Albright:40)

“그렇지만 그들의 역할은 IEC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방해하는 많은 요소에 의해 제한을 받고 있다. HIV/AIDS 예방에 대한 자신들의 기여를 충분히 알리기 위하여 그들이 봉사하는 사회의 분위기에서 이러한 문제점들이 조사되고 이해되어야 한다.” (Albright:30) Albright는 그렇지만, 다음과 같이 결론지었다. “ HIV/AIDS information efforts에서 선두를 달림으로써, LIS 전문가들은 하나의 인정받고 존경받는 직업으로 자신들의 선명성, 공헌, 그리고 시설을 확립하고 설립하는 유일한 기회를 갖고 있다.”

### Urban vs. rural areas

The advantages of serving urban communities compared to rural are stressed. In relation to all three topics of this report, authors underpin the need to establish partnerships that may be considered a little controversial by some LIS professionals but the importance of tele-centres and other community centres as partners are highlighted. Often, these centres are the only information services rural communities are offered - hence the recommendation of identifying such centres as libraries (Albright: 36).

지방에 비해 도시 커뮤니티에 봉사하는 장점은 강조되었다. 이 보고서에서 모두 3가지 주제와 관련해서, 저자들은 몇몇 LIS 전문가에 의해 약간의 논쟁거리가 될 수도 있는 동반관계의 수립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tele-center와 기타 커뮤니티 센터 간의 동반자로서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종종, 이러한 센터들은 지방커뮤니티에 제공되는 단지 정보서비스기관이다 - 그로 인해 도서관과 같이 그러한 센터를 동일하게 간주할 것을 권고한다.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ICTs) are seen as one of the necessary tools for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provision in rural areas (e.g. HIV/AIDS information); and ICTs are considered to have the potential of reducing the gap between efforts carried out in the urban areas compared to services in rural areas. However, as Pobeas states: “Promotion and prevention actions must not be derailed for lack of access to the Internet.” (Pobeas:85) In this context, it is crucial that libraries and information services, operating in rural areas, realize the specific needs and abilities of their users and adjust their collections and ways of disseminating the inherent information accordingly.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ICTs)는 농촌지역에 정보제공의 발전을 위한 필요한 도구들 중의 하나로 여겨지고 있다 (e.g. HIV/AIDS information); 그리고 ICTs는 농촌지역에서의 서비스와 비교해서 도시지역에서 수행되는 노력들 간의 격차를 줄일 가능성이 있다고 여겨지고 있다. 그렇지만, Pobeas가 주장한 것처럼, “격려와 예방 행동이 인터넷 접근의 부족이라는 이유로 틀어지지 않아야 한다.”(Pobeas:85) 이런 맥락에서, 중요한 것은 도서관과 정보서비스기관은-농촌에서 운영 중인- 자신들의 이용자의 특별한 요구와 능력을 깨달아야 하고 자신들의 장서와 그에 따라 이루어지는 관련정보의 보급 방법을 조정해야만 한다.

## Cooperation and partnerships

By providing appropriate and up to date materials, libraries and information services have the potential to become important collaborators and partners in joint ventures aimed at preventing the spread of HIV/AIDS.

적절하고 최신의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도정은 HIV/AIDS의 확산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연합사업에 중요한 합작자 및 동반자가 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Libraries and librarians are potentially valuable collaborators in HIV/AIDS information, education and communication projects and should champion and demonstrate the role of information as a catalyst for change.” (Lewis et al.:70)

“도서관과 사서는 잠재적으로 HIV/AIDS information, education and communication projects에 가치있는 협력자이며, 변화를 위한 촉매로서 정보의 역할을 옹호하고 보여주어야 한다.

Despite the possible poor perception of libraries in some areas/countries partnerships between libraries and other sources of HIV/AIDS information activities should be established;

어떤 지역/나라에서 도서관에 대한 아마도 빈약한 인식에도 불구하고, 도서관과 HIV/AIDS 정보활동을 하는 다른 기관간의 동반관계가 확립되어야 한다.

“the value of information in HIV/AIDS prevention is well recognised and is increasingly at the centre of policy and funding practices. Partnerships, therefore, could be made with educational institutions and communication organisations.” (Albright:38)

“ HIV/AIDS 예방에 있어서 정보의 가치는 잘 인식되어 있으며 점차적으로 정책과 기금집행의 중심이 되고 있다. 그러므로 동반자 관계는 교육기관 및 통신조직과 맺어야 할 것이다.”

Libraries are recommended to participate in the work of multidisciplinary teams that may operate in their local community; in Cuba these teams are in charge of community-wide work and members are family physicians, psychologists, educators, sexologists, epidemiologists and health promoters. To be part of these teams would make libraries “better understand the surrounding problems and even prepare themselves as health promoters and carry out independent work if necessary.” (Pobea:82)

도서관은 자신들의 로컬 커뮤니티에서 활동할 수도 있는 여러 학문분야로 이루어진 실무팀에 참여하도록 추천되고 있다. 쿠바에서 이러한 팀들은 community-wide work에 책임을 지며 멤버들은 가정의, 심리학자, 교육자, 성학, 역학 그리고 건강관리사들이다.

Libraries should also be able to assist the various groups of people that are concerned with or directly work with HIV/AIDS issues; this way libraries would be better equipped to segmenting their services to patients, relatives, students, professionals, decisionmakers, and NGOs etc. Particularly, the support of NGO activities is highlighted,

도서관은 HIV/AIDS 이슈와 관련있거나 직접적으로 일하고 있는 다양한 집단의 사람들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환자, 친척, 학생, 전문가, 의사결정자, 그리고 NGOs 등에 대한 자신들의 서비스를 세분하는 방식으로 도서관은 보다 잘 준비하여야 할 것이다.

“One constituency that may present a challenge is the NGO community, many members of which do not have library and information centres and to whom services could be provided as a support mechanism for the national effort.” (Lewis et al.:75)

“도전을 제시할 수도 있는 한 후원자는 NGO 커뮤니티이다. 그것의 많은 멤버들은 도서관이나 정보센터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그들을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하나의 지원 메카니즘으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다.”

The overall message in regard to the role of libraries is that they “serve not only as an information clearinghouse on HIV/AIDS but also local community needs.” (Albright:36)

도서관의 역할에 관한 전반적인 메시지는 그들이 “HIV/AIDS에 관한 an information clearinghouse로서 뿐만 아니라 로컬 커뮤니티의 요구에 봉사한다”는 것이다.

### **Different groups - different information needs**

The local needs and contexts should, as always, be taken in to account when selecting and assessing information materials on HIV/AIDS such as the following factors,

로컬 요구와 맥락은 다음과 같은 요소로서 HIV/AIDS에 간헐 정보자료를 선택하고 평가할 때 늘 고려해야 한다.

“the types of literacy in their users, especially the oral tradition. Information that is current and accurate is vital to the users of the resource centre. Efforts should be made to verify the source of materials for authoritativeness and timeliness. Materials should also be available in the local language(s) of the users and should be translated if necessary.”(Albright:36)

“이용자의 학식 유형 특히 구술전통. 최신의 그리고 정확한 정보는 자원센터의 이용자에게 중요하다. 적법성과 적시성을 가지고 자료의 정보원을 검증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자료는 또한 이용자의 로컬 언어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필요하다면 번역되어야 한다.”

Thus the Internet is not always the best answer:

따라서 인터넷이 항상 최상의 해답은 아니다:

“It must be remembered that the Internet is a recent rapidly expanding phenomenon that has extraordinary impact on the development of today’s world. It grew up under the myth of democratisation of knowledge, information and technologies worldwide, but in reality, the figures prove that the world is still very far away from accomplishing this objective.” (Pobea:85)

“기억해야만 하는 것은 인터넷이 오늘날 세상의 발전에 지나치게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최근 급속하게 확대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전 세계적으로 지식, 정보, 기술의 민주화라는 신화에 힘입어 성장하였다. 그러나 현실에서 수치에 의해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는 것과는 아직 매우 거리가 멀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 **Role of the media**

The role of the media is debated both for their positive and negative effects. Ideally, the media should operate as agents for education and information of the public. “Information also helps to fight the stigma associated with HIV/AIDS. Relevant and accurate information helps to reduce fears, increase awareness and compassion, and change behaviours leading to increased risk of exposure to HIV and infection.” (Albright:35)

미디어의 역할에 대한 긍정적 그리고 부정적 효과가 논의되고 있다. 이상적으로, 미디어는 공공의 교육 및 정보 기공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정보 또한 HIV/AIDS와 결부된 오명과 싸우는데 도움이 된다. 적절하고 정확한 정보는 공포를 줄이고, 경각심과 동정심을 높이고, HIV와 감염에 대한 노출의 위험을 이끌고 있는 행위를 변화시키는데 도움이 된다. ”

However, discussing the role of the Georgian mass media Garibashvili indicates that, regrettably their main focus is sensation mongering and they therefore contribute to the misinformation about the disease and “provide information in a way that, causes panic in society This does not help people avoid the infection but instead puts those infected with HIV in an extremely isolated condition.” (Garibashvili:139)

그렇지만, 그루지아의 매스미디어의 역할을 논의하면서, Garibashvili가 지적한 것은 유감스럽게도 그것들의 주요 관심은 센세이션을 파는 것이며, 따라서 그들은 그 질병에 대한 그릇된 정보를 확산시키며 “사회에 패닉을 유발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한다. 이것은 감염을 피하도록 사람을 돕는 것이 아니라 그 대신에 극단적으로 고립된 조건에서 사람들을 HIV에 감염되도록 하는 것이다.

### **Information as a means to reduce poverty**

“The reduction of poverty is more than a process to find resources, it is also a process of increasing liberties, possibilities of conscious choices, accessibility to information and not only to the use of it but to be able to transform it” (Chaidez 2005)

“빈곤의 축소는 자원을 찾는 과정 그 이상이다. 그것은 또한 자유, 의식적 선택의 가능성, 정보의 접근성 그리고 그것의 사용 가능성 뿐만 아니라 그것을 변형할 수 있는 가능성까지를 높이는 과정이다.”

### Information technologies

Equal participation in the knowledge and information society is seen not only as a means to overcome barriers such as the digital divide; but also as a means to reduce poverty. However, discussing the role of ICTS Gulati and Riley state:

지식과 정보사회의 동등한 참여는 디지털 격차와 같은 장애물을 극복하는 하나의 수단일 뿐만 아니라 빈곤을 퇴치하는 하나의 수단이다. 그렇지만, ICTS의 역할을 논의하면서, Gulati와 Riley가 주장하길:

“The idea of an information system that can reach the most remote and marginalized populations of the world’s poorest nations has captured the imagination of proponents worldwid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ICT), the electronic means of capturing, processing, storing, and communication, has been touted as the latest in a long history of panaceas that will help those without the most basic resources of the modern world to improve their livelihoods. The idea of

ICT4D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for Development, ed.] is based primarily on the extension of the Internet (although other forms of ICT exist).” (Gulati/Riley:50)

“세상의 가장 가난한 나라에 있는 가장 멀리 그리고 소수의 사람들에게 도달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에 대한 아이디어는 전세계적으로 지지자들의 상상력을 끌었다; 정보통신기술(ICT), 수집, 저장, 처리의 전자적 수단,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은 자신들의 생활을 개선하기 위하여 현대 세계의 가장 기본적인 자원없이 이들을 도울 수 있는 만병통치약의 오랜 역사에서 가장 최신의 것으로 언급되고 있다. ICT4D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for Development]의 아이디어는 일차적으로 인터넷의 확산을 근거로 하고 있다(비록 다른 형태의 ICT가 존재하더라도).”

It is well-established that major problems such as lack of electricity supply and the huge costs of the introduction and application of the Internet in developing countries form a solid barrier between those who can access digital information and those who cannot - leaving millions of people deprived of information.

잘 마련된 것은 개발도상국에서 전기공급의 부족 그리고 인터넷의 도입과 이용에 따르는 막대한 비용과 같은 중요한 문제는 디지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 간



에 견고한 장애물을 형성하고 있다 - 수백만명의 사람이 정보 혜택을 받지 못한 채로 남아 있다.

Ocholla indicates yet another barrier concerning the implementation of information systems in libraries in the African region,” We are thrilled with the information service capacities of modern information systems but apathetic with regard to their development and maintenance.” (Ocholla:18)

Ocholla는 아프리카 지역의 도서관에서 정보시스템의 실행과 관련된 또 다른 장애물을 지적하고 있다, “우리는 현대 정보시스템의 정보서비스 용량에 대해 전율을 느끼지만, 그것들의 발전 및 유지와 관련해서는 무관심하다.”

Other economic barriers also exist as Gulati and Riley point out  
다른 경제적 장애 역시 존재하며, Gulati와 Riley가 지적하고 있다:

“the inability of large numbers of people to afford the hardware, make use of the software; and trust the content that has been designed and written by people who have little or no knowledge of the circumstances of the users, can one justify further experimentation with ICT4D?”

“하드웨어를 살 수 있는 여력이 있고,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는; 그리고 이용자 환경에 대한 어떠한 지식도 없거나 조금만 있는 사람에 의해 디자인되고 기록된 콘텐츠에 대한 신뢰성에 관한 불가능성, 누가 ICT4D의 추가 실험을 정당하다고 할 수 있는가?”

They also query the efficacy referring to critics of ICT4D who have pointed out that “the rural poor need proper nutrition and health care more than they do laptops and Internet connectivity.”

그들은 또한 “농촌의 빈자는 랩톱과 인터넷 접속을 하는 것보다 더 많은 적합한 영양물(음식물)과 보건을 필요로 하고 있다”고 지적한 ICT4D의 비평가에 관한 효력에 의문을 품고 있다.

However, they conclude that we cannot allow the digital divide to grow unchecked, and suggest ways to overcome these problems by focussing on the needs of the individual community user; provide relevant information that can be recognized and understood by all; making ICTs more user-friendly (local languages, alternative non-text based approach for illiterate users); and insuring access for all members of the community a price affordable for all. These actions being implemented and in concert with the government and non-profit organisations, libraries would be ideal providers of ICTs as part of their mission to provide information for their communities.

그렇지만, 그들은 디지털 격차가 아무런 체크도 없이 성장하도록 허용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리고, 각 커뮤니티의 이용자의 요구에 초점을 맞추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는; 누구나 이해하고 인식할 수 있는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는; ICTs를 더욱 이용자-친숙하게(로컬 언어, 문맹자를 위한 대안적이고 비텍스트적인 접근방법) 만드는; 그리고 커뮤니티의 모든 회원에게

모두에게 합당한 가격으로 접근을 보장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행동들이 실행되고 정부와 비영리기관과 함께 이루어짐으로써, 도서관들은 자신들의 커뮤니티를 위해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자신들의 임무의 일부이므로 ICTs의 이상적인 공급자가 될 수 있다.

The Internet is a “network of exchange” and thus it allows “many-to-many” communication - an advantage compared to other forms of information exchange that are essentially “one-to-one” (telephony) or “one-to-many” technologies (broadcasting and television). “The Internet, therefore, has the potential to promote (or inhibit) the nature of interactions in the public sphere. This, in itself, has the capability of significantly altering human relations; however, the proponents of ICT4D envision a more ambitious role for the new technologies.” (Gulati/Riley:50)

인터넷은 “교환 네트워크”이며 따라서 그것은 “one-to-one”(전화) 또는 “one-to-many”기술(방송과 텔레비전)이 필수적인 정보교환의 다른 형태와 비교해서 장점인 “many-to-many” 커뮤니케이션이다. “인터넷은 그러므로 공공분야의 상호작용이란 본성을 장려하는(또는 억제하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그 스스로 인간관계를 분명하게 바꾸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렇지만, ICT4D의 지지자들은 새로운 기술을 위해 더 많은 야심적 역할을 구상하고 있다.”

With their specific knowledge of the local communities in which they serve, there is no doubt that telecentres and other communication and community centres are recognized as important partners for libraries in their struggle to safeguard equal access to the Internet as a means to help reduce poverty. The role of the Tele-centres is defined by Dagron in 2001 “telecentres should be a modern version of public libraries, with an additional outreach communication component that transforms the former individual relationship between the library and the user, into a collective process involving the community. One of the main thrusts of libraries and telecentres is to open the world of information and knowledge to the communities, with the advantage that telecentres can tailor the information to community needs. From the point of view of sustainability, community telecentres should be treated as public libraries.” (Gulati/Riley:52)

우리가 봉사하고 있는 로컬 커뮤니티의 특별한 지식과 함께, 의심할 여지없이 텔리센터와 기타 커뮤니케이션 및 커뮤니티 센터들은 빈곤을 감소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수단으로 인터넷의 평등한 접근을 보장하려 자신들의 싸움에서 도서관을 중요한 파트너로 인식하고 있다. 텔리센터의 역할은 2001년 Dagron에 의해 정의되었다. “텔리센터는 도서관과 이용자 간의 과거의 관계를 커뮤니티가 참여하는 공동의 과정으로 변형시키는 어떤 추가적인 원격접근 커뮤니케이션 구성요소를 갖고 있는 공공도서관의 현대 버전이어야 한다. 도서관과 텔리센터에 대한 주요한 추진력(혹평) 중의 하나는 텔리센터가 커뮤니티의 요구에 정보를 맞춤화할 수 있다는 장점과 함께 커뮤니티에 정보와 지식의 세계를 개방한다는 것이다. 지속가능성의 입장에서, 커뮤니티 텔리센터는 공공도서관으로 대접받아야 한다.” (Gulati/Riley:52)

## Role of libraries

In his article Musino refers to Silvia C. Vattimo (2004:1): "Among the obstacles to foster reading habits is poverty, stopping people of accessing books, schools, and libraries." Musino argues, "If reading is considered unfamiliar or distant from the immediate context of family or social activities for the majority of the poor, how can we expect access and use of information to become an important factor in the reduction of poverty?"(Musino:92)

Musino는 자신의 글에서 Silvia C. Vattimo(2004: 1)를 언급하고 있다: "사람들이 책, 학교, 그리고 도서관으로 접근하는 것을 막음으로써, 가난은 독서습관을 기르는데 있어 하나의 장애물이다." Musino가 주장하길, "독서가 대다수의 빈자들을 위한 가족 또는 사회적 활동의 분위기와 동떨어져 있다면, 어떻게 우리가 빈곤퇴치에 중요한 요소가 되는 정보의 이용과 접근을 기대할 수 있을까?"

The question is what libraries can do to position themselves and which activities they should engage in. Riley and Gulati recommend policies that address and recognize the role of libraries be developed, and to implement a practical and workable public information policy in libraries. They also stress that information technologies do not automatically help society fight poverty; as was the case regarding the dissemination of HIV/AIDS information - technology implementation has to take the specific context of local areas, regions and countries into account. 의문스러운 것은 도서관 스스로 자리를 잡기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활동에 자신들이 참여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다. Riley와 Gulati는 개발해야할 도서관의 역할을 인식하여 초점을 맞추고 도서관에서 실무적이고 작업 가능한 공공정보정책을 실행할 수 있는 정책을 추천하였다. 그들은 또한 HIV/AIDS 정보의 보급과 관련된 경우에서처럼 정보기술이 빈곤과 싸우는 사회를 자동적으로 돕지는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술의 실행은 로컬 지역, 지방 그리고 국가라는 특수한 환경을 고려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The authors agree that, libraries cannot solely rely on established and conventional competences. Librarians and information professionals must recognize their full potential and constantly seek to evaluate and adapt the scope of their work and commitments. One way they can position themselves is to influence those in charge of political decision-making processes advocating the role of libraries as potential agents of social improvement and economic equity. Another is to invite politicians, and representatives of the civic and institutional sectors to participate in library circuits.

저자들이 동의하고 있는 것은 도서관이 기존의 그리고 전통적인 능력에만 의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사서와 정보전문가는 자신들의 충분한 잠재력을 깨달아야 하며 지속적으로 자신들의 업무 영역과 책임에 적응하면서 평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들 스스로 자리를 매김하는 한 가지 방법은 사회발전과 경제적 공평을 위한 잠재적 기관으로 도서관의 역할을 지지하는 정치적 의사결정에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이다. 또 다른 방법은 도서관 circuits에 참여하도록 정치인, 시민대표, 그리고 공공기관 사람들을 초청하는 것이다.

On the practical level, libraries should take more active part in the communities they serve. In this context a barrier that may hinder a successful result is their image within society and the impact of their services. As referred by Musino, a Mexican survey showed that over 80% of those interviewed never visited a library (Musino:92) and he also discusses the possible reasons why children and young people do not visit libraries - one explanation could be "that they only consider public libraries as places where one does one's homework." (Musino:92)

실무적 차원에서, 도서관은 그들이 봉사하는 커뮤니티에 더 많은 활발하게 참여하여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방해할 수 있는 장애물은 사회 속에서 자신들의 이미지와 자신들의 서비스에 대한 영향력이다. Musino가 말한 것처럼, 한 멕시코 조사에서 인터뷰한 사람의 80%이상이 도서관을 결코 방문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것이 가능한 이유로 어린이와 청년이 도서관을 방문하지 않기 때문이다. - 한 가지 설명한 것을 보면, "그들은 단지 공공도서관을 누군가 자신의 숙제를 하는 장소로만 여기고 있다."는 것이다.

Ocholla is particularly concerned about the marginalized communities, "Unfortunately, libraries have not been able to reach communities deprived of information largely because they were not designed for these communities, and until now, lack sensitivity toward the information requirements of these groups, regardless of how much they try." (Ocholla:18)

Ocholla는 특히 소외계층 커뮤니티에 대해 관심을 가졌다. "불행하게도, 도서관은 그들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야 하는지와 상관없이 지금까지 정보소외 집단의 정보요구에 대한 감각의 부족과 그 같은 커뮤니티를 위해 특별히 디자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보혜택을 받지 못하는 커뮤니티에 도달할 수 없었다."

He states that the existing libraries do not always fulfil their mission and role in society and "Worse still, they are irrelevant to communities where libraries do not reach most people." (Ocholla:20)

그가 주장하길 기존의 도서관은 사회에 대한 자신들의 임무와 역할을 완전하게 수행하지 않고 있으며, "현재까지 더 안 좋은 것은, 그것들이 도서관이 대부분의 사람에게 도달할 수 없는 커뮤니티에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To make libraries and their services relevant and used by the public, the provision of information should be an integrated part of community activities - hence the point of cooperation between libraries and local community centres made by the authors.

도서관과 그것들의 서비스를 대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하기 위하여, 정보의 제공은 커뮤니티 활동의 종합판 이어야 한다 - 그러므로 도서관과 로컬 커뮤니티 센터간의 협력에 대해 저자들이 강조하고 있다.

They suggest such activities and projects may take form of literacy training,

reading promotion, adult education and other more informal educational initiatives, community information services within public libraries, ICT access and use of wireless technology, and recreational activities such as drama and dancing. Some of these activities “should coincide with poverty alleviation and a general literacy campaign. Suffice to say that a new model for information access to marginalized and deprived persons should be considered within the outlined framework.” (Ocholla:26)

그들은 그러한 활동과 프로젝트가 교양교육, 독서증진, 성인교육, 그리고 기타 더 많은 비공식적 교육계획, 공공도서관에서의 커뮤니티 정보봉사, ICT 접근과 무선기술의 이용, 그리고 드라마와 댄싱 같은 여가활동을 위해 수행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 중에서 어떤 것은 “빈곤퇴치와 일반교양 캠페인과 일치하여야 한다. 강조해야 하는 것은 소외계층 및 비혜택 계층의 사람을 위한 정보접근의 새 모델은 분명하게 설정된 기본틀내에서 고려되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The selection of materials should also take the specific needs of the local community into consideration; particularly focus should be on materials for those unable to read, e.g. audio-visual materials, and materials in local languages.

자료의 선택 또한 로컬 커뮤니티의 특별한 요구를 고려해야만 한다; 특히 그것의 초점은 읽지 못하는 사람용 자료에 맞춰져야 한다. 예를 들어 시청각 자료 및 방언으로 된 자료.

Ocholla summarize the role of libraries,

“Essentially, the library’s role is to inform, entertain, enlighten, educate, empower and equip individuals and communities with tools enabling better life orientation, enabling communities to recognize their rights and responsibilities in society, and fulfil their social roles both knowingly and responsibly.” (Ocholla:19)

Ocholla는 도서관의 역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다:

“본질적으로, 도서관의 역할은 개인과 커뮤니티가 보다 나은 삶의 목표를 향할 수 있는, 그리고 커뮤니티가 사회에서 자신들의 권리와 책임을 인식시킬 수 있고 지식과 책임 두 가지 모두에서 자신들의 사회적 역할을 충분히 실행할 수 있도록 개인과 커뮤니티에 알리고, 즐겁게 하고, 계몽시키고, 교육시키고, 능력을 키우고, 그리고 도구를 갖추도록 하는 것이다.”

### **Corruption, transparency and the role of libraries**

“The potential of ICT for transparent delivery of public services and a consequent limitation of the scope for corruption exists. The challenge is to take the ideas and comparatively tentative beginnings into countries with a variety of different circumstances and find ways of inserting them effectively into corrupt and hostile, or merely indifferent and apathetic, service provision environments.” (Paul Sturges: Corruption, transparency and the role for ICTs)

“공공서비스의 투명한 전달을 ICT의 잠재력과 그 결과로 인한 부패 규모의 제한이 존재한

다. 도전은 서로 다른 환경을 가진 나라에서 그 아이디어와 비교적 시험적인 시작을 취해서 그것들을 부패와 적개심 속에 효과적으로 끼어넣는 방법을 찾는 것이다.”

### Culture of transparency

Authors addressing the issue of corruption agree that the best weapon against it is a well-informed society and the development of a culture of transparency. Garibashvili argues the need of citizens' active participation in this process; they have to become aware of the specific corruption schemes in their country. He also points out that in a society where corruption is wide-spread the population is involved, or passively supports, corruption; “In the society, where corruption penetrates all spheres of social, political and economic life, every citizen, intentionally or unintentionally, directly or indirectly, is involved in or promotes operations of corruption schemes.” (Garibashvili:142) The solution is information because only well-informed citizens can identify corrupt actions and thus protect themselves and society from corruption penetrating all levels of society. Therefore, “libraries can play a huge role to educate population by the dissemination of information on corruption and related topics including legislation.” (Garibashvili:142)

부패의 이슈를 다루고 있는 저자들이 동의하는 것은 그것과 싸우는 최상의 무기는 박식한 사회이며 투명성 문화의 발전이다. Garibashvili는 이러한 과정에서의 시민의 적극적 참여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그들은 자신의 나라에 있는 특수한 부패 개요에 대하여 깨닫고 있어야만 한다. 그는 또한 지적하길 부패가 보편화된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부패에 관여하거나 수동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부패가 사회적, 정치적, 그리고 경제적 삶에 전방위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사회에서, 모든 시민은 고의적이든 아니든,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부패의 일정표에 참여하고 있거나 그 활동을 촉진시키고 있다.”(Garibashvili:142) 그 해결책은 정보인데, 그 이유는 단지 박식한 시민만이 부패행위를 판단할 수 있으므로 사회의 모든 계층에 영향을 끼치는 부패로부터 자신과 사회를 보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도서관은 법률을 포함하여 부패 및 관련 주제에 관한 정보를 보급함으로써 주민을 교육시키는 커다란 역할을 할 수 있다.” (Garibashvili:142)

### Role of libraries eliminating corruption

In his article Corzo further identify the role of libraries:

*“Libraries should develop a culture of transparency built on solid democratic principles and actions; a culture that not only oppose but rejects corruption.”* (Corzo:105-106) To support the advancement of a culture of transparency freedom of information legislation is considered an important step. However, Corzo states that, it is not enough to agree that access to public information be a priority or to pass formal legislation;

“In Mexico, it is expected that access to information and transparency are two vital factors in the control of corruption but, if few resources are allocated or the work is built on a weak structure, then the fight against corruption will take a very long time.” (Corzo:106)

Corzo는 자신의 글에서 도서관의 역할을 추가로 규정하고 있다:

“도서관은 확고한 민주적 원칙과 행동을 근거로 투명성 문화를 발전시켜야 한다; 그 문화는 단지 부패를 반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배척해야 한다.”(Corzo:105-106) 투명성 문화의 발전을 지지하기 위하여, 정보자유법 법률은 중요한 조치로 고려되어야 한다. 그렇지만, Corzo는 공공정보의 접근이 우선되어야 한다거나 공식적 법률로 통과되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멕시코에서, 정보의 접근과 투명성은 부패를 통제하는 두가지 중요한 요소라고 기대하고 있지만, 재원이 거의 할당되지 않거나 그 작업이 허약한 토대위에서 진행된다면, 부패와의 싸움은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Corzo:106)

Corzo also identifies nine new responsibilities and focus points for library professionals and the management of libraries (Corzo:105-106). Corzo's recommendations relate to: advancement of transparency and fight against corruption to become part of the commitment of library professionals; identification of a new role of libraries as agents of changes - and in this connection to make use of international declarations to support this process, e.g. the IFLA “Glasgow Declaration and on Libraries, Information Services and Intellectual Freedom” and “Alexandria Manifesto on Libraries, the Information Society in Action”; the work of libraries to be adapted the constant changes in society; establishment of a relation between society and economy of knowledge in which practices of corruption can not emerge or grow roots; and information units to become institutions participating in present and future democratic performances preserving information and knowledge.

Corzo는 또한 도서관 전문가와 도서관 관리를 위한 9가지의 새로운 책임과 중요한 요소를 밝혔따. Corzo의 권고사항은 다음과 관련되어 있다: 투명성과 부패와의 싸움을 발전시키는 것은 도서관 전문가의 책임의 일부분이다; 변화의 기관으로서 도서관의 새 역할에 대한 규명 - 이러한 관계로 이런 과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제적 선언서를 이용하기, 예를 들어, the IFLA “Glasgow Declaration and on Libraries, Information Services and Intellectual Freedom” 그리고 “Alexandria Manifesto on Libraries, the Information Society in Action.”; 사회 속에서 끊임없는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도서관의 업무; 부패작업이 나타나거나 성장할 수 없는 사회와 지식경제 사이의 관계의 수립; 그리고 정보와 지식을 보존하는 현재와 미래의 민주적 행위에 참여하는 기관이 되기 위한 정보 개체.

While Corzo primarily concentrates on changes of what we could call the mindset of libraries and library professionals, Garibashvili presents some concrete activities for libraries to engage in to eliminate corruption. Recognizing the important anti-corruption activities of national and international NGOs and organizations, he

calls for cooperation between libraries and such bodies; he also recommends library activities to include lectures given by public leaders; public discussions on corruption, citizenship, human rights, trafficking, money laundering, trans-national crime and other hot issues; and analysis of success stories on the fight against corruption in other countries. Further he suggests training workshops on legislative issues; development of reading lists; and special displays of articles, posters and cartoons.

Corzo가 기본적으로 도서관과 도서관전문가의 소위 정신상태(mindset)라는 것에 대한 변화에 초점을 맞춘 반면에, Garibashvili는 도서관을 위하여 부패를 줄이는데 참여할 수 있는 몇 가지 확고한 활동을 제시하고 있다. 국내적 그리고 국제적 NGOs와 조직의 중요한 반부패활동을 인식하여, 그는 도서관과 그러한 조직간의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그는 또한 도서관 활동으로 공공의 리더에 의해 실시되는 강연에 참여할 것을 추천하고 있다; 부패, 시민권, 인권, 부정거래, 돈세탁, 국제범죄 그리고 기타 뜨거운 이슈에 대한 공개적 논의; 다른 나라에서 부패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이야기의 분석. 추가적으로 법률 이슈에 대한 교육 워크숍; 독서 리스트의 개발; 그리고 기사, 포스터 및 만화에 대한 특별한 전시를 제안하고 있다.

### **Future challenges of libraries**

The most important messages the authors bring are that, libraries do indeed have a commitment to engage in the fight against HIV/AIDS, poverty and corruption; and information access and dissemination is a crucial factor in this fight. Information is the only vaccine that helps prevent the spread of HIV/AIDS; literacy is fundamental to the advancement of peoples' lives, and transparency and access to information are vital factors in the control of corruption. Thus by facilitating freedom of access to information libraries contribute to making the world more equal.

저자들이 전달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도서관이 정말로 HIV/AIDS, 가난, 부패에 맞서는 싸움에 참가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정보 접근과 보급은 이러한 싸움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이다. 정보는 HIV/AIDS의 확산을 막는데 도움을 주는 유일한 백신이다. 교양은 사람들의 삶을 발전시키는데 기본적인 것이며, 투명성과 정보의 접근은 부패를 통제하는 중요한 요소들이다. 그러므로 정보로의 접근의 자유를 원활하게 함으로써, 도서관은 세상을 좀더 평등하게 만드는데 기여하고 있다.

To effectively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their countries and local communities - particularly in rural areas - libraries and information services should recognize their full potential; re-define their role and review their practices to become agents for social and democratic changes. Therefore libraries must become visible by influencing the development process of their country and by engaging in partnerships and cooperation projects within their local community. In other words, to become important factors that have the capability to participate in



the development process, libraries must engage in advocacy and provide results and success stories; only this way they can be regarded as equal and essential partners by society.

자신들의 나라와 로컬 커뮤니티의 발전에 효과적으로 기여하기 위하여, 특히 농촌지역에서, 도서관과 정보서비스기관은 자신들의 충분한 잠재력을 인식하여야 한다; 자신들의 역할을 재정의하고 자신들의 업무를 검토하여 사회적 및 민주적 변화의 기관이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도서관은 자신들의 나라의 발전에 영향을 끼치고 자신들의 로컬 커뮤니티에서 동반자관계로 그리고 협력 프로젝트에 참가함으로써 주목을 받아야 한다. 다른 말로 해서, 발전과정에 참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중요한 요소가 되기 위하여, 도서관은 지지활동에 참가하여야 하고 결과와 성공 스토리를 제공하여야 한다; 단지 이러한 방법만이 사회에 의해 동등하고 필수적인 동반자로서 간주될 수 있다.

The international library community can help colleagues in the process of making libraries better equipped to meet these challenges. The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of IFLA policies and declarations provide the mindset and help advocate the role and potential of library services. IFLA's focus on HIV/AIDS at the WLIC in Durban in 2007 and the IFLA/FAIFE World Report Series help support national and local initiatives by discussing and reporting on the state of affairs also in regard to poverty and corruption. International support of local workshops addressing the three themes of this report is also a concrete contribution to raise awareness locally as well as internationally.

국제적 도서관 커뮤니티가 이러한 도전에 직면하여 도서관이 보다 잘 준비를 갖추 수 있도록 하는 과정에서 동료들 도울 수 있다. IFLA의 정책과 선언의 개발과 실행은 마음가짐을 제공하며 도서관 서비스의 역할과 잠재력을 지지하도록 돕고 있다. 2007년 Durban에서 열린 WLIC에서 HIV/AIDS에 대한 IFLA의 관심과 the IFLA/FAIFE World Report Series는 빈곤과 부패와 관련된 사건에 대하여 논의하고 보고하는 국가별 그리고 로컬별 계획을 지지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 보고서에서 다룬 3가지 주제에 대한 로컬 워크숍의 국제적 지지는 또한 국지적으로나 국제적으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데 확실하게 도움이 되고 있다.

In the preface to this report, the President of IFLA, Alex Byrne, indicates why libraries and information services should engage in the issues concerning HIV/AIDS, poverty and corruption:

이 보고서의 서문에서, IFLA 의장인 Alex Byrene는 왜 도서관과 정보봉사기관이 HIV/AIDS, 빈곤 그리고 부패에 관한 이슈에 참여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In that unequal world, access to information can be liberating. It can truly change lives by opening windows and doors and thereby providing opportunities for those willing and able to grasp them. This is where these issues become questions of freedom of access to information and freedom of expression, become issues for IFLA/FAIFE. It is not 'social work' but fulfilment of our duty to provide the fullest possible access to information without bias which takes us to engage

with these issues because, by providing that information access, we enable people to take action on the important issues for their societies. By doing our best to ensure that access, we work to reduce inequality”.

“저 불평등한 세상에서, 정보로의 접근은 해방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진실로 창과 문을 개방함으로써 삶을 변화시킬 수 있으며, 그로 인하여, 그것을 움켜잡을 수 있는 그리고 잡으려 하는 사람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것은 이러한 이슈들이 정보로의 접근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에 대하여 의심을 품게 되는, 그리고 IFLA/FAIFE에서 관심을 갖는 이슈가 되는 이유이다. 우리로 하여금 이런 이슈와 싸우도록 하는 편견이 없이 정보의 접근을 최대한으로 가능하게 제공하는 것 그것은 ‘사회적 업무’가 아니라 우리 의무의 완수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정보접근을 제공함으로써, 우리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사회를 위해 중요한 이슈에 행동을 취할 수 있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같은 접근이 보장되도록 최선을 다함으로써, 우리는 불평등이 줄어들도록 일하고 있는 것이다.”

**14) Statement on Libraries and Sustainable Development 2002:**  
**도서관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한 성명**

**Meeting in Glasgow on the occasion of the 75<sup>th</sup> anniversary of its formation, the International Federation of Library Associations and Institutions (IFLA)**

- Declares that all human beings have the fundamental right to an environment adequate for their health and well-being.

모든 사람은 자신들의 건강과 복지에 적합한 환경에 대한 기본적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선언한다.

- Acknowledges the importance of a commitment to sustainable development to meet the needs of the present without compromising the ability of the future.

미래의 가능성과 타협하지 않고 현재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책임의 중요성을 인정한다.

- Asserts that library and information services promote sustainable development by ensuring freedom of access to information.

도서관과 정보서비스기관은 정보접근이 자유롭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장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발전을 장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IFLA further affirms that:**

ILFA는 추가로 다음과 같은 것을 지지한다.

- The international library and information community forms a network that connects developing and developed countries, supports the development of library and information services worldwide, and ensures these services respect equity, the general quality of life for all people and the natural environment.

국제 도서관 및 정보 커뮤니티는 선진국과 개도국을 연결하는, 전세계의 도서관 및 정보서비스기관의 발전을 지원하는, 그리고 이런 서비스들이 균등, 만인의 일반적인 삶의 질, 그리고 자연환경을 침해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 Library and information professionals acknowledge the importance of education in various forms for all. Library and information services act as gateways to knowledge and culture. They provide access to information, ideas and works of imagination in various formats, supporting personal development of all age groups and active participation in society and decision-making processes.

도서관 및 정보 전문가들은 만인을 위하여 다양한 형태로 된 교육의 중요성을 인정한다. 도서관 및 정보 서비스는 지식과 문화에 도달할 수 있는 게이트웨이로 활동하고 있다. 그것들은 정보로의 접근, 모든 연령층의 개인적 발전을 지원하는 다양한 형태로 된 상상력의 작품과 아이디어, 그리고 사회와 의사결정과정에서의 활발한 참여를 제공하고 있다.

- Library and information services provide essential support for lifelong learning, independent decision-making and cultural development for all. Through their vast collections and variety of media, they offer guidance and learning opportunities. Library and information services help people improve educational and social skills, indispensable in an information society and for sustained participation in democracy. Libraries further reading habits, information literacy and promote education, public awareness and training.

도서관 및 정보서비스는 모두를 위하여 평생학습, 독립적인 의사결정 그리고 문화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지원을 제공한다. 그것들의 방대한 장서와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그것들은 안내와 학습 기회를 제공한다. 도서관 및 정보 서비스는 사람들을 도와서 정보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그리고 민주주의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기 위한 교육적 및 사회적 기량을 개선시킨다.

- Library and information services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and maintenance of intellectual freedom and help safeguard basic democratic values and universal civil rights. They respect the identity, independent choice, decision-making and privacy of their users without discrimination.

도서관 및 정보 서비스는 지적 자유의 발전과 유지에 기여하며 기본적 민주적 가치와 보편적 시민 권리를 보호하는데 도움을 준다. 이것들은 자신들의 이용자를 차별하지 않고 정체성, 독립적 선택, 의사결정 및 프라이버시를 존경한다.

- To this end, library and information services acquire, preserve and make

available to all users without discrimination the widest variety of materials, reflecting the plurality and cultural diversity of society and the richness of our environments.

결론적으로, 도서관 및 정보 서비스는 차별없이 모든 이용자가 사회의 복수성과 문화적 다양성 그리고 우리 환경의 풍요로움을 반영하는 아주 다양한 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수집하고 보존한다.

- Library and information services are helping to tackle information inequality demonstrated in the growing information gap and the digital divide. Through their network of services, information on research and innovation is made available to advance sustainable development and the welfare of peoples worldwide.

도서관 및 정보 서비스는 벌어지는 정보의 간격과 디지털 격차에서 나타나는 정보의 불평등을 가로 막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자신들의 서비스 네트워크를 통하여, 연구와 혁신에 관한 정보가 전 세계 사람들의 복지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는데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IFLA therefore calls upon library and information services and their staff to uphold and promote the principles of sustainable development.

IFLA는 그러므로 도서관 및 정보 서비스기관과 그들의 스태프가 지속가능한 발전의 원칙을 지지하고 장려할 것을 요구한다.

This Declaration was approved by the Governing Board of IFLA meeting on 24 August 2002 in Glasgow, Scotland, United Kingdom.

#### **15) 2005 Alexandria Manifesto on Libraries, the Information Society in Action: 활발한 정보사회에서의 도서관에 관한 알렉산드리아 선언서**

Libraries and information services contribute to the sound operation of the inclusive Information Society. They enable intellectual freedom by providing access to information, ideas and works of imagination in any medium and regardless of frontiers.

도서관 및 정보 서비스는 총체적인 정보사회의 건전한 운영에 기여한다. 이것들은 어떠한 매체로든지 그리고 국경에 상관없이 상상력의 작품, 아이디어, 정보로의 접근을 제공함으로써 지적 자유를 가능케 한다.

They help to safeguard democratic values and universal civil rights impartially and by opposing any form of censorship.

그것들은 어떠한 형태의 검열도 반대하면서 공평하게 보편적 시민권과 민주적 가치를 보호하는 것을 돕는다.

The unique role of libraries and information services is that they respond to the particular questions and needs of individuals. This complements the general transmission of knowledge by the media, for example, and makes libraries and information services vital to a democratic and open Information Society. Libraries are essential for a well informed citizenry and transparent governance, as well as for the take-up of e-government.

LIS의 유일한 역할은 개인의 특별한 질문과 요구에 응답하는 것이다. 이것은 예를 들어, 미디어에 의해 지식의 일반적 전달을 보완하며, LIS가 민주적이고 개방적인 정보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도록 한다. 도서관은 교양 높은 시민과 투명한 통치, 뿐만 아니라 전자정부의 발전에도 필수적이다.

They also build capacity by promoting information literacy and providing support and training for effective use of information resources, including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This is especially critical in promoting the development agenda because human resources are central to economic progress. In these ways libraries contribute significantly to addressing the digital divide and the information inequality that results from it. They help to make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a reality, including reduction of poverty. They will do more with quite modest investments. The value of the return is at least 4-6 times the investment.

LIS는 또한 정보인식력을 촉진시키고, 지원을 제공하며, ICT를 포함하여 정보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이것은 특히 개발 아젠다를 추진하는데 있어 중요한데, 그 이유는 인적 자원이 경제발전의 중심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방법들을 가지고, 도서관은 디지털 격차와 그 결과로 나타나는 정보 불평등을 다루는데 있어 크게 공헌하고 있다. 그것들은 빈곤퇴치가 포함된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을 현실화하는데 도움을 준다. 그것들은 더 많은 것에 아주 신중하게 투자할 것이며, 그 보답의 가치는 적어도 투자의 4-6배이다.

In pursuit of the goal of access to information by all peoples, IFLA supports balance and fairness in copyright. IFLA is also vitally concerned to promote multilingual content, cultural diversity and the special needs of Indigenous peoples and minorities.

모든 사람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목표를 추구하는데 있어서, IFLA는 저작권에서의 균형과 공평성을 지원한다. IFLA는 또한 다언어 콘텐츠, 문화적 다양성 그리고 원주민과 소수자의 특별한 요구를 개발하는데 커다란 관심을 가지고 있다.

IFLA and libraries and information services share the common vision of an Information Society for all adopted by the World Summit on the Information Society in Geneva in December 2003. That vision promotes an inclusive society based on the fundamental right of human beings both to access and to express information without restriction and in which everyone will be able to create, access, use and share information and knowledge.

IFLA와 LIS는 the World Summit on the Information Society in Geneva in December 2003에서 채택된 만인을 위한 정보사회에 대한 일반적 견해를 공유하고 있다. 이러한 견해는 제한없이 정보를 표현하거나 접근할 수 있는 인간의 기본적 권리를 기초로 한, 그리고 그 속에서 모든 사람은 정보와 지식을 창안하고, 접근하고, 이용하고 공유할 수 있을 포괄적 사회를 촉진시킨다.

IFLA urges national, regional and local governments as well as international organisations to:

IFLA는 국가별, 지역별, 그리고 로컬 정부 뿐만 아니라 국제기구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 . invest in library and information services as vital elements in their Information Society strategies, policies and budgets;  
자신들의 정보사회에 대한 전략, 정책, 예산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로서 LIS에 투자하라
- . upgrade and extend existing library networks to obtain the greatest possible benefits for their citizens and communities;  
자신들의 시민과 커뮤니티를 위해 최대의 잠재적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기존의 도서관 네트워크를 갱신하고 확대하라.
- . support unrestricted access to information and freedom of expression;  
정보로의 제한없는 접근과 표현의 자유를 지원하라.
- . promote open access to information and address structural and other barriers to access; and  
정보로의 개방적 접근을 촉진시키고 접근을 위한 구조적 및 기타 장애물에 관심을 가져라.
- . recognise the importance of information literacy and vigorously support strategies to create a literate and skilled populace which can advance and benefit from the global Information Society.  
정보학식력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전세계의 정보사회로부터 이익을 얻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숙련된 주민과 학식을 만드는 전략을 강력하게 지원하라.

Adopted in Alexandria, Egypt, Bibliotheca Alexandrina, on 11 November 2005

### **Associated documents**

- . Glasgow Declaration on Libraries, Information Services and Intellectual Freedom
- . IFLA/UNESCO Public Library Manifesto
- . IFLA/UNESCO School Library Manifesto: The school library in teaching and learning for all
- . IFLA Internet Manifesto
- . Maintaining our digital memory: a declaration of support for the World Summit on the Information Society. Communique from the Conference of Directors of National Libraries (CDNL), Oslo, August 2005.
- . Beacons of the Information Society - Alexandria Statement on Information Literacy and Lifelong Learning. High level Colloquium on Information Literacy and Lifelong Learning, Bibliotheca Alexandrina, 6-9 November 2005.
- . IFLA Statement on Open Access to Scholarly Literature and Research Documentation. See <http://www.ifla.org/V/cdoc/policies.htm#Manifestos> for other statements.

### **Some further facts**

There are worldwide:

- . more than half a million library service points,
- . 15.000 km of library shelving,
- . well over half a million Internet connections in libraries,
- . 1,5 trillion loan transactions each year,
- . and 2.5 billion registered library users.

The claim that libraries return at least 4-6 times the investment is supported by numerous studies.

See for example:

- . Svanhild Aabø. The Value of Public Libraries. Paper presented at the World Library and Information Congress in Oslo, August 2005. <http://www.ifla.org/IV/ifla71/papers/119e-Aabo.pdf>
- . Measuring our value. British Library 2003. <http://www.bl.uk/pdf/measuring.pdf>
- . Jose-Marie Griffith & Donald King. Taxpayers return on Investment in Florida Public Libraries, September 2004. <http://dlis.dos.state.fl.us/bld/roi/publications.cfm>
- . Daniel D. Barron et. al.. The Economic Impact of Public Libraries in South Carolina, 2005.

- . <http://www.libsci.sc.edu/SCEIS/home.htm>
- . IFLA Headquarters. The Hague, Netherlands

#### 16) 2005 Beacons of the Information Society

The Alexandria Proclamation on Information Literacy and Lifelong Learning:>

정보사회의 횃불. 정보학식과 평생학습에 관한 알렉산드리아 선언

Celebrating this week's confirmation of the site of the Pharos of Alexandria, one of the ancient wonders of the world, the participants in the High Level Colloquium on Information Literacy and Lifelong Learning held at the Bibliotheca Alexandrina on 6-9 November 2005 proclaim that information literacy and lifelong learning are the beacons of the Information Society, illuminating the courses to development, prosperity and freedom.

정보학식과 평생학습은 발전, 번영 그리고 자유의 길을 밝히는 정보사회의 횃불이다.

Information Literacy lies at the core of lifelong learning. It empowers people in all walks of life to seek, evaluate, use and create information effectively to achieve their personal, social, occupational and educational goals. It is a basic human right in a digital world and promotes social inclusion of all nations.

정보학식은 평생학습의 핵심에 자리잡고 있다. 그것은 자식들의 개인적, 사회적, 직업적, 그리고 교육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효과적으로 정보를 만들고 이용하고 평가하고 입수하여야 하는 모든 일상사에서 사람들에게 힘을 실어준다. 이것은 디지털 세상에서 하나의 기본적인 인권이며, 모든 국가의 사회적 inclusion을 촉진시킨다.

Lifelong learning enables individuals, communities and nations to attain their goals and to take advantage of emerging opportunities in the evolving global environment for shared benefit. It assists them and their institutions to meet technological, economic and social challenges, to redress disadvantage and to advance the well being of all.

평생학습은 개인, 커뮤니티, 국가로 하여금 자신들의 목표를 달성하고 이익을 공유하기 위하여 진화하는 전 세계적 환경에서 새로운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장점을 취하도록 한다. 이것은 개인, 커뮤니티, 국가와 그것들의 제도를 보조하여 기술적, 경제적, 그리고 사회적 도전을 충족시키도록 하고, 불이익을 시정하도록 하고, 모두의 복지를 발전시키도록 한다.



Information literacy:정보학식은;

- comprises the competencies to recognize information needs and to locate, evaluate, apply and create information within cultural and social contexts;

정보요구를 인지하고 사회와 문화적 맥락에서 정보를 만들고, 응용하고, 평가하고 배치시키는 능력으로 구성되어 있다.

- is crucial to the competitive advantage of individuals, enterprises (especially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regions and nations;

개인, 기업(특히 중소기업), 지역, 국가의 경쟁력 있는 장점을 위해 중요하다.

- provides the key to effective access, use and creation of content to support economic development, education, health and human services, and all other aspects of contemporary societies, and thereby provides the vital foundation for fulfilling the goals of the Millennium Declaration and the World Summit on the Information Society; and

경제적 발전, 교육, 보건, 인적 서비스, 그리고 현 사회에서의 모든 기타 요소를 지원하기 위한 콘텐츠의 효과적인 접근, 사용, 창조를 위한 열쇠를 제공하며, 그로 인하여 the Millennium Declaration and the World Summit on the Information Society의 목표를 완수할 수 있는 중요한 기초를 제공한다.

- extends beyond current technologies to encompass learning, critical thinking and interpretative skills across professional boundaries and empowers individuals and communities. Within the context of the developing Information Society, we urge governments and 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s to pursue policies and programs to promote information literacy and lifelong learning.

전문적인 경계를 건너서 학습, 중요한 사고, 그리고 해석기술을 동반하는 쪽으로 현재의 기술 수준 이상으로 확대하여 개인과 커뮤니티의 힘을 키워준다. 발전하는 정보사회의 맥락에서, 우리는 정부와 국제정부 기구로 하여금 정보학식과 평생학습을 촉진할 수 있는 정책과 프로그램을 추구하도록 요구한다.

In particular, we ask them to support

특히, 우리는 그것들에게 다음과 같은 것을 지원할 것을 요청한다.

- regional and thematic meetings which will facilitate the adoption of information literacy and lifelong learning strategies within specific regions and socioeconomic sectors;

특정한 지역과 사회경제분야에서 정보학식과 평생학습의 적용을 원활하게 할 지역별 그리고 주제별 회의

- professional development of personnel in education, library, information, archive,

and health and human services in the principles and practices of information literacy and lifelong learning;

정보학식과 평생학습의 원칙과 업무에서 이루어지는 대인 서비스, 복지, 아카이브, 정보, 도서관, 교육 분야에서 전문직원의 개발

- inclusion of information literacy into initial and continuing education for key economic sectors and government policy making and administration, and into the practice of advisors to the business, industry and agriculture sectors;

주요 경제적 분야와 정부정책작성과 행정을 위한 초기 및 계속 교육에, 그리고 기업, 산업, 그리고 농업 분야에서 조언자의 업무에 정보학식의 포함.

- programs to increase the employability and entrepreneurial capabilities of women and the disadvantaged, including immigrants, the underemployed and the unemployed; and

여성과 이민자, 일시고용자, 실직자를 포함하는 사회약자의 고용가능성과 기업경영 능력을 증가시키는 프로그램.

- recognition of lifelong learning and information literacy as key elements for the development of generic capabilities which must be required for the accreditation of all education and training programs.

모든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의 자격에서 반드시 요구되고 있는 공통적 능력의 개발을 위한 중요한 요소로서 평생학습과 정보학식의 인지.

We affirm that vigorous investment in information literacy and lifelong learning strategies creates public value and is essential to the development of the Information Society.

우리가 단언하는 것은 정보학식과 평생학습 전략에 단호하게 투자하는 것은 공공의 가치를 만들고 정보사회의 발전에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Adopted in Alexandria, Egypt at the Bibliotheca Alexandrina on 9 November 2005.

The IFLA/FAIFE Theme Report 2006 tries to answer the question of why libraries and information services should place stronger emphasis on issues concerning the condition and constraint of the environment in which they are operating, and by doing so recognize their social responsibilities and their role as advocates of intellectual freedom and equal participation in an inclusive information and knowledge society.

IFLA/FAIFE Theme Report 2006에서는 왜 LIS가 그것들이 운용 중인 환경의 조건과 제약에 관한 이슈에 대해 보다 강력한 조명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그렇게 함으로써 포괄적인 정보지식사회에서 동등한 참여와 지적 자유의 옹호자로서의 역할과 사회적 책임을 깨달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The report takes up some of the big issues and major challenges facing the world today: the HIV/AIDS pandemic, poverty and corruption. Authors from Africa, Asia, Central America and the Caribbean, and Eastern Europe explore the role and responsibilities of libraries and information services, and how they can contribute to this fight.

이 보고서는 오늘날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몇 가지 커다란 이슈들과 주요한 도전사항들 - HIV/AIDS 역병, 빈곤과 부패 -을 다루고 있다. 아프리카, 아시아, 중앙 아메리카와 카리브 지역, 그리고 동유럽 출신의 저자들이 lis의 역할과 책임 그리고 어떻게 그들이 이 싸움에 기여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고 있다.

## 17) Libraries for Lifelong Literacy -2004

### "Libraries for Lifelong Literacy"

The IFLA/FAIFE Theme Report 2004 presents visions of how libraries can promote literacy and lifelong learning. The literacy process has to be recognised as inclusive of all ranges of communication, and it occurs at all levels and ages of societies, whether they are predominantly oral societies or have a culture of reading as a basis for accessing information.

The IFLA/FAIFE Theme Report 2004에서는 도서관이 학식과 평생학습을 촉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 학식과정은 모든 종류의 커뮤니케이션이 내포되어야 하는 것으로 인식되어야만 하며, 그것은 그것들이 탁월한 구술 사회이던지 또는 정보접근의 기초로서 독서 문화를 가지고 있던지 간에 사회의 모든 차원과 세대에서 발생한다.

What is seen in the Report is that libraries in developing countries have to come up with novel ways to deal with problems that bigger, richer countries are able to tackle differently. The contributions to this report show how different processes - funding partnerships, community involvement, staff and user training - can be implemented to enable libraries to make a greater contribution to the lifelong learning process. The situations and solutions outlined here may inspire librarians in other countries in their quest to empower their users.

그 리포트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개발도상국의 도서관은 보다 크고 보다 잘사는 나라들이 각자 다르게 방해할 수 있는 문제들을 다루기 위해서는 새로운 방법을 생각해 내야만 한다는

것이다. 이 보고서의 글들에서는 도서관으로 하여금 평생학습과정에 보다 커다란 기여를 하기 위하여 얼마나 다양한 절차들 - 기금지원 동반자, 커뮤니티 참여, 직원과 이용자 훈련 - 이 실행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 밝힌 상황과 해결책은 이용자의 능력을 높이는데 궁극해 하는 다른 나라에 있는 사서에게 영감을 줄지도 모른다.

#### **18) Intellectual Freedom in the Information Society, Libraries & the Internet - 2003; The World Report 2003**

The Report focuses on libraries and the Internet based on completed questionnaires from 88 countries representing all regions of the world. It discusses the digital divide, filtering and blocking of information, user privacy, financial barriers, intellectual freedom, and codes of ethics. The analysis and conclusions of the report address differences region by region and discuss the challenge of the information society with regards to the information haves and the information have nots. Finally, this year's report addresses any reported incidents/violations of freedom of access to information in the individual countries.

저장

이 보고서는 세계의 모든 지역을 대표하는 88개 국가로부터 수집한 완전한 설문지를 근거로 도서관과 인터넷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여기서는 디지털 격차, 정보의 검열과 차단, 이용자 프라이버시, 재정적 문제, 지적 자유, 그리고 윤리규정에 대해 논하고 있다. 이 보고서의 분석과 결론에서 지역별 차이를 이해하면서 정보소유 그리고 정보비소유와 관련된 정보사회의 도전에 대하여 논하고 있다. 최종적으로, 이 연차보고서에서는 각 나라별로 정보접근의 자유와 관련된 몇 가지 보고된 사건과 위반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 **19) Libraries, Conflicts & the Internet - 2002**

The second volume in the series, The IFLA/FAIFE Summary Report was launched

in Glasgow 2002. The main topics of debate were an overview of global Internet access barriers; the Internet as the information tool of the 21st century; libraries and conflicts; 'Beacon for Freedom of Expression' - the Alexandria database; and finally a discussion on how to respond when intellectual freedoms are at stake.

The second volume in the series, The IFLA/FAIFE Summary Report 가 2002년 Glasgow에서 발간되었다. 논쟁의 주요 주제는 전 세계적인 인터넷 접근 방해에 대한 전망, 21세기 정보도구로서의 인터넷; 도서관과 투쟁; '표현의 자유를 위한 횃불' - 알렉산드리아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최종적으로 지적 자유가 위협에 처했을 때 대응하는 방법에 대한 토론 이었다;

## 20) Libraries & Intellectual Freedom - 2001

The IFLA/FAIFE World Report on Libraries and Intellectual Freedom, published in 2001, was the first attempt to systematically collect information on freedom of access to information related to libraries and information services and their customers and provided a picture on the status of intellectual freedom with regards to libraries and information services and librarianship in a global perspective.

2001년에 출판된 The IFLA/FAIFE World Report on Libraries and Intellectual Freedom은 lis와 그것들의 이용자와 관련해서 체계적으로 정보접근의 자유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 첫 번째 시도였으며, 세계적인 관점에서 LIS와 사서직과 관련된 지적 자유의 상태에 대한 그림을 제공하였다.

Reflecting the achievements of the first four years of IFLA/FAIFE activities, the report concludes on the state of intellectual freedom relating to libraries in 42 of the world's nations.

첫 번째 4년간의 IFLA/FAIFE 활동에 대한 성과를 반영함으로써, 그 보고서는 42개 국가의 도서관과 관련된 지적 자유의 상태에 대하여 결론을 내리고 있다.

## 21) 2012 IFLA Code of Ethics for Librarians and other Information Workers (full version); 사서와 기타 정보근무자를 위한 윤리 규정.

### Contents

#### Preamble(서문)

1. Access to information; 정보접근
2. Responsibilities towards individuals and society; 개인과 사회에 대한 책임
3. Privacy, secrecy and transparency; 사생활보호, 비밀엄수 그리고 투명성
4. Open access and intellectual property; 개방적 접근과 지적 재산권
5. Neutrality, personal integrity and professional skills; 중립성, 인적 청렴성 과 전문적 기술
6. Colleague and employer/employee relationship 동료와 고용주/고용자 관계

#### Preamble

This Code of Ethics and Professional Conduct is offered as a series of ethical propositions for the guidance of individual librarians as well as other information workers, and for the consideration of Library and Information Associations when creating or revising their own codes.

윤리 및 전문직 행동 강령은 개별 사서뿐만 아니라 다른 정보 근로자의 안내를 위한, 그리고 자신들의 강령을 만들거나 수정하려고 하는 LIS에서 고려하도록 하는 일련의 윤리적 제안으로 제공되었다.

The function of codes of ethics can be described as

- \*encouraging reflection on principles on which librarians and other information workers can form policies and handle dilemmas
- \*improving professional self-awareness
- \*providing transparency to users and society in general.

윤리강령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 \* 사서와 기타 정보 근로자가 정책을 작성하고 딜레마를 처리할 수 있는 원칙으로 고려.
- \* 전문적인 자기 인식의 개선.
- \* 일반적으로 사용자와 사회에게 투명성의 제공.

This code is not intended to replace existing codes or to remove the obligation on professional associations to develop their own codes through a process of research, consultation and cooperative drafting. Full compliance with this code is not expected.

이 코드는 기존 코드를 대체하거나 연구, 자문 및 협력 제도의 과정을 통해 자신의 코드를 개발하여야 하는 전문 협회의 의무를 제거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이 코드에 대한 충분한 순종은 기대하지 않는다.

This code is offered in the belief that:

이 코드는 다음과 같은 믿음으로 제공되었다;

\*Librarianship is, in its very essence, an ethical activity embodying a value-rich approach to professional work with information.

사서직이란 본질적으로 정보를 다루는 전문적 업무를 위해 가치-풍부한 방법을 구현하는 윤리적 활동이다.

The need to share ideas and information has grown more important with the increasing complexity of society in recent centuries and this provides a rationale for libraries and the practice of librarianship.

아이디어와 정보의 공유에 대한 필요성은 최근에 사회의 복잡성이 커지면서 더욱 중요하게 되었으며 이것은 도서관과 사서직의 업무에 대한 존재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The role of information institutions and professionals, including libraries and librarians, in modern society is to support the optimisation of the recording and representation of information and to provide access to it. Information service in the interest of social, cultural and economic well-being is at the heart of librarianship and therefore librarians have social responsibility.

도서관과 사서를 포함하는 정보기관과 전문가의 역할은 현대 사회에서 정보의 기록과 표현을 최적화시키는 것을 지원하고 그것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사회적, 문화적 그리고 경제적 복지라는 관점에서 정보 서비스는 사서직의 심장이며 그러므로 사서는 사회적으로 책임을 갖는다.

Furthermore, this belief in the human necessity of sharing information and ideas implies the recognition of information rights. The idea of human rights, particularly as expressed in the United Nations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1948), requires us all to recognise and acknowledge the humanity of others and to respect their rights. In particular, Article 19 sets out rights of freedom of opinion, expression and access to information for all human beings.

더구나, 정보와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것이 인적 필수품이라는 믿음은 정보권리에 대한 인지를 의미한다. UN UDHR(1948)에서 특별히 표현했듯이, 인권의 아이디어는 타인의 인간성을 인지하고 인정며 그들의 권리를 존경할 것을 우리 모두에게 요구하고 있다. 특히, 19조에서는 모든 인간을 위하여 정보접근, 표현, 소신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공표하고 있다.

Article 19 expressly sets out a right to “Seek, receive and impart information and ideas in any media and regardless of frontiers” which provides a clear rationale

for libraries and the practice of modern and progressive librarianship. IFLA in statements, manifestos and policy and technical documents too numerous to list has expanded the understanding of work with information. Implicit in this work is the idea of information rights and their significance for the profession and society generally. The emphasis on information rights in turn obliges librarians and other information workers to develop a principled critique of relevant law and to be prepared to advise and, if appropriate, advocate the improvement of both the substance and administration of laws.

19조에서는 표현하자면 “어떠한 매체나 국경에 상관없이 정보와 아이디어를 찾고, 받고, 나누어 주기 위한” 권리를 공표하고 있으며, 이 권리는 현대 및 진보 사서직의 업무와 도서관의 분명한 존립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너무나 많아서 리스트할 수 없는 성명서, 선언서와 지침 그리고 기술문서에서 IFLA는 정보를 가지고 하는 업무에 대한 이해를 확대시켰다. 이 작업 속에서 암시적인 것은 정보권리의 아이디어와 일반적으로 사회와 전문직업을 위한 그것들의 중요성이다. 그 다음으로 정보권리와 관련해서 강조해야 하는 것은 사서와 기타 정보근로자이 관련 법률에 대하여 중요한 비평을 가하고, 자문할 준비를 갖추고, 만일 필요하다면 법률의 본질과 관리 둘 다의 발전을 도모하여야 한다.

The clauses of this code of ethics build on the core principles outlined in this preamble to provide a set of suggestions on the conduct of professionals. IFLA recognises that whilst these core principles should remain at the heart of any such code, the specifics of codes will necessarily vary according to the particular society, community of practice or virtual community. Code making is an essential function of a professional association, just as ethical reflection is a necessity for all professionals. IFLA recommends the Code of Ethics for IFLA to all its member associations and institutions and to individual librarians and information workers for these purposes.

윤리강령의 문장들은 전문가들의 행위에 관한 일련의 제안을 제공하기 위하여 이 서문에서 나타난 핵심적 원칙을 토대로 이루어졌다. IFLA는 이러한 핵심 원칙들이 이러한 유형의 강령에 핵심으로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 강령들의 세목은 반드시 특별한 사회, 실질적인 커뮤니티, 또는 가상적 커뮤니티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강령 제작은 마치 윤리적 심사가 모든 전문가에게 필수품인 것처럼 전문가 협회에서는 본질적인 업무이다. IFLA는 모든 회원 협회와 기관 그리고 개인 사서와 정보근로자에게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the Code of Ethics for IFLA를 추천한다.

IFLA undertakes to revise this code whenever appropriate.

IFLA는 필요할 때마다 이 강령을 수정한다.

## **1. Access to information: 정보접근**

The core mission of librarians and other information workers is to ensure access



to information for all for personal development, education, cultural enrichment, leisure, economic activity and informed participation in and enhancement of democracy.

사서와 기타 정보근로자의 핵심 임무는 개인적 발전, 교육, 문화적 풍족, 레저, 경제활동 그리고 민주주의의 양양과 참가를 위해 모두에게 정보로의 접근을 보장하는 것이다.

Librarians and other information workers reject the denial and restriction of access to information and ideas most particularly through censorship whether by states, governments, or religious or civil society institutions.

사서와 기타 정보근로자는 특히 국가, 정부 또는 종교단체나 시민사회단체에 의한 검열을 통하여 대부분이 이루어지는 정보와 아이디어로의 접근을 부정하거나 제한하는 것을 거부한다.

Librarians and other information workers offering services to the public should make every endeavour to offer access to their collections and services free of cost to the user. If membership fees and administrative charges are inevitable, they should be kept as low as possible, and practical solutions found so that socially disadvantaged people are not excluded.

대중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서와 기타 정보근로자는 이용자가 무료로 자신들의 장서와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만일 가입회비나 관리요금이 필요하다면, 그것들은 가능한 한 낮은 가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사회적 약자가 배제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Librarians and other information workers promote and publicise their collection and services so that users and prospective users are aware of their existence and availability.

사서와 기타 정보근로자는 이용자와 미래의 이용자 모두가 자신들의 존재와 이용가능성을 깨달을 수 있도록 자신들의 장서와 서비스를 발전시키고 일반화하여야 한다.

Librarians and other information workers use the most effective ways to make the material accessible to all. For this purpose they seek to ensure that the websites of libraries and other information institutions comply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for accessibility and access to them is not subject to barriers.

사서와 기타 정보근로자는 만인이 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그들은 도서관과 기타 정보기관의 웹사이트들이 이용을 위한 국제적 기준에 따르고 그것들을 접근하는데 방해가 수반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

## **2. Responsibilities towards individuals and society: 개인과 사회에 대한 책임**

In order to promote inclusion and eradicate discrimination, librarians and other information workers ensure that the right of accessing information is not denied

and that equitable services are provided for everyone whatever their age, citizenship, political belief, physical or mental ability, gender identity, heritage, education, income, immigration and asylum-seeking status, marital status, origin, race, religion or sexual orientation.

참여를 장려하고 차별을 근절시키기 위하여, 사서와 기타 정보근로자는 정보접근의 권리가 거부되지 않고, 나이, 시민권, 정치적 믿음, 신체적 또는 정신적 능력, 성의 정체성, 유산, 교육, 소득, 이민 및 망명, 혼인상태, 혈통, 종족, 종교 또는 성적 취향성이 무엇이든지 누구에게나 공평한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을 보장한다.

Librarians and other information workers respect language minorities of a country and their right to access information in their own language.

사서와 기타 정보근로자

Librarians and other information workers organize and present content in a way that allows an autonomous user to find the information s/he needs. Librarians and other information workers help and support users in their information searching.

사서와 기타 정보근로자는 자율적 이용자가 자신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발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콘텐츠를 조직하고 제공한다. 사서와 기타 정보근로자는 이용자가 정보를 탐색하는 것을 돕고 지원한다.

Librarians and other information workers offer services to increase reading skills. They promote information literacy including the ability to identify, locate, evaluate, organize and create, use and communicate information. And they promote the ethical use of information thereby helping to eliminate plagiarism and other forms of misuse of information.

사서와 기타 정보근로자는 독서기술을 증가시키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들은 정보를 식별하고, 위치를 찾고, 평가하고, 조직하고 만들고, 이용하고, 전달하는 능력을 포함하는 정보학식을 촉진시킨다. 그리고 그들은 정보의 윤리적 이용을 장려한다. 그로 인하여 표절과 다른 형태의 정보 오남용을 제거하는 것을 돕는다.

Librarians and other information workers respect the protection of minors while ensuring this does not impact on the information rights of adults.

사서와 기타 정보근로자는 성인의 정보권에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하면서, 미성년자의 보호를 고려해야 한다.

### **3. Privacy, secrecy and transparency: 프라이버시, 비밀주의 및 투명성**

Librarians and other information workers respect personal privacy, and the protection of personal data, necessarily shared between individuals and institutions.

사서와 기타 정보근로자는 사람의 프라이버시, 그리고 개인과 기관 사이에 반드시 공유되어

있는 인적 데이터의 보호에 주의한다.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library and the user is one of confidentiality and librarians and other information workers will take appropriate measures to ensure that user data is not shared beyond the original transaction.

사서와 이용자 간의 관계는 기밀인 것이며 사서와 기타 정보근무자들은 이용자 데이터가 본래의 용도를 넘어 사용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올바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Librarians and other information workers support and participate in transparency so that the workings of government, administration and business are opened to the scrutiny of the general public. They also recognise that it is in the public interest that misconduct, corruption and crime be exposed by what constitute breaches of confidentiality by so-called 'whistleblowers'.

사서와 기타 정보근로자는 정부, 행정 및 기업의 업무가 일반 대중의 감시에 노출될 수 있도록 하는 투명성을 지지하고 참여한다. 그들은 또한 부정행위, 부패, 범죄는 소위 "whistleblowers"에 의해 기밀누설로 밝혀져야 하는 것이 공공의 관심사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 **4. Open access and intellectual property: 오픈 액세스와 지적 재산**

Librarians and other information workers' interest is to provide the best possible access for library users to information and ideas in any media or format. This includes support for the principles of open access, open source, and open licenses.

사서와 기타 정보근로자의 관심은 어떠한 매체나 포맷으로 정보나 아이디어를 도서관 이용자에게 최상의 접근가능성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것에는 open access, open source, 그리고 open licenses의 원칙에 대한 지원이 포함된다.

Librarians and other information workers aim to provide fair, swift, economical and effective access to information for users.

사서와 기타 정보근로자는 이용자를 위하여 정보의 접근이 공정하고, 신속하고, 경제적이고 그리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목표이다.

Librarians and other information workers have a professional duty to advocate for exceptions and limitations to copyright restrictions for libraries.

사서와 기타 정보근로자는 도서관용의 저작권 사양에서 예외와 한계를 지지하는 직업적 의무를 갖는다.

Librarians and other information workers are partners of authors, publishers and other creators of copyright protected works. Librarians and other information

workers recognise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 of authors and other creators and will seek to ensure that their rights are respected.

사서와 기타 정보근로자는 저자, 출판사, 그리고 기타 저작권이 보호되는 작품의 저작자의 동반자이다. 사서와 기타 정보근로자는 저자와 기타 저작자의 지적 재산권을 인지하고 그들의 권리가 존경받도록 보장해야 할 것이다.

Librarians and other information workers negotiate the most favourable terms for access to works on behalf of their users and seek to ensure that access is not unnecessarily prevented or hindered by the mode of administra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laws and that licenses do not override exceptions for libraries contained in national legislation. Librarians and other information workers encourage governments to establish an intellectual property regime that appropriately respects balance between the interests of rightsholders and individuals and the institutions such as libraries which serve them.

사서와 기타 정보근로자는 자신들의 이용자 대신에 저작의 접근을 위해 가장 좋은 조건으로 협정을 맺고, 접근이 지적 재산권 법의 운용에 의해 불필요하게 방해 받거나 제한되지는 않도록, 그리고 라이선스가 국가 법률에 포함되어 있는 도서관을 위한 예외사항을 유린하지 않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사서와 기타 정보관리자는 정부로 하여금 저작권 소유자의 이익과 개인 및 기관에 봉사하는 도서관과 같은 기관 사이에서 올바르게 균형을 잡을 수 있는 지적 재산 제도를 만들도록 촉구하고 있다.

Librarians and other information workers also advocate that copyright terms should be limited and that information that has fallen in the public domain remains public and free.

사서와 기타 정보근로자는 또한 저작권 협정이 제한되어야 한다는 것과 공공의 영역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적이어야 하며 무료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5. Neutrality, personal integrity and professional skills: 중립성, 인적 침범성 그리고 전문기술**

Librarians and other information workers are strictly committed to neutrality and an unbiased stance regarding collection, access and service. Neutrality results in the most balanced collection and the most balanced access to information achievable.

사서와 기타 정보근로자는 장서, 접근 및 서비스와 관련해서 엄격하게 중립적으로 그리고 편견 없이 행동하여야 한다. 중립성은 가장 균형 잡힌 장서와 얻을 수 있는 정보로의 가장 균형 잡힌 접근을 초래한다.

Librarians and other information workers define and publish their policies for selection, organisation, preservation, provision, and dissemination of information.

사서와 기타 정보근로자는 정보의 선택, 조직, 보존, 제공, 그리고 보급을 위해 자신들의 정책

을 정의하고 출판한다.

Librarians and other information workers distinguish between their personal convictions and professional duties. They do not advance private interests or personal beliefs at the expense of neutrality.

사서와 기타 정보근로자는 자신들의 개인적 신념과 직업적 의무를 구분하여야 한다. 그들은 중립성을 대가로 사적 이익이나 개인적 믿음을 추구하지 않는다.

Librarians and other information workers have the right to free speech in the workplace provided it does not infringe the principle of neutrality towards users.

사서와 기타 정보근로자는 이용자에 대한 중립성의 원칙이 침해받지 않는다면 작업장에서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Librarians and other information workers counter corruption directly affecting librarianship, as in the sourcing and supply of library materials, appointments to library posts and administration of library contracts and finances.

사서와 기타 정보근로자는 사서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부패 - 도서관 자료의 정보원이나 공급, 도서관직으로의 임명, 그리고 도서관 계약 및 재정의 관리와 같은 분야에서 일어난 - 에 반대한다.

Librarians and other information workers strive for excellence in the profession by maintaining and enhancing their knowledge and skills. They aim at the highest standards of service quality and thus promote the positive reputation of the profession.

사서와 기타 정보근로자는 자신들의 지식과 기술을 유지 발전시킴으로써 그 직업의 수월성을 위해 노력한다. 그들은 최상의 서비스 질 수준을 목표하며, 그로 인하여 그 직업의 긍정적인 명성을 드높인다.

## 6. Colleague and employer/employee relationship: 동료와 고용주/고용인 관계

Librarians and other information workers treat each other with fairness and respect.

사서와 기타 정보근로자

Librarians and other information workers oppose discrimination in any aspect of employment because of age, citizenship, political belief, physical or mental ability, gender, marital status, origin, race, religion or sexual orientation.

사서와 기타 정보근로자는 고용에 있어서 나이, 시민권(국적), 정치적 믿음, 신체적 또는 정신적 능력, 성, 결혼상태, 혈통, 인종, 종교 또는 성적 취향성으로 인한 어떠한 차별도 반대한다.

Librarians and other information workers promote equal payment and benefits for men and women holding comparable jobs.

사서와 기타 정보근로자는 동일한 직업을 갖고 있는 남녀에게 똑같은 보수와 이득을 제공할 것을 장려한다.

Librarians and other information workers share their professional experience with colleagues and they help and guide new professionals to enter the professional community and develop their skills. They contribute to the activities of their professional association and participate in research and publication on professional matters.

사서와 기타 정보근로자는 자신들의 직업적 경험을 동료와 공유하며, 그들은 새로운 전문가가 전문가 커뮤니티에 가입하고 자신들의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돕고 안내한다. 그들은 자신들의 직업협회의 활동에 도움을 주며 전문주제에 대한 연구와 출판에 참여한다.

Librarians and other information workers strive to earn a reputation and status based on their professionalism and ethical behaviour. They do not compete with colleagues by the use of unfair methods.

사서와 기타 정보근로자는 자신들의 전문기술과 윤리적 행위를 근거로 명성과 지위를 얻도록 노력한다. 그들은 불공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동료와 경쟁하지 않는다.

### **Further study**

The Ethics of Librarianship. An International Survey. Ed. By Robert W. Vaagan with an introduction by Alex Byrne. München: Saur 2002 VI, 344 p.

Gebolys, Zdzislaw, Jacek Tomaszczyk: Library Codes of Ethics Worldwide. Anthology. Berlin: Simon 2012. 267 p.

Professional Codes of Ethics for Librarians. IFLA-Committee on Freedom of Access to Information and Free Expression (FAIFE). Link (19.03.2012)

Sturges, Paul: Doing the Right Thing. Professional ethics for information workers in Britain. In: New Library World. 104, 2003, n. 1186, p. 94-102. Link (19.03.2012).

Prepared by Loida Garcia-Febo, Anne Hustad, Hermann Rösch, Paul Sturges and Amelie Vallotton (FAIFE working group)

Endorsed by the IFLA Governing Board, August 2012

FAIFE (Committee on Freedom of Access to Information and Freedom of Expression)

## ALA

미국의 ALA에서도 인권과 지적자유에 확고한 책임을 가지고 있으며. 이것들 둘 모두는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ALA, Office for Intellectual Freedom[ALA OIF] 2002, p.194)

### 1) Library Bill of Rights(ALA Policy 53.1 of the ALA Policy Manual)

1961년에 LBR은 1948년에 ALA에 의해 채택되어 1961년 도서관의 권리가 race, religion, national origin, ro political views로 인해 부정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civil rights를 포함 시켜 수정되었다. 1980년과 다시 1996년에, ALA는 모든 연령의 사람에 대한 이러한 권리를 재확인하였다. LBR에서 접근에 관한 마지막 section에서 언급한 것은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의 권리는 origin, age, background, or views로 인하여 거부되거나 축소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LBR은 Intellectual Freedom(ALA Policy 53)의 하위 조항이다.  
오늘날 지적 자유와 인권을 제한하는 압력들:

- 가. audiovisual rating guides(53.1.7)-시청각자료 등급심의지침.
- 나. infringement of access through electronic filtering(53.1.16)
- 다. invasion of privacy(53.1.14) - 확실한 비밀보장과 경제적 장애에 대한 인식이 필요함.

LBR에서는 가난한 사람과 장애인에게 reach out하고 우리의 shelves와 screens에 역사적으로 underpresented(소외되어온 사람)을 보다 잘 표현(represent)하기 위한 의도적 시도가 여러 해 동안 확대되어 왔다: (Public Libraries and Human Rights, Kathleen de la Pena McCook & Katharine J. Phenix. Public Library Quarterly, 25:1-2, 61. 2006. <[http://ds.doi.org/10.1300/j118v25n01\\_05](http://ds.doi.org/10.1300/j118v25n01_05)>)

- (3-1) Freedom to Read(P. 53.3)
- (3-2) Freedom to Vies(P. 53.2)
- (3-3) Libraries, An American Value(53.8)

### 6) Core Values Statement

- 7) Minority concerns(P. 60.1-60.5) - 문화적 minorities, 장애인, 그리고 prejudices and stereotypes의 인권과 정보권리.
- 8) the Service to Poor People(P. 61) - 미국에서 가난한 어린이, 성인, 가정의 급속한 증가에 대응하는 긴급한 필요성에 대한 내용. 이들은 전통적인 도서관 서비스의 효과에 해를 끼치는 illiteracy, illness, social isolation, homelessness, hunger, and discrimination을 포함하는 복합적 limitations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다.

## **2) The Universal Right to Freedom of Expression - An Interpretation of the Library Bill of Rights**

"결코 좋은 검열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자유로운 표현과 자유로운 정보 흐름을 제한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압제자(oppressor)를 도와주는 것이다. 검열권을 갖고 설치하는 압제는 스스로 패배하는 것이다(Fighting oppression with censorship is self-defeating)."( Oliver Harding, Literary Censorship and Infringement of Human Rights - Role Of The Librarian, <[http://ezinearticles.com/?Literary-Censorship-And-Infringement-Of Human-Rights --- Role-Of-The Librarian...](http://ezinearticles.com/?Literary-Censorship-And-Infringement-Of+Human-Rights+---+Role-Of-The+Librarian...)>

## **3) Code of Ethics**

As members of the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we recognize the importance of codifying and making known to the profession and to the general public the ethical principles that guide the work of librarians, other professionals providing information services, library trustees and library staffs.

ALA의 회원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직업에 대해, 그리고 일반대중에게 사서와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다른 전문가, 도서관 이사과 도서관 스태프의 업무를 안내하는 윤리적 원칙을 잘 알도



록 하는 규정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은 인지하고 있다.

Ethical dilemmas occur when values are in conflict. The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Code of Ethics states the values to which we are committed, and embodies the ethical responsibilities of the profession in this changing information environment.

윤리적 딜레마는 가치가 충돌할 때 발생한다. ALA의 윤리강령에서는 그 가치란 언급하고 있다. 우리가 오늘날 변화하는 정보 환경에서 그 직업의 윤리적 책임을 실행하고 구현하기 위한 가치라 말하고 있다.

We significantly influence or control the selection, organization, preservation, and dissemination of information. In a political system grounded in an informed citizenry, we are members of a profession explicitly committed to intellectual freedom and the freedom of access to information. We have a special obligation to ensure the free flow of information and ideas to present and future generations.

우리는 정보의 선택, 조직, 보존, 그리고 배급을 커다란 영향을 끼치거나 제어하고 있다. 학식 있는 시민을 토대로 이루어진 정치 시스템에서, 우리는 분명히 말해서 지적 자유와 정보로의 접근의 자유에 책임이 있는 전문직의 한 멤버이다. 우리는 현재 및 미래의 세대를 위하여 정보와 아이디어의 자유로운 흐름을 보장하여야 하는 특별한 의무를 갖는다.

The principles of this Code are expressed in broad statements to guide ethical decision making. These statements provide a framework; they cannot and do not dictate conduct to cover particular situations.

이 강령의 원칙은 윤리적 의사결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광의적 문장으로 표현되어 있다. 이러한 문장은 하나의 기본틀을 제공 한다: 이것들은 특별한 상황을 다루기 위한 행동을 지시할 수도 지시하지도 않는다.

I. We provide the highest level of service to all library users through appropriate and usefully organized resources; equitable service policies; equitable access; and accurate, unbiased, and courteous responses to all requests.

우리는 모든 도서관 이용자에게 올바르게 유익하게 조직된 자원; 균등한 서비스 정책; 균등한 접근; 그리고 모든 요청에 대하여 정확하고 편견없이 그리고 예의를 갖춘 응답을 통해 최고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

II. We uphold the principles of intellectual freedom and resist all efforts to censor library resources.

우리는 지적 자유의 원칙을 지지하며 도서관 자원을 검열하는 모든 시도에 저항한다.

III. We protect each library user's right to privacy and confidentiality with respect to information sought or received and resources consulted, borrowed, acquired or

transmitted.

우리는 찾거나 받은 정보와 상담하고, 대출하고, 수집하거나 전달하는 자원과 관련된 각각의 도서관 이용자의 프라이버시와 비밀주의에 대한 권리를 보호한다.

IV. We respect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advocate balance between the interests of information users and rights holders.

우리는 지적 재산을 존경하며 정보이용자와 권리소유자의 이익 간에 균형을 지지한다.

V. We treat co-workers and other colleagues with respect, fairness, and good faith, and advocate conditions of employment that safeguard the rights and welfare of all employees of our institutions.

우리는 협력자와 다른 동료들을 존경, 공정, 그리고 선의를 갖고 대접하며 우리 기관에 있는 모든 고용인의 권리와 복지를 보호하는 고용조건을 지지한다.

VI. We do not advance private interests at the expense of library users, colleagues, or our employing institutions.

우리는 도서관 이용자, 동료, 또는 우리를 고용하고 있는 기관의 희생을 대가로 개인적 이익을 취하지 않는다.

VII. We distinguish between our personal convictions and professional duties and do not allow our personal beliefs to interfere with fair representation of the aims of our institutions or the provision of access to their information resources.

우리는 우리의 개인적 신념과 직업적 의무를 구분하고 우리의 개인적 믿음이 우리 기관의 목표를 공정하게 표현하는 것 또는 그것들의 정보자원으로의 접근을 제공하는 것을 간섭하지 않도록 한다.

VIII. We strive for excellence in the profession by maintaining and enhancing our own knowledge and skills, by encouraging the professional development of co-workers, and by fostering the aspirations of potential members of the profession.

우리는 우리 자신의 지식과 기술을 유지 발전시키고, 동료의 직업적 발전을 도모하고, 그리고 직업의 잠재적 회원에게 영감을 불어넣음으로써 우리 직업의 수월성을 위해 노력한다.

Adopted at the 1939 Midwinter Meeting by the ALA Council; amended June 30, 1981; June 28, 1995; and January 22, 2008.

This page has long held the incorrect amendment date of June 28, 1997; the Office for Intellectual Freedom regrets and apologizes for the error.

# 우리나라 도서관법과 윤리강령

## 도서관법

###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의 정보 접근권과 알 권리를 보장하는 도서관의 사회적 책임과 그 역할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서관의 육성과 서비스를 활성화함으로써 사회 전반에 대한 자료의 효율적인 제공과 유통, 정보접근 및 이용의 격차해소, 평생교육의 증진 등 국가 및 사회의 문화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8조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

도서관은 도서관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정보수집과 관리, 공개 등에 관한 규정의 제정에 관한 사항
2. 도서관직원에 대한 관련 교육의 실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하여 도서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 제28조 (업무)

공공도서관은 정보 및 문화, 교육센터로서 수행하여야 할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9.3.25>

1. 도서관자료의 수집·정리·보존 및 공중에 이용 제공
2. 공중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및 지방행정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 제43조(도서관의 책무)

- ① 도서관은 모든 국민이 신체적·지역적·경제적·사회적 여건에 관계없이 공평한 도서관서비스를 제공받는 데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 도서관은 장애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식정보 취약계층(이하 "지식정보 취약계층"이라 한다)의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도서관자료의 확충, 제공 및 공동 활용체제 구축
2. 교육·문화 프로그램의 확충 및 제공
3. 도서관 편의시설 확충, 이용편의 제공 및 전문인력 배치
4. 다른 도서관 및 관련 단체와의 협력
5. 그 밖에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2.2.17]

### 제44조(지식정보격차 해소 지원)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식정보 취약계층이 도서관 시설과 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7>

(도서관법 시행령 제21조(지식정보 취약계층 등) 법 제4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식정보 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9.9.21, 2011.1.17, 2012.8.13>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3. 65세 이상의 노인
4. 농어촌(「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어촌을 말한다)의 주민)

1.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도서관자료의 확충, 제공 및 공동 활용체제의 구축에 관한 사항
2.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도서관 편의시설의 확충과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도서관이 추진하는 사업에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2.17>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식정보 취약계층이 도서관자료를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제31조제5항에 따라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보상금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신설 2009.3.25>

[제목개정 2012.2.17.]

## <Korean Library Association- Code of Ethics for Librarians>

Proclaimed: October 30, 1997

Librarians, as the central force of library administration that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society through the transmission of the memories of nations and the humankind, have heavy responsibilities. These responsibilities can be finally fulfilled only when the critical self-awakening and moral sensibility is alive in every aspect of their professional activities. We, hereby, as an oath to ourselves and as a promise to the people, establish an ethical guiding post by which we will find our direction, and declare it today.

### **Social responsibility:**

Librarians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democratic society in which the freedom and the dignity of the humankind are ensured.

Librarians contribute to the facilitation of people's right-to-know that is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Librarians promote the people's willingness to self-growth and support the efforts. Librarians protect the freedom of libraries and the users, and establish the equal access to information.

Librarians become the cultural leaders who open up a mature knowledge society.

Self-growth: Librarians, through a consistent self-improvement, grow along with the history and develop with the civilization.

Librarians are not negligent in improving themselves, and consistently devote themselves to the research and practice.

Librarians realize that it is their duty to preserve the history and to transmit the facts.

Librarians develop the ability to actively handle social changes and demands of users.

Librarians, armed with the pioneer spirit, overcome daily obstacles, and work with enthusiasm, perseverance, courage, and hope.

#### **Professionalism:**

Librarians fulfill their duties as professionals by means of thorough awareness of the professional knowledge and protection of autonomy.

Librarians do their best to obtain necessary professional knowledge and technique regarding their work.

Librarians demonstrate the autonomy as professionals and obtain appropriate social status by themselves.

Librarians, in case a standpoint of the parent organization is against the principles of the professionalism, are responsible to oppose to this position based on their professional beliefs.

Librarians understand the importance of the professional organizations and take active parts in these organizations.

#### **Cooperation:**

Librarians promote efficiency in the organizational management through strengthening the cooperation.

Librarians first of all strive to enhance the competitiveness of their local libraries that are the foundations of the cooperation.

Librarians then consistently develop the system of cooperation among libraries.

Librarians extend their domain of activities through the cooperation with other social agencies.

Librarians, although it might not be beneficial to their own organizations, maintain the will to cooperate.

**Service:**

Librarians serve people with devotional attitude, and induce the social awareness of the real value of libraries.

Librarians strive for the professional service relevant to wide variety of demands of the users.

Librarians do not discriminate against users based on their ideological orientation, age, gender, or social status.

Librarians always perform their duties with kind and friendly manners.

Librarians endeavor to obtain the rightful social recognition of libraries.

**Collection:**

Librarians, as the ultimate authority to collect, organize, preserve knowledge resources, and to make them available for free use, resist any interference that interrupts these activities.

Librarians are responsible to protect the national cultural heritage and social memories.

Librarians should be free from prejudice, interference, or temptation of any kind in selecting knowledge resources.

Librarians strive for standardization in organization of knowledge resources.

Librarians protect personal information of the users and are not forced to disclose this information.

**Dignity:**

Librarians maintain dignity as professionals engaged in public organizations.

Librarians always perform their duties with pride as professionals.

Librarians always maintain honest attitude and self-esteem.

사서는 항상 정직한 태도와 자부심을 유지하여야 한다.

Librarians do not attempt to gain any illegitimate benefit related to their work.

Librarians sincerely observe the professional ethical code.

Translated by the KLA Ethics Committee

FIN